

月刊

미술사 일

創刊 4294年 6月 25日

4294

3호





미사일 목차(目次) 제3호

준법정신과 사회연대의식 홍승면(洪承勉) (4)
 5·16 혁명(革命)과 민주(民主) 국력(國力) 배양(培養)의 길 전해중(全海宗) (6)
 정신 혁명(精神革命)의 건설적 과제(建設的課題) 김형석(金亨錫) (20)

나의 직업(職業)과 나의 생활(生活)

주병진(朱鉞鎭) (5) 곽종원(郭鍾元) (7)
 류주현(柳周鉉) (9) 김기덕(金基惠) (11)
 김수근(金壽根) (15) 金玉稿(金玉稿) (47)

근의 공산권(共產圈) 동향 김창순(金昌順) (14)
 소련의 암(闇)말라 장수 외지(外誌)에서 (14)
 ◇미사일의 역사(歷史) 외지(外誌)에서 (53)
 5·16 후의 풍경(風景) (만화) 김동석(金東石) (2)

<좌담회(座談會)>

◇생활양식(生活樣式)의 전환(轉換)을 말한다 (38)
 ◇비행(飛行) 안전(安全)을 말한다 103대대(大隊) (24)
 공군(空軍) 장교(將校)들의 오락(娛樂) 경향(傾向) 편집계(編輯係) (31)
 재건(再建) 가계부(家計簿) 김성태(金聖泰) (8)

5·16 후의 문화계(文化界) 동향(動向)

독서(讀書) · 안춘근(安春根) 사진(寫眞) · 최계복(崔季福) 영화(映畫) · 이진희(李鎭熙)
 미술(美術) · 박고석(朴古石) 출판(出版) · 조성출(趙誠出) 무용(舞踊) · 이상화(李相華)
 언론(言論) · 김동사(金東史) 도의(道義) · 박암(朴巖)

수필 { 인간 혁명(人間革命)과 공작 교육(工作教育) 김요섭 (47)
 { 군인(軍人)과 생활(生活) 이윤근(李潤根) (49)
 { 거리에서 성경린(成慶麟) (50)

소선(小善)과 소악(小惡) 박찬흥(朴贊興) (34)
 12명의 노한(怒漢) <명화 해설(名畫解說)> 유기영 (55)
 시(詩)
 5·16 채규철(蔡奎哲) (22)
 6월의 대지(大地)에서 박기원(朴琦遠) (48)
 <소설(小說)> 애정 이전(愛情以前) 박영준(朴榮濬) (60)

<표지(表紙)>

5·16혁명 후 국민들의 건설적(建設的)인 의욕을 상징하고 있다. 가운데는 군인(軍人)이다.

이희세(李喜世)

5·16 후의 풍경(風景)

★교통질서(交通秩序) →
「한국(韓國)은 와서 보니 과연
일등국(一等國)이군」
김동석(金東石)



← ★여성(女性)
신생활복(新生活服)
「춤복(服)도 겸해서……」
김동석(金東石)



★코리안 타임의 역사(歷史)
↓ 김동석(金東石)



5·16 전

5·16 후



← ★사치풍(奢侈風) 일소(一掃)
「태양 아래 얼음처럼……」
이상호(李相昊)

★놀고먹게 된 견공(犬公)
↓ 「도둑이 일소(一掃)되었기에」
김동석(金東石)



★도시락 신안(新案)
「트랜지스터가 아닙니다」
↓ 김동석(金東石)



준법정신(遵法精神)과 사회 연대 의식(社會連帶意識)

- 국가 재건(再建)에 참여하는 길 -

홍승면(洪承勉)



미사일 제 3호

1. 국민의 의무를 지킬 것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된다. 국민에게는 헌법에 의하여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한편 국민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국민에게는 출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출판의 자유는 풍속을 문란(紊亂)케 하는 음화(淫畫)를 출판하거나 공산주의정치의 예찬을 출판할 자유는 아닌 것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무섭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데는 언제나 게으른 정신으로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기는 어렵다. 월급은 꼬박꼬박 타가면서 직장에 나와 일할 생각은 없는 사원만 있는 회사가 잘 될 리가 만무한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둘 켜 가라면 서러워할 열의를 표시하면서 자기의 의무는 아랑곳없다는 태도의 국민만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2대 의무는 납세와 병역이다.

세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세금을 내는 것을 마치 자기 돈을 나라에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가. 그러한 사람일수록 도로가 나쁘다니 전기사정이 좋지 않다니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니 하면서 불평이 대단하다. 돈이 있어야 나라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세금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탈세자」라는 각인이 찍히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병역 기피자」라는 각인이 찍히게 되면 여자들도 그 남자를 상대하지 않는다. 국가방위의무를

저버린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나 생명이 아깝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국가는 발전한다. 납세는 자진신고제이고 병역은 지원제이면서도 훌륭히 발전해 온 국가들도 많다. 국민이 자신의 의무를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왔던 까닭이다. 「애국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이다. 탈세를 하였고 병역을 기피한 자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애국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

2. 준법정신

법은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준수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은 결코 장난삼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우리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교통규칙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교통순경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며 교통질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교통규칙을 우리가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교통규칙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교통규칙의 권위를 높이 세움으로써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통규칙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교통규칙이 전연 무시되는 종로네거리를 상상해 보자. 「택시」나 「버스」나 합승이 급속도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보행인들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것은 수라장과 다름이 없고 일본에 한 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할 때마다 한심스럽다. 교통순경이나 헌병이나 소년단원이 교통을 정리하면 제법 교통규칙을 지키는 보행인들이 교통정리원만 없으면 교통신호등이 안중에 없다. 이러한 타율적인 정신태도는 극히 위험스럽다. 그것은 자존심 없는 정신태도이며 일등국민의 정신태도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운다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교통신호등을 무시하고는 책가방들을 들고 줄달음질을 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신사도 숙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교육이나 교양은 아직도 자율적으로 교통신호등 하나 제대로 지키게 할 줄 모르는 교육이고 교양인 것이다.

준법정신 특히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국가를 재건하는 데 긴요한 정신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회 연대 의식

우리는 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도에서 외로이 사는 로빈슨 루소는 아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면 그것이 누구에게 맞을지도 모른다.

나의 직업과 생활



「등산은 우리들 생각으로는 하나의 예술작용이다. <알파니스트>는 당연한 일이지만 튼튼한 심장과 강인한 근육과 강철의 손가락을 가졌으며 또한 완벽의 기술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을, 진실한 생명을 좋아한다. 그리고 4,000m 이상의 공기 중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매일 점차로 안이한 생활을 달게 하기 마련이지만 진실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의 운명을 만족시키는 데는 텔레비전으로 족하지 않다. 의지가 있으면 길은 통한다. 그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한다. 그는 살고 싶다. 그에게는 육체와 혼이 있다. 고행은 그에게 행동과 명상을 줄 것이다.」

나의 직업과 생활을 말하려는데 서두에 프랑스의 저명한 산악가 가스통 레뷔파(Gaston Rebuffat, 1921-1985) 씨의 말을 인용한 것은 그의 체험과 이 체험에서 우러난 생명력이 강한 말이 그대로 나의 직업인으로서 생활신조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0여 년의 은행원 생활을 나는 한결같이 승엄한 산의 자세를 내 마음에 아로새겨 왔던 것인데 그 때문에 나의 생활은 담담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5·16 군사혁명 은 인간이 오탁(汚濁)과 부정, 불법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산증거가 된 것이다.

이 인간의 진실된 지향은 나의 산에 귀의하는 염원과 상통된다고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오직 온 국민이 가진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최고지순의 목표인 승공통일의 길을 쟁취하기 위한 단결과 이 협동정신이 절대로 요청(要請)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산악인이 정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대로 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주병진(朱炳鎭) (한일은행 창신지점장)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준다.

자기 집안만 깨끗하면 그만이라는 심보에서 쓰레기를 대문 밖 행길에다가 내던지는 주부가 있다. 쥐를 잡고는 이것을 창밖으로 거리에다가 내던지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자기나 자기 집만이 관심거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폐쇄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도 사양치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전선으로 도전을 해서 인근 주택의 전압을 낮게 만들어서 어렵게 해 놓고서도 자기 집안만 밝으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남의 집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아들을 학교에 넣으려고 필사적인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사회가 끌고 루 잘 되어야만 그 혜택을 입어서 우리도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절량(絶糧)농가 또는 한재나 수재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농촌이 잘 살고 농사가 잘 되어야 도시도 그 혜택을 입어서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분업사회이다. 우리는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임을 잠시라도 잊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필자(筆者) · 한국일보(韓國日報) 편집국장>

민주(民主)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는 길

-국민의 자각에 의한 범국민운동의 추진-



전해종(全海宗)

1.5 · 16 군사혁명의 원유

우리는 자래로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다. 함부로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겪은 지 13개월 만에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족의 저력이 해내해외에 과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생각하건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질곡(桎梏)에 시달리다가, 많은 애국선열의 순국의 의혈이 헛되지 않아 1차 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즐길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뜻하였을 것인가. 이 기회는 과거 10여 년간 바로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는 듯이 가장한 자유당과 민주당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의 4월 혁명은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꺾기만 한 젊은 학도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성취한 것이었다. 우리는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재출발하였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대도 자유당에 대신한 민주당의 집권 9개월에 또 다시 말살되어 가고, 정치는 문란하고, 경제는 파탄되고, 사회는 퇴폐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겨레의 운명은 백척간두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5·16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첫째로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도이념과 지도력이 없었다. 민주당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도 명확한 정책과 정견이 없이 정권을 인수하였다. 자유당도 반공방일을 표방하였었는데, 민주당은 반공에 대한 투철한 이념과 강력한 지도력이 없고, 또 무정견한 친일을 도모하였다. 농민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6할을 넘고 농업·수산업은 주산업으로써 국민 총생산액의 4할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시책이 없고, 이농, 곡가폭락, 절량농가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모든 선거공약은 백지화하여 갔다. 오히려 선거공약이라고 하여 병력을 삭감하여 반공력을 저하시키고 통행금지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악을 조장하였을 따름이다.

그들은 야당과 야합하고, 극소의 좌경세력에 좌우되어 간접침략의 기회를 허여하고, 4월 혁명의 주동자였던 학생에게 아첨하여, 학원에 대한 지도력을 잃고, 교조문제, 통일문제를 야기시켜 학원과 사회에 풍파를 일으켰다.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국토개발도 자유당 치하에 이미 그 기초가 마련된 것이었는데,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말미암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로 민주당은 자유당의 전철을 밟아 부패성이 심하였다. 따라서 이(李) 정권 때의 부정선거의 원흉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게을리 하고, 도리어 이들과 결탁하였고, 중석(重石) 사건을 비롯하여 허다한 부정사건을 일으켰다. 관공리의 임면(任免)은 정실과 몰육에 좌우되고,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꾀하고, 환율인상, 밀수 및 사치품 방지를 이용하여 사리를 노렸다. 장(張) 정권의 경제관계의 한 장관은 재임 9개월에 역대 부정축재를 하였다 하고 폭력배를 조장하여 질서를 교란하고, 파쟁을 일삼아 정치를 도외시하였었다.

셋째로 5·16 혁명의 원유는 민주당의 무력과 부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월 혁명의 불철저성에 있다. 4월 혁명에서 자유당의 구악을 제거하지 못하여 민주당은 적폐를 계승하였었고, 이 적폐를 타파하려는 것이 5·16 혁명이다.

4월 혁명의 주동자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나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여 꺾기하였을 따름이다. 온 국민이 이를 지지하였고, 미국의 지원과 국군의 침착한 태도가 이를 성공하게 하였다. 4월 혁명에는 투철한 지도이념과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요구는 이 정권의 퇴진으로 관철된 셈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구악을 발본색원하고 새로운 건설과 발전을 계획한다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집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구악을 조장하여도 아무런 제주(制肘)도 견제도 받지 않았다.

넷째로 국민의 자각이 부족하였다. 4월 혁명의 열렬한 정의감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지도이념과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는 방임되었다. 학생들이 항시 정치의 감시자가 될 수는 없고, 그들이 학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월혁명의 성공에 있어서 교수들이 일비(一臂)의 힘이 되었으나, 지식인들은 본래 행동성이 덜한데다가,

나의 직업과 생활



교육생활이란 변화가 극히 적은 직업이라고 보겠다.

그러면서도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다.

교수라고 한말로 말하면 가르치고 주는 것이라고 보겠으나 기실(其實)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을 주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아야 함으로 교수는 위치는 가르치기 전에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부면이 급속도로 회전하고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을 때 어제까지의 지식을 자랑할 아무런 것도 없다. 오직 새 지식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직업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위치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나의 짧지 않은 교직생활은 곧 이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외견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면서도 내적 생활의 변화는 큰 것이라 하겠다.

직책에 충실하기 위한 탐구생활의 연속이고 보니 여기서 더 무슨 이상적이라는 것을 들 수도 없다. 내 생활의 충실, 이것이 우리를 뒤따르는 후배의 기쁨이 되고자 할 뿐인 것이다.

특히 이번 5·16 군사혁명을 보게 된 우리는 더욱 책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 학원에서 올바르게 못한 사고방식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기 위해 우리는 정신 혁명을 완수해야겠고 또 인간개조의 선봉에 나서야겠다.

형식적인 구호를 버리고 내용면의 실천을 과감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희망의 내일을 위해 참고 이기는 길을 가야할 것이다.

<곽종원(郭鐘元) · 숙대(淑大) 교무처장(敎務處長)>

민주당의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는 지식인을 무력하게 해 버렸다. 민주당 집권하의 정치·경제·사회·민생·문화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드디어는 간접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나, 이를 제지할 만한 집단적인 힘이 없었다. 야당정치인은 여당과 야합하고, 실업가는 관리를 매수하고, 사치와 불륜과 도적이 범람하고 기아가 도시와 농촌을 휩쓸었다. 온 국민은 절망에 사로잡혔다.

국민은 다 같이 부패한 정치를 비난하고 사회악을 개탄하고 경제적 파탄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에 몰들어 스스로가 부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책할 줄은 모르고 남만 나무랐다. 집권자의 부패는 국민의 부패를 조성하여, 입으로는 악을 꾸짖어도 대국을 위하여 소리(小利)를 버릴 줄은 몰랐다. 하물며 한 몸을 희생하여 시국을 광정(匡正)하려는 의욕은 없었다. 백척간두에서 거취를 잃고 있는 국가와 민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5월 16일 미명(未明), 국군은 꺾기하여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여 무혈혁명이 성공하였다.

2. 민주주의와 군사혁명

5·16의 혁명은 치밀한 계획과 투철한 각오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예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이다. 혁명 초기의 하루 이틀 동안은 국민은 환희와 불안의 반반의 심정이었다. 그것은, 군사혁명은 멀리 중남미나 동남아의 제국에 있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장 정권에 의한 최후의 발악이 국가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려, 5월의 준동(蠢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건대 자유당과 민주당의 구악을 제거하고 퇴폐한 사회를 바로잡을 능력과 용기가 일반 국민에게는 없었다. 국군의 꺾기만이 오직 남은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군사적 혁명 정부가 근대적 민주정치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또 어떤 혁명 정부도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를 무제한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권은 민주주의로 가장한 것이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독을 끼쳤던 것이다. 5·16의 군사 혁명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오도된 민주주의를 정도하려고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의장은 5월 19일, 대한민국(國體)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顯明)하였다.

재건 가계부

김성태(金聖泰)



1. 가정(家庭)

세상 사람들, 또는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나 사회경제나 하여 경제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가의 재건은 곧 국가경제 사회경제 기업경제 금융경제 등의 경제제건에 있다고 들 강조하면서도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도 되지 않고 관심도 작은 것 같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영향력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보이면서 기실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가정

경제인 것이다.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곧 건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의 기초인 것이고 불안한 가정, 불행한 가정은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곧 불안한 나라, 불행한 나라가 된다. 지금 우리의 민족적 역사적 목표인 국가재건 완수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 번영이 경제제건에 있다면 그 재건의 시발점으로서 가정의 살림살이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실상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중추역은 가정이다. 날이 새면 우리는 국가의 간정으로써 각자 맡은 바 임무수행에 분망하고 긴장된 마음을 풀고 자유 흥장이나 오락장에 들어가기도 하지마는 실상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곳은 가정이며 또 누구나도 마지막에는 가정을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라 할까?

아무리 고상한 정신 따뜻한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경제조건을 무시하고는 그 고상한 정신도 따뜻한 애정도 가진다는 것은 무리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경제적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정신이 가난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성립될 수는 없다. 가정생활은 결국 정신생활과 경제생활의 이원적(二元的)인 것이며 양대 조건의 하나인 가정경제생활면에도 우리는 적지 않은 구악(舊惡)의 습성이 숨어있으니 이것도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하겠다.

2. 가정경제란 무엇인가?

가정경제, 즉 가정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가계(家計)란 우리가 흔히 쓰는 국민경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경제란 기업(企業)과 가계(家計)가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이나 가계가 건전성을 잃게 되면 건전한 국민경제도 있을 수 없다.

자유와 민주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구미의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수세기의 시련을 거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선진국가의 민주주의가 곧 후진국가에 이식될 수는 없다. 근대적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며 이 삼부는 상호견제하며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생명, 재산,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입법부의 지배를 받고,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오랜 왕조정치(王制)의 뒤를 이어 30여 년에 걸친 이민족의 탄압 밑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없었고, 경제적 문화적인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 미국적 민주주의가 쉽사리 옮겨질 수 없어서, 여기에서 자유당 치하에서의 파탄이 생겼던 것이며, 4·19의 혁명이 있어도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유당의 전철을 밟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5·16 혁명은 4월 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후자에 결핍되었던 투철한 지도이념과 지도력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그 확고한 기틀을 닦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이미 지적하였고, 역사상의 선례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후진국가에서는 정치 경제의 강력한 지도력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미얀마, 타이, 파키스탄, 통일 이란, 터키, 수단 등의 아아(亞阿) 여러 공화국과

나의 직업과 생활



문학을 한다고 하니 나의 생활 태도란 것을 어느 궤도에 올려놓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생활이란 것은 별 것이 아니다. “어찌 문학한다는 사람이 그래.” “글쎄.”

아마 술잔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겠는데 나는 문학(文學)을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이 무어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학(文學) 하니 생활도 그 작품 중의 어떠한 사람 같이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된 것 아닌가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그다지 허식(虛飾)이란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축이어서 그런지 평범한 것이 좋다.

문학을 하니가 조금 탈선(脫線)을 해보자는 의식(意識)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으로는 있음직도 한 일이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내 속마음에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구름덩이를 때로 나도 의식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의 행동화하기 보다는 그 구름의 다채로운 변이(變異)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내가 쓰고 싶은 작품에 무엇인가 가져올 수 있게 생각하는 생활이 나에게서 즐거운 시간(時間)이요 그 이상의 것을 나는 바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는 거창하게 이것이 나의 이상적인 생활 태도라고 내세울만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러한 필요성도 없을 것으로 본다.

아닌 게 아니라 무엇인가 뚜렷한 것을 그려놓고 나는 악착스럽게 그 목표를 향하여 끈덕지게 해 나갈 만치 나는 의무적이 못 된다.

이러한 나에게 5·16 군사 혁명은 확실히 새로운 하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보겠다. 그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속아 왔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심했다 할까 이제는 우리들도 옳게 바르게 사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6·25 때 의욕에 찻던 중군(從軍) 생활이 돌이켜지며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유주현(柳周鉉)·소설가(小說家)>

건전한 가계는 물론 건전성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수입을 무시한 지출, 불필요한 낭비, 허영적인 생활 태도, 이런 것은 건전한 가계를 방해하는 요소이고 국가재건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인 경제제건에 있어 독소임으로 일소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혁명 공약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구악(舊惡)을 가정경제면에서 볼 때 허영적인 소비가계라 할 수 있다.

어떤 가정이고 누구의 가정이든 가계는 수입과 지출을 무시하고는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기본은 국가재정이나 기업재정과 그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주를 정상비로 해서 보건, 교육, 오락, 취미, 그리고 특별비 등으로 구성된다. 갑자기 환자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비, 갑자기 여행을 떠나야 하는 여비, 일가친척 교우 등의 환관상제 등의 부조비 등을 특별비로 예상해야 하고 가족의 결혼 장례 또는 자녀들의 교육비로서의 공납금 같은 목돈 마련은 미리 계획적인 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봉급을 가정생활의 기본수입으로 삼고 있는 가정은 수입보다 대체적으로 지출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봉급만으로 가계를 꾸리는 것은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봉급의 테두리 안에서 가계를 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무래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조(內助) 또는 부업(副業) 등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경제의 계획

같은 가족 수에 같은 액수의 봉급으로 한편은 곧잘 살아가는데 한편은 굶느니 먹느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만일 한편의 못 사는 가정이 낭비를 하지 않는데도 못 산다면 그 가계가 규모 없는 무계획 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상 무계획 가계는 이미 무계획이기 때문에 낭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중남미 제국에서 근래에 군사 혁명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이다. 군사적 쿠데타로 이란 왕국에서는 정치세력이 인정되었고 더욱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불란서에서도 이로 인하여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미얀마에서는 혁명 정권의 시책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혁명 후 1년 만에 총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이양되었고, 우리나라 4월 혁명에 뒤이어 군사 혁명을 일으킨 터키에서도 1년 반 만인 내(來) 10월에 정권을 이양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밖에 몇 나라에서는 의회정치에의 과도적인 단계로서 임명의원에 의한 의회를 개최하고, 파키스탄은 계엄령 선포 후 1년에 기본적 민주주의를 제시하여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각국의 군사 혁명은 왜곡된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3. 혁명의 진전과 민주 국력의 배양

5·16 군사 혁명의 목적은 5월 16일 발표된 6개항의 혁명 공약에 명시되었다.

혁명을 거친 지 1개월, 이미 과거의 부패와 피해를 없애기 위한 제일보는 과감하게 발족하였다. 공약 제1항에 표시된 반공태세에 관하여는 전방과 후방에서 갖추어졌고, 간접침략을 분쇄하기 위하여 용공 세력(容共勢力)은 제거되고 있다. 제2항의 우방국가와의 친선에 관하여도, 결원중의 재외공관사절을 임명 보충하며 각지에 친선사절을 파견할 준비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제3항과 제4항에 표시된 부패 일소와 자주경제 확립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시책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이 인순교석(因循姑息)하여 처리를 게을리 하여 국민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던 부정선거의 원흉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은 지금 신속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악을 조장하던 깡패는 소탕되고 사치생활은 박멸되어 가고 있다. 부정 공무원의 정리와 더불어 국민의 부정도 소멸되어 간다. 민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던 절량농가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미가 방출되고 고리대가 정리되고 실업자의 실태도 조사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인 농업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농자금도 방출되고 하곡매상이 공표되었다. 경제, 재정관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제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 4월 혁명에 결핍되었던 지도이념은 5·16 혁명에서는 6개조의 공약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구정권의 부패와

어느 학자가 현대의 특징의 하나로서 <계획성>을 들었다. 현대는 계획의 시대며 모든 사회적 발전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한사람의 천재(天才)보다도 여러 사람으로 종합된 계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경제도 계획성 없이는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이룩될 수 없다. 같은 조건 밑에서 못 사는 가정은 그만큼 규모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가정경제의 계획은 그 기본을 어디에 둘 것인가?

- ① 내일의 일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재생산에 필요한 영양과 휴식 문제.
- ② 자녀들의 교육 문제.
- ③ 가족의 보건 문제.
- ④ 문화적 생활 문제(즉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사회문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4개 사항은 적어도 오늘날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가정생활이 가정생활로 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보통 우리는 이 네 가지 요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을 가리켜 가난(경제적으로)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저한도 내일의 일을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아들 딸의 공부를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위생문제가 고려되어야겠고 신문이나 영화 그리고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은 읽을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것을 기본 요건으로 삼아서 가계가 계획화되어야 하겠다.

4. 먼저 부지런해야겠다

서독(西獨)이나 덴마크의 국민들은 부지런하다고 세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편이고하니 게으르다는 평이 많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가난>의 가장 첫째가는 원인이라고 카네기가 말한 것은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가 어머니 나라가 어머니 인심(人心)들이 어머니 또는 직장이 없어서 봉급이 적어서 하면서 못살겠다고 떠들어대는 버릇이 있으나 가난한 원인이 자기의 게으름에 있다는 점을 반성해 보려 하지 않는다. 가령 국민 전부가 게으르다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을 가정생활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건하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생활이 낫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우길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돈은 제법 잘 버는데 늘 쪼들리는 가정이 있다. 이것은 생활태도의 불합리가 그 원인일 것이다. 분에 넘치는 소비생활은 제법 수입이 있어 마땅히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도 항상 쪼들리는 불안정 생활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또 이런 가정일수록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생활을 지속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예는 경제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정신생활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불행하다는 증거라 하겠다.

5. 생활태도의 두 가지 원칙

부수입, 음성수입, 극물- 이런 따위의 부정수입으로 살겠다는 것이

부정은 급속히 제거되고 있다. 우리는 4월 혁명의 전신이 5·16 혁명에 계승되고 여기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 동안 누적되고 더욱 올라가서는 일제 강점기까지도 그 기원을 소급(溯及)할 수 있는 구악은 일조일석에 근절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표면에 나타난 명백한 구악의 제거는 비교적 쉬우나 나타나지 않은 악은 없애기 어렵다.

혁명 1개월의 성과는 혁혁한 바 있으나, 이것은 혁명 제1단계의 성과다. 제2단계와 그 이후에 있어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주도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혁명 공약의 수행에 있어서도, 이 공약에 제시된 반공은 표면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각자가 자각에 의한 애국심과 민주주의 정신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부패와 부정의 제거는 형벌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도의심에서 우리나라는 것이어야 하며, 경제 재흥에는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 과감한 시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적 충실은 민주주의 성립의 한 요건이다. 민주주의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정치적 토대와 경제적 토대가 다같이 구비되어야 한다. 전자에 치우치면 가장된 민주주의가 되기 쉽고, 후자에 치우치면 민주주의를 망각하기 쉽다.

혁명 정부의 지도이념은 명석하고 그 지도력은 건실하다. 혁명 수행을 위한 구체적 기획에, 많은 지식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던 일로서 정부 (30면으로 계속)

나의 직업과 생활



우리나라 공무원(公務員)의 생활이란 이제껏은 대체로 기형적(奇形的)인 생활이었다. 아마 기형적인 생활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봉급자(俸給者)의 생활이 거의 그랬던가 싶다. 기형적인 것이 정상인 양 행세하는 동안은 사회악(社會惡)이 존재할 것이고 나라는 어지러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5·16의 군사 혁명은 이런 사회악을 근절(根絶)하고 떼땀한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수입에 비해서 과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은 부채(負債)로서의 생활인 것이요 누적되는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는 대소(大小)의 사회악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만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죄를 범하면서도 범죄 의식을 스스로가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인 양 그 사고(思考)가 굳어져가는 듯 싶다.

월 4만원(圓)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면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영위(營爲)되어야만 하겠고 월 4만환을 가지고 생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정당한 다른 방법으로서 보충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든가 그렇지 못하면 생활 태도를 수입에 맞도록 고쳐야만 한다. 두 가지 중에 그 하나도 취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파멸(破滅)이 아니면 부정(不正)을 스스로 저지르게 됨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인간이란 항상 떼땀한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떼땀한 생활 태도야말로 그냥 우리의 생활이 되어주었으면 싶다. 「무사(武士)는 굶었음방정 의것하게 이수시개를 물고 있다」는 외국 속담이라든가 또는 우리 서울 양반으로 「남산골 샌님」의 그 청빈(淸貧)이란 방안에서 우산을 받을망정 그 의것하고 떼땀하기가 태산과 같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가운데엔 악(惡)이란 감히 것들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봉급자 특히 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는 대체로는 심할 정도까지 어지러웠음은 사실이 었다. 감투가 크면 큰 만큼 그 정도 또한 컸던 것도 대체로는 사실이 아니었던가. 몹서리쳐지는 지난날의 악몽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군사 혁명의 주된 목적인 이 구악(舊惡)의 근절이야말로 우리 국민 각자가 대오(大悟) 반성함으로써 성취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에서는 각자가 그 정당한 수입을 극대함으로 올리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림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지출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핏줄인 조상 「남산골 샌님」의 기질을 본떠서 항상 가난한 중에도 떼땀한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떼땀한 생활」 이것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생활 태도인 것이다.

<최기덕(崔基惠)·서울 사세청(司稅廳) 직세(直稅) 과장(課長)>

혁명 전까지의 대다수의 병든 생활태도였다. 냉큼 잘라버려야 할 <꼬부라진 꼬리>다. 이런 부정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가계는 항상 불안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쪼먹는 독소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 같은 일종의 불로소득은 낭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 필요 없는 사치품을 사는 동기도 이 같은 부정수입에서 행해지는 율이 많다. 그래서 건전한 가계(家計)의 원칙으로

① 최선(最善)으로 얻은 수입으로 최대(最大)의 효과를 거둔다. 는 것과

② 지출을 가정생활의 내용(內容)을 충실화(充實化)하는 데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는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가정경제의 목표는 부정수입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을 없애고 생활 내용을 향상시켜 만일을 위한 대비, 새로운 소득의 창조, 최대한의 효과로서 건실한 생활기초를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돈을 벌고 어쩌면 미국의 상류가정이나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알맞은 호화관의 방치레나 하는 것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제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생활태도 가정 꾸리기인 것으로 여겼던 지난날의 불건전한 사조가 다름 아닌 부패요 구악이었던 것이다. 공무원의 봉급이란 규정지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가의 그것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해왔던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부패의 상징이요 국민경제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이끌어난 구악의 표본이었다면 국가재건을 목표로 한 혁명 수행의 과정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계도 근본적으로 <재건 가계부>로 그 자세를 고쳐 가져야 될 것이다.

철(鐵)의 장막(帳幕) 뒤의 암(闇) 달려 장수

-소련(蘇聯) 국민 생활의 이모저모-



(사진-레닌그라드 뒷골목의 빈민들)

이 글은 1960년 여름, 일본의 동경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 교수 오케타니 시게오(桶谷繁雄) 씨가 5명의 대학생과 1명의 신문기자를 인솔하고 자동차로써 소련 영내를 도시와 촌락에 걸쳐 시행한 인상기(印象記)이다. 오케타니 씨는 과학자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사상적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그의 기행문(紀行文)을 소련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기록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한때 즉, 4·19·5·16 사이에 일부 용공세력(容共勢力)이 공산국가의 국민들은 잘 살고 있다는 과장된 선전으로 망상적이며 무모한 접근을 피하였는데 이 수식(修飾)없는 인상은 그러한 망상을 반증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소련을 방문한 사람치고 누구나 소련인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라디오, 만년필 등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것을 팔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6. 가계부의 원칙

가정 경제계획의 원칙이 건실한 생활기초를 마련하고 생활내용을 향상시키며 만일을 위한 대비, 새로운 소득을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해서 가정환경에 부합되고 계속적인 수입과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면 가계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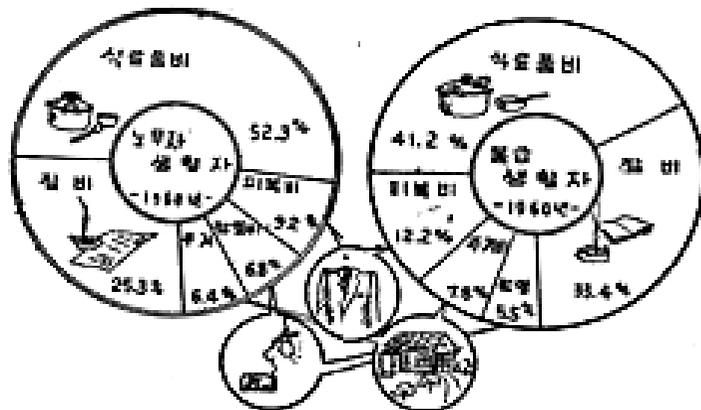
- ①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잡혀야 하고
- ② 이 수치 균형은 가족 인원수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균형이 되어야 하며
- ③ 가계 내용이 계획화되어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① 소득에 충실한 예산이라야 한다는 것이고 ② 수치 균형이 어느 일방에 치우쳐 가족 개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희생시키는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③ 지출항목별로 계획화되어 월차적(月次的)으로 무리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③항은 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주밀한 용이가 있어야 한다. 다음 달에 있을 듯한 어떤 막연한 소득이나 차금(借金)을 예상해서 이달의 수입을 잘라 웃을 해 입고 다음 달에 그 수입이 어긋나서 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예는 누구의 가정에서도 많은 사례이다. 그래서 건전한 가계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

① **욕망의 조절**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 것이고 개개인에 따라 욕망의 내용도 다르다. 5인 가족이면 그 가족적 연령적 조건에 따라서 제각기의 욕망이 다른 것이니 이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② **신분에 알맞은 생활** 참새가 황새걸음을 따르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수입과 지출의 한도를 도외시하는 생활은 결국 경제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어 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무규모한 생활로서 손해를 보는 예가 허다하다. 한 번 가면 될 일을 두세 번이나 가고 한 번 만나는 예는 시간의 낭비, 정력의 낭비, 지출의 낭비가 따른다. 일상의 소비생활을 규모화해야 한다.

③ **다소라도 저축하자**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든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할지도 모르지만 저축한다는 것이 꼭 여유가 있어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서구(西歐)에서 볼 수 없는 빈농층(貧農層)

나는 처음 자동차로 시베리아(西伯利亞)를 횡단하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꿈은 간단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것은 아직 시베리아는 도로를 계획중이고 가솔린 보급에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나는 우랄 산맥 서편의 소련을 보는 데 그쳤다.

처음 우리는 서편 소련의 간선지대(幹線地帶)를 달렸다. 나는 이 간선도로를 달리면서 그곳에서 보이는 농가(農家)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외국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 연도(沿道)의 농가들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 농가는 내가 서구 제국(諸國)에서 본 농가에 비하면 속절없는 빈농층(貧農層)이고 지붕이 부서지고 벽이 허물어뜨려진 농가를 볼 때 43년 전에 것처럼 참혹하게 흠뻑 피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그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위 혁명 후 43년이 흘렀다. 그것은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혁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농민의 꼴이 이 모양이라면 제정시대(帝政時代)의 농민은 얼마나 참혹한 생활을 했던 말인가. …… 그 때 그 동안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지. 그러나 그로부터도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은 소련 이상으로 2차 대전의 피해가 심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는 이와 같은 빈농층은 없는 것이다. 물론 아구(亞歐)에는 말할 나위 없겠고…….’

나는 일본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소련은 우유 생산량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었기에 소련에 가면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체 입수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일행이 「밀크」가 있는 곳을 몰랐는지는 모르나 우리 눈에는 거의 띄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농촌에서는 우유가 귀하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어찌서 농촌에서 귀하단 말인가? 그 수수께끼는 공출(供出)이라는 것이었다. 이 우유 공출은 각 콜호스(집단농장)에 할당되는데 이 할당량을 공출하지 않으면 농촌에서는 생활 소비품이 입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가 가진 젖을 뿌리째로 뽑아서 공출하고 보니 농촌에 우유가 귀한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

집단농장(集團農場)에도 빈부의 차(差)

그런데 내가 크게 쇼크를 받은 것은 콜호스에 따라 빈부의 차(差)가 심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북쪽 지대의 콜호스는 더욱 빈곤하다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우리 일행은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시장의 시세가 남쪽 지대보다 북쪽이 더 비싸다는 것으로 집단농장에서조차 이처럼 빈부의 차가 있다는 데에 나는 쇼크를 받았던 것이다.

도로도 대체로 빈약한 편이었다. 실상 서구(西歐)를 자동차로 달려보면 편측(片側) 2차선 양측(兩側) 4차선, 중앙에는 그린벨트를 놓고 포장도 중포장(重鋪裝), 100km에서 120km의 스피드를 내어도 지장을 느끼지 않는데 소련에서는 모스크바나 그 밖의 대도회(大都會)의 주변을 제외하고는 편측 일차선의 간이포장이고

다 하고 나면 얼마가 있어도 모자라는 법이다. 하루에 10환씩이라도 저축한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입고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하루살이가 아닌 이상 내일의 삶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저축 없는 생활이란 건전하고 규모 있는 가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④ **회계기간의 설정** 수입과 지출은 물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균형 잡혀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한 달이 알맞은 예산(豫算) 기간일 것이다. 즉, 한 달 기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수입과 지출이 한 달을 두고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⑤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가계는 가정경제의 예산화를 말하는 것이며 가정은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니 예산 편성은 가족 중심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가정이라는 집단생활의 예산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 예산의 집행이 국민의 이해와 협력에 의해서 원만히 운영되는 것과 같이 가정 예산의 집행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7. 참고(參考)

A 봉급생활자의 소비지출별 비율

여기에 참고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소비지출별 비율을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작년(60년)도의 일반 봉급생활자의 평균 지출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41.2%, 광열비 5.5%, 주거비 7.8%, 피복비 12.2%, 잡비 33.4%

이 비율표를 보면 식료품비에 이어 잡비가 전 지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잡비라는 것은 광열비 주거비 피복비 식료품비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일괄되어 있지마는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면 교육비 교통비 교제비 오락비 등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전기 5개 항목을 기준으로 5만환 봉급자가 봉급만을 수입으로 잡았다고 볼 경우의 지출액을 보면

식료품비 20,600환, 광열비 2,750환

(30면으로)

도로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도 거의 전부가 여자들이었다. 이와는 반비례로 대도시에 있는 건축물은 대개 가 훌륭한 외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일행은 가는 곳마다 많은 소련인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만년필, 라디오, 카메라를 팔지 않겠느냐고 대드는 데는 질색이었다. 이려고 보면 언제인가 프랑스(佛蘭西) 신문 가십란에 파리(巴黎)에서 소련 정부의 고관수행원들이 무역 상인처럼 물건을 많이 산다는 매물옥(賣物慾)을 비호아 부친 기사가 막상 소련인을 꼬집기 위한 글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소비 물자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웅변(雄辯)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비 물자 중에서도 유독 종이(紙)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이 숙박한 호텔 변소에 휴지통이 비치되어 있었고 용변지(用便紙)가 우리가 상용하는 변소 용 권지(卷紙)가 아니고 모두가 포장지나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 잡지(雜誌紙)였다. 이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류계급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권지(卷紙)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련에는 휴지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맨발로 다니는 처녀(處女)들

하루는 백화점 앞에 부녀(婦女)들이 즐비하게 서 있기에 물었다니 상질(上質)의 체코제(製) 부녀화(婦女靴)가 입히되어 그것을 사자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비로소 며칠 전 모스크바에서 소낙비가 쏟아지자 소련 아가씨들이 구두를 벗어 옆에 끼고 맨발로 달리던 이유가 납득이 갔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행의 자동차가 키예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든 가운데 세 사람의 아가씨가 똑같은 문체의 원피스를 입고 모두가 맨발이었음이 생각났다. 키예프 같은 도시에서 이런 꼴이니 구두가 귀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스푸트니크보다 구두를 달라

이것도 역시 키예프에서 본 일인데 한번은 당(黨) 지부(支部)의 요인(要人)이라는 사람이 무슨 축하 군중대회 연설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생활필수품을 증가 보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신문 투서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과학의 우수성은 이만하면 알았다. 스푸트니크는 그만해 두고 그 대신 구두를 보급해 달라. 나는 이 구두를 5년간 계속 신고 있는데 이제는 수선할 여지조차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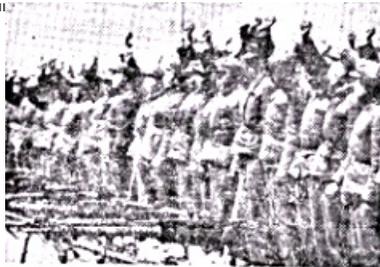
채권자(債權者) 같은 상점원(商店員)들

나는 모스크바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갔다가 앓자, 여기가 일본이 아니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러이 느꼈다. 상점의 주인이나 점원이 어찌면 그렇게도 불친절할까.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준다는 것은 마치 무슨 은혜나 베푸는

<시사해설(時事解説)>

최근(最近) 소련 중공(中共)의 동향(動向)

김창순(金昌順)



소련 외교(外交)의 노출(露出)된 특징(特徵)

호루쇼프(Khrushchev) 시대의 특징은 최근에 이르러 거의 구체적으로 노출되었다. 그것은 미(美)·소(蘇) 일대일(一對一)주의·동서동수제(東西同數制)·동·서·중립(中立) 삼두제(三頭制)를 강박(強迫)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미·소 일대일주의는 금년 1월 20일 호루쇼프가 케네디 대통령 앞으로 미·소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축전(祝電)을 보냄으로서 2월 22일의 케네디 회환(回翰), 이에 대한 미·소 수뇌회담(首腦會談) 개최(開催)를 희망(希望)하는 호루쇼프의 친서(親書)가 (5월 16일) 교환됨으로서 케네디·호루쇼프 회담을 (비엔나) 실현시킨 것을 말함이다.

비엔나 회담이 그 개체(個體)로서는 상호 의견 교환의 목적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계문제의 주도권은 미소(美蘇) 양국에 있다는 정치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려는 호루쇼프의 의욕은 경시(輕視)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소련의 강대국 의식을 시위(示威)하는 기회를 만들며 서방(西方) 동맹의 단결을 약체화(弱體化)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미·소 일대일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마도 호루쇼프 시대의 구체적인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동서(東西) 동수제주의(同數制主義)는 군축위원회(軍縮委員會) 조직에서 그 정체가 노출되었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UN 안보리 11개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UN 군축위원회와 그 밑에 설치된 미(美)·영(英)·불(佛)·소·가(加) 5개국 군축소위(軍縮小委)에 있어서 소련은 11대1, 4대1의 고립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는 비애와 불만을 정면으로 투덜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축위원회의 동서 동수제를 부단히 고집하여 1959년 제네바 외상회의(外上會議)에서 동서 각각 5개국으로 구성하는 10개국 군축위를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소 일대일주의를 동서(東西) 일대일주의—즉 동서 동수제주의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두 개의 체계적 세계를 동등한 실력적 위치에 올려놓자는 것이겠다.

그 다음 호루쇼프 시대의 특징으로서 삼두제(三頭制)의 등장은 작년 제15차 UN 총회 전반회기(前半會期)에서 ‘후’ 자신이 강요한 UN 사무총장제(事務總長制) 폐지와 동·서·중립국을 대표하는 삼두제 운영의 집단 집행기관제 상상을 통하여 노출된 것이다.

것처럼 점원들이 굶질거리는데 여기서는 사는 고객이 굶질거리라는 판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업이란 모두가 배급기구(配給機構)에 속해 있는 것이고 보니 주인이나 점원이 물건을 공짜로 주는 양 뽐내는 것이다. 그들은 손님에 대해 꾸중을 하는가 하면 몇 십 분이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는 문득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때 담배 배급을 타기 위해 굶질거리던 기억이 떠올라 진저리가 났었다. 「붉은 광장(廣場)의 암(闇) 달려장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옆의 거리는 사람들의 내왕이 가장 많은 변화한 거리였다. 이 거리의 메트로폴 부근에서 우리 일행은 달려 장수를 만났다. 달려 암상인(闇商人)이었다. 우리는 넘쳐나는 행인들 사이에 끼어 거닐고 있었는데 내 옆에 바짝 다가붙어 따라오던 사나이가 나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더니 어디를 가느냐고 말했다. 우리 일행은 마침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은행에 가는 길이었기에 사실대로 말했다니 그는 그럼 자기가 은행을 안내해 주겠노라고 앞장을 섰다. 그러자 우리 일행 중에서 신문기자인 이마이(今井) 군이 그와 무엇을 소곤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사나이는 현금화한 우리 달러를 사겠다는 것이었다. 공정(公定)은 일 미불(美弗) 당 10루블이지만 여행용 수표 같으면 15루블, 현찰 같으면 20루블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마이(今井) 군은 거절해 버렸는데 모스크바에 다닌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말에 의하면 달러 암거래인이 상당히 있고 실 시세는 1불 30루블이라고 하였다. 공정의 3배로 암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이래서 소련에도 달러 장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는 도둑놈도 많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혼잡한 거리에서

나의 직업(職業)과 생활(生活)

나는 신문기자를 직업으로 택한 데 대하여 예나 지금이나 불만은 없다. 이 직업으로 해서 무슨 큰 명성을 떨쳤다가거나 또는 경제적인 혜택을 입었다는 것도 없다.

그날그날 살아가기에 바쁜 극히 평범한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신문기자라는 직업에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때가 많다. 매일 그때그때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다루어 표제를 붙이고 여러 가지 기사를 적당히 지면에 배치해서 하나의 활자화(活字化)한 신문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문이 사회에 혹은 크고 혹은 적게 각양각색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반사(反射)되어 나에게 알려질 때 그 직책의 무거움을 새삼스레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와 더불어 신문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위력도 또한 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신문사를 준(準) 권력기관으로 보는 일이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란 당연한 일이며 그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신문인들에게 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관점을 달리 하고 있다. 최근 경향(京鄕) 각지에서 공갈기자(恐嚇記者)나 험박기자(脅迫記者)니 하여 검거되어 가지고는 군법 재판에서 호되게 경을 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오로지 그들—사이비 기자들은 기자라는 직업에 무슨 특권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며 사회는 사회대로 기자들을 두려워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신문기자들에게 신분증 혹은 기자증이란 것이 있는 외에 출입증, 비상통감(非常通鑑), 극장통감(劇場通鑑), 철도(鐵道) 우대승차권, 전차(電車) 우대승차권, 버스 우대승차권, 야간통행증 등 무슨 증 무는 권한하는 따위의 수많은 패스가 발급되고 기자들은 이것을 병풍처럼 접어가지고 다니면서 취재나 공무 이외에 남용하는 일이 있는 듯하다. 나도 이러한 패스권을 지니고 다닌 일이 있었다. 전차나 버스를 공짜로 타고 들어가고 싶은 극장에 마음대로 들어가 구경을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신분증과 시민증만을 수첩 사이에 끼여가지고 다닌 지 벌써 여러 해째 된다. 나에게 무슨 특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나라고 해서 전차나 버스를 공짜로 타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전차 통근권을 사 가지고 승차할 때마다 한 장씩 떼어 주고 있다. 영화 구경이 하고 싶으면 주머니의 용돈 유무부터 따진다. 평범하고 어수룩한 시민이 되어 살아보면 또 그것대로 맛이 있고 만사가 속 편하다. 살아갈 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바에야 무엇을 더 생각하라…….

김창진(金昌眞)·조선일보(朝鮮日報) 편집기자(編輯記者)

이 문제에 대하여 ‘후’는 UN 창립 후 15년간에 국제정세는 많이 변천하여 이제는 동·서·중립 등 3개의 기본국가군(基本國家群)으로 세계가 편성되어 있으니만치 각기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구성해야만 희생을 당하는 자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콩고 문제를 가지고 일패도지(一敗塗地)에 빠진 소련이 함마숄드 UN 사무총장을 추방하기 위한 모략성(謀略性)도 없이 않는 터이며 또 중립국가군(中立國家群)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정말 그를 대표할 수 있는나의 구체적 자격 문제에 들어가면 간단히 낙착(落着)을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방측(西方側)만이 아니라 중립국(中立國)들도 ‘후’의 그러한 강요에 극히 냉담한 태도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후’는 삼두제주의(三頭制主義)를 조금도 포기함이 없이 국제기구의 모든 조직에 있어서 삼두제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그 실례(實例)로는 금년 3월 21일 3개월 만에 재개된 핵실험 정지 미영소(美英蘇) 3개국 회담에서 관리기구 총관리관 1인제를 동·서·중립국가군을 대표하는 3인제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 대표 짜라트킨은 이러한 주장을 전개함에 있어서 UN 사무총장 1인제의 폐단을 다시 꼬집어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는 강변(強辯)을 놓(弄)하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핵실험 정지 관리기구 문제에 있어서 핵 총관리관 1인제에 원칙적(原則的)으로 동의를 표시하여 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 태도를 버리고 3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후’의 삼두제주의를 모든 국제기구와 집행기관 조직(組織)에 적용하지는 것인가 보다.

이와 아울러 소련의 거부권 외교도 살펴야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미 스탈린 시대부터 소련은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남용하여 왔으며

면도칼로 가발을 깎힌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자동차의 백미러도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이 백미러는 그것이 무엇 그리 신기한 것인지는 몰라도 소련의 젊은 남녀들이 곧잘 모여들어 미러를 들여다보고는 온갖 얼굴모양을 지어보고 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니 결국 이 백미러는 소련 영내(領內)에서 분실당하고 말았는데 그들에게는 대단히 진귀한 신기(神器)나 되는 것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재류 일본인(在留日本人)의 말에 의하면 호텔 하녀들도 곧잘 여행자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현금을 고스란히 도둑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본의 이른바 소련 찬미파(讚美派) 사람들에게서 듣기에는 소련에는 도둑이 없고 거리에 떨어진 물건은 집어가는 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선전(宣傳)과는 동떨어진 사회(社會)

끝으로 꼭 한 가지 적어두어야 할 것은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정치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은 이 나라에서는 지금 같아서는 꿈같은 이야기라는 점(點)이다. 소련 공산정권은 이것을 강조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정은 아주 딴전으로 퍼져 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소련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곧 잘 알 수 있다. 거의 똑같은 대답이 관에 박은 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문이나 라디오의 그것과 똑같은 말을 서민들로부터 듣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련에서 공산당이 선전하는 ‘정치가가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가 되기에는 언제의 일일지 예상도 나에게서는 무리한 주문임이 틀림없다.

(외지(外誌)에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거부권은 UN 헌장(憲章)의 힘과 영지(英知)”라고 말하여 왔다. 그런데 ‘후’ 시대에 와서 소련은 거부권의 행사를 모든 국제기구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즉 그로미코(소련 외상)는 라오스 국제감시위(國際監視委)의 운영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니, 인도(印度)·폴란드·캐나다 삼국으로 구성된 동(同) 감시위(監視委)에 대하여 순수한 수속(手續)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원일치제(全員一致制)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다수결제(多數決制)를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말함이다.

라오스 3개국 감시위는 1954년 7월 구성 이래로 다수결제를 취하여 왔던 것이며 1958년 7월 라오스 정부의 감시위 철수 요청을 폴란드 반대, 인도·캐나다 찬성으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평터화이(彭德懷)를 숙청(肅清)

지금 중공(中共) 전역에서는 ‘평터화이(彭德懷)의 육장피(六張皮)를 벗긴다는 사상 투쟁이 맹렬히 전개되고 있다. 평(彭)은 중공의 명장(名將)으로서 십원사(十元帥) 중 1인이며 전(前) 국방부장 겸 국무원(國務院) 부총리, 군사위원회 부주석(副主席), 중공당(中共黨) 중앙위원 동(同) 정치국원(政治局員)이었으며 한국전(韓國戰)에서는 중앙군 총사령관이였다.

평(彭)은 그가 그러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14세 때 출가하여 노동자로 고용되었다가 18세 때 당생지군(唐生知軍)에 입대, 1928년 7월 평장병란(平江兵亂)을 일으켜 노동홍군(勞農紅軍) 제5군을 조직하여 동년 12월 정강산(井崗山)에 이르러 주더(朱德)·마오쩌둥(毛澤東)과 합류 중공의 원훈(元勳)이었다.

그랬던 평(彭)이 금년 63세의 몸으로 숙청을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공산당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평(彭)은 왜 숙청되었나?

마오쩌둥의 삼면홍기(三面紅旗)—총노선(總路線), 대약진(大躍進), 인민공사(人民公社)는 마오(毛)의 의도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다. 특히 인민공사에 대한 중공농민(中共農民)의 불만은 중대한 정치문제로 되고 있었다.

후난성(湖南省) 상탄(湘潭)에 고향을 두고 있는 농민의 자제인 평(彭)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실지(實地)로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로 돌아와서 마오쩌둥에게 솔직히 건의하였다. 그 건의 가운데는 인민공사의 운영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또 그 제도는 중국 농민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주장이 들어있었다.

평(彭)의 그러한 건의를 접수하고 난 마오쩌둥은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하였을 것이다. 중공군 내부에서는 거의 군신(軍神)이다시피 존경을 받아 온 평(彭)이 이토록 마오(毛) 노선에 반대한다는 것은 마오(毛) 독재의 유지를 위하여 크게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평터화이를 단장(團長)으로 하는 대표단을 동유럽으로 파견해 놓고 정저우(鄭州)와 우한(武漢)에서 중공당 정치국회의(政治局會議)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평터화이가 우경이탈분자(右傾離脫分子)임을 지적하고 그가 반모집단(反毛集團)의 수령(首領)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규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우익반동분자(右翼反動分子)를 시급히 숙청할 것과 중공간부(中共幹部)의 15%를 숙청할 것을 결의하고 중공당 제8차 전당대회(全黨大會)에서 이것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동유럽 파견 여행을 하고 있었던 평(彭)은 돌아오는 즉시로 감금되고 말았던 것이다. 평(彭)은 마오쩌둥의 조호이산(調虎離山) 계(計)에 빠졌던 것이다.

이것은 흐루쇼프가 주코프 원사(元帥)를 숙청한 것과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까지 흡사한 바가 있다. 소련의 군신(軍神)이라고까지 용명(勇名)을 날렸던 주코프 원사가 ‘후’에게 마지막까지 이용당하다가 숙청되기는 역시 주코프 원사를 그대로 뒀다가는 자기 독재 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후’는 주코프를 유고슬라비아로 여행을 떠나게 한 후 그 틈을 타서 주코프 원사의 공직을 박탈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즉시로 그는 감금되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 중공 전역에서 맹렬히 전개되고 있는 ‘평터화이의 육장피(六張皮)를 벗기라’는 사상 투쟁이란 어떠한 것인가?

평(彭)의 여섯 개 걸가죽 가운데 그 첫째 것은 ‘평장 의거(平江義舉)’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되려는 병란(兵亂)이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한 왜곡을 꾸미는 데 있어서 평터화이의 이름마저 고쳐놓고 있으니 ‘더화이(德懷)가 아니라 ‘더화(得華)’라는 것이다. ‘더화’라는 뜻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제 손아귀에 넣기 위함이라는 것으로서 평장의(平江義)는 평(彭)의 혁명정신에서가 아니라 나라를 타고 앉으려는 개인 영웅주의였다는 것이다.

평(彭)의 두 번째 걸가죽은 평이 육십 평생의 군인생활을 통하여 한 번도 공을 세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은 마오쩌둥의 지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천하무적의 장군 행세를 하여왔다는 것이다. 평이 정말 그렇게 무공지인(無功之人)이라면 마오(毛)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원사(元帥)와 훈장을 주었던가.

평(彭)의 세 번째 걸가죽은 한국전(韓國戰)을 통해서 평이 김일성(金日成)을 깔보고 거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중공군에 대한 북한(北韓) 주민의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또 중공군의 간음행위(姦淫行爲)에 대하여 김일성은 한마디 항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은 마오의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평이 정말 그랬던 사람이라면 마오 자신이 그의 개신(凱旋)을 국제 영웅으로까지 절찬(絶讚)한 까닭은 무엇이며 또 ‘중공군과 북한 주민과의 친선관계가 형제지간’이라고까지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彭)의 네 번째 걸가죽은 1958년 8월에 금문도(金門島) 포격을 감행한 것은 평터화이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전혀 허위인 것이 그 당시 중공이 금문도에 대하여 야만적 포격을 감행한 것은 이라크 군사정변에 따르는 중동 위기를 가지고 흐루쇼프가 UN 안보리 테두리 안에서 동서 정상회담(東西頂上會談)을 열자는 아 이젠하위대통령의 제의에 응하게 되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오 자신이 흥책(兇策)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평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평(彭)의 다섯 번째 걸가죽은 전자(前者)의 금문도(金門島) 포격시에 국방부장 평터화이의 명의로 격일제(隔日制) 포격을 성명한 것은 평의 독단이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평(彭)의 독단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공산당의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평(彭)의 여섯 번째 걸가죽은 그가 사치, 부패, 황음(荒淫), 낭비, 수회(收賄)꾼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여자 관계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평(彭)은 14세 때 의매(義妹)와 결혼하기로 맹약하였다가 배우자가 조사(早死)하는 바람에 그 후 여학교 학생청년원과 결혼한 바 있지만 평장병란(平江兵亂)으로 이혼한 후로는 20여 년 동안 독신생활을 하여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彭)에게 여인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도일처(到一處) 적일처(摘一處)의 황음(荒淫)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오 자신이 여자 갈아치우기를 딱 먹듯이 하여온 사실도 있거니와 공산당의 혁명가들이라는 자들 치고서 여자 관계가 깨끗한 자 몇이나 되는가.

<필자(筆者)·시사평론가(時事評論家)>

나의 직업(職業)과 생활(生活)

나를 기업가(企業家)로 보고 이러한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나 자신(自身)은 아직 기업가(企業家) 측에 한몫 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몇 배(倍) 몇 십 배(倍)의 대규모 시설(大規模施設)을 갖춘 더욱 왕성(旺盛)한 사업가(事業家)가 많은데 나 정도로 무슨 기업가(企業家) 측에 들겠는가.

그러나 내게 온 설문(說問)이니 나의 직업(職業)과 생활(生活)에 대해서 몇 마디 적어보겠다. 내가 영위(營爲)하고 있는 사업(事業)은 적으나마 국가사회(國家社會)의 발전(發展)과 민생안전(民生安全)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적은 사업(事業)이나마 운영(運營)을 내가 하는 데는 경쟁(競爭)이 심하다. 말하자면 사업(事業)도 하나의 전투(戰鬪)라고 할 것이다. 전투(戰鬪)란 적정(敵情)을 잘 파악(把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단(不斷)의 주의력(注意力)으로 앞으로의 전망 등을 포착해서 적절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선(萬船)의 대비책을 수립하고 가장 적당한 시기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간단하게 추린 나의 사업관이다.

이렇게 만전의 대책이 서면 나는 진두에서 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며 노력할 때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그 공격은 실패율이 적다.

이런 5·16 군사 혁명을 맞으니 나로서는 환영할 바가 많다. 우리가 내핍(耐乏) 생활을 하고 인간혁명을 해야 하며 나아가 구악의 일소(一掃)와 허영에 날뛰던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과감한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나의 사업관과 처세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하겠다. 나의 이상적인 생활 태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 국가의 명량화(明朗化)와 발전을 기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안다.

<김수근(金壽根)·대성연탄회사(大成煉炭會社) 사장>

★ 중(僧)과 건어(乾魚)
경흥국사(景興國師)는 신라 신문왕 때의 명승(名僧)이다. 하루는 말을 타고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 건어(乾魚)를 담은 광주리를 지고 가는 중을 만났다.

“너는 불제자(佛弟子)인 몸으로서 비린내 나는 것을 지고 있던 말이나?”
라고 한마디 꾸짖었다.

“흥! 두 다리 사이에 산 고기를 끼고 다니는 주제에 마른 고기를 진 사람을 책해?”
중의 이 한마디에 무색해진 경흥국사는 사람을 시켜 중의 뒤를 밟게 하였더니 문수사(文殊寺) 앞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고 중적을 감추었는데 광주리의 것은 건어(乾魚)가 아니라 소나무 껍질이었다는 것이다.
“대성(大聖)께서 나의 말땀을 경계하십니까?”

하고 그 후 평생 말땀에 오르지 않았다.

★ 마음속의 도적
세종조(世宗朝) 때 정승을 지낸 허조(許綽) 대감집에 어느 날 도적이 들어왔다. 이때 허 대감은 책상 앞에 부처처럼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적이 물건을 다 훔쳐간 뒤에야 다른 가족들이 잠을 깬다.
“대감께서 깨어 계시면서 도적질해 가는 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가족들은 이상히 여겨 이렇게 허 대감에게 물어보았다. 이 물음에 허 대감은
“그보다 더 큰 도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싸우는 판인데 어찌 바깥의 도적을 쫓을 겨를이 있느냐?”
라고 호통을 쳤다. 가족들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허 대감은 다시 말을 이어
“물욕(物慾)과 잡념(雜念)보다 더 큰 도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가족들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정신(精神) 혁명(革命)의 건설적(建設的) 과제(課題)

김형석(金亨錫)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수는 없다. 비록 세워본다 할지라도 그 파괴는 곧 찾아올 것이며 그 파괴의 피해는 집이 크면 클수록 더한 법이다.

정신적 기반-마음의 터전이 없는 곳에 정치 경제적인 건설을 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곤란하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나 그것을 지탱하며 이끌어 나갈 능력이 생겨나지를 못하는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잘 보아 왔으며 지금도 또 보고 있는 중이다.

2차 대전 이후의 서독의 파괴상이란 설명을 붙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한 민족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망해 갈 수 있으랴? 고 생각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전통에 의한 정신적 기반과 마음의 터전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터전 위에는 무엇이나 건설하는 대로 영구한 것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상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언제나 가능한 법이다. 아무리 원조를 해 주고 우방들이 협조를 한다 해도 정신의 위치, 마음의 기반이 자리 잡히지 못한 민족은 밑 뚫어진 독 같아서 아무것도 남겨지지를 못한다. 오히려 무능과 부패가 조장되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건설 마음의 개혁은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귀중한 민족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의 혁신이 없이 정치 사회의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뿌리와 줄기를 가꿈이 없이 열매를 찾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한 민족의 전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며 어떤 국가가 변함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二

그렇다고 우리는 정신의 혁명 마음의 개혁이 아무런 사회적 조건 역사적 상황과도 관계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수학문제가 풀리는 것 같이 논리학의 명제가 구성되는 모습으로 정신과 마음의 혁신이 난관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마음의 혁명 정신의 개혁이라면 그것은 오늘과 같은 난관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이상 무능력한 관념에 지나지 못한다. 설교를 듣고 한번 느껴보며 훈화를 받은 뒤 결심했다 사라지는 마음의 안일한 자기만족에 지나지를 못한다.

사상은 현실과 더불어 있으며 이념은 역사 속에 자리 잡으며 주장은 항상 첫 발자국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이상주의가 아니며 역사적인 건설은 학자들의 이론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정신적 개혁 마음의 터전을 확립시킨다는 일도 그저 교양, 훈화, 선전, 설득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정신적 순화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다시 말하면 생활의 안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한도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은 정신과 마음의 건설을 위하여서도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빈궁은 예절을 잃게 만든다는 교훈은 대다수의 사항들에게는 진리인 것이다. 굶고 있는 열 사람에게 백의 설교보다는 먹을 것을 준 뒤에 마음의 방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들이 정신과 마음의 건설을 높이 기대하면서도 현실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건을 무시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한 정치, 유능한 사회개혁의 뜻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속히 실업자의 문제 최소한도의 경제생활을 위한 정책과 시정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건전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며, 건강한 육체에 씩씩한 마음이 깃드는 것같이 정신의 혁신은 사회의 생활안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三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개선과 더불어 정신의 재무장을 위하여서도 하나의 뚜렷한 신념, 변함이 없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소극적인 태도와 지도성을 버리고 항상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방향과 지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백을 알려 주기보다도 해야 할 것을 하나라도 지시해주는 것이 발전과 향상의 원동력이 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애들에게 이것도 하지 말며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나쁘니까 해서는 안 되며 그것도 저지르게 되면 벌을 받는다고 주의시키는 것 같아서 효과가 적을 뿐더러 마침내는 반감과 불평을 사게 되며 심지어는 그 애들의 성격과 장래성, 유능한 발전을 저지시켜 버리는 결과가 된다.

한창 자라고 이제 뜻을 얻으려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이것도 너희들의 할 일, 저것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시해 주어야 한다. 하나의 선을 보여주면 열의 악을 방지할 수 있으나 열의 악만을 보여주면 하나의 선도 감행하지를 못하게 된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권고가 반드시 앞서야만 한다. 사람이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범되지 않으며 선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악과 사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四

그리고 사회 윤리를 바로 잡으며 퇴락되어 가는 정신질서를 재건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정신적 태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윤리와 질서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것과 타율적인 것으로 구별해 본다.

선을 건설하며 참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내 마음, 내 양심으로부터의 길도 있으나 또 일반 사회의 질서, 대중의 건전한 정신적 분위기가 조성됨이 없이는 곤란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오래전에 필자는 어떤 동양 사람의 여행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북쪽 유럽에 여행을 갔던 사람이 손목시계를 잃었다. 분격찬 그는 반드시 불량배에게 소매치기를 맞았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에서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조사했던 결과 이 여행객의 시계는 정거장 세수틀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정거장에 내려 세수를 하기 위해 풀어 놓았던 시계를 도로 찾은 것이다.

만일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윤리가 향상된 나라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침을 뱉기에도 조심스러워질 것이며 휴지를 내던지지 못하는 물론 누구를 속인다거나 부정을 저지를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내 교양이 풍부해졌다기보다는 노력과 수고 이전에 그 사회,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떤 도덕과 사회질서를 요청해 온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러한 사회에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노력함이 없이 스스로의 마음과 생활 질서는 자리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반대도 성립된다. 이러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수준이 낮고 도의심이 땅에 떨어진 민족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타인을 의심하며 경계하는가 하면 자기만의 높은 마음의 위치를 지켜나갈 필요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 상태 사회의 환경을 개인들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율적이기 보다는 타율적인 것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어린애를 비롯한 연소자들이나 무식하고 교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중들을 위하여서는 항상 타율적이며 전체적인 교육과 생활에서 선과 건설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양심으로부터의 판단, 내적인 자아 신설이란 너무나 멀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여줌으로써, 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줌으로써 사회질서와 높은 정신 교양을 얻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지식수준이 높으며 교양을 체득하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질서의 모범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라도 자율적인 도의심, 자율적인 발전성을 항상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의 자율성이 없는 민족은 그러기에 위험하며 지성인들이 사회질서의 앞장에 서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 때에도 참된 건설, 영구한 발전은 오지를 않는다.

우리들이 민족도의와 사회질서를 위한 마음의 타율성과 자율성을 구별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을 생각하며 언제든 주변사회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보는 민족이 어찌 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높은 문화와 생활가치를 창조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五.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데도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를 비롯한 직접 사회에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율적인 면을 통하여 민족도의와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의 제재가 그 때문에 필요하며 정치적인 교도와 대중에의 편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종교가 교육자 일반 지성적인 지도자들은 자율적인 즉 양심과 자발적인 책임감에서 민족도의를 높이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사람들은 사회도덕의 퇴락, 민족정기의 부패를 정치적인 불찰, 위정자들의 무능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종교인 교육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잘못 판단한 결과이다. 정신적인 과오와 부진은 정신적 지도자의 책임, 특히 종교계 교육계의 무성기와 무능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때로는 자기 집에 깡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무능 사회의 무질서를 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내 대문안에 깡패가 없으면 우리 민족과 조국에 깡패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윤리 민족의 도덕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두 가지 면의 노력과 정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치 법률 등에 의한 타율성이며 종교 교육에 따르는 자율적인 노력이다. 모든 국민이 참된 종교,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길을 발견하며, 사회와 환경에서 항상 선하고 참된 것만을 볼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꾸준한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국군은 참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군문(軍門)에서 보내게 된다. 이 기간에 이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며 올바른 정신으로 이끌어 준다면 그들이야말로 사회 민족의 기둥이 될 수도 있는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문을 거쳐 사회에 나왔을 때 보다 좋은 청년과 뜻있는 정열을 가지고 나오는가? 또는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추잡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는가는 정히 민족의 앞날과 조국의 영원한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군 내부의 정신 도의교육과 지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진(寫眞)>

5·16 후의 사단(寫壇)

최계복(崔季福)

예술의 한 분야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단(寫壇)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

그렇지 않을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 실정이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양출(釀出)하게 된 연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장 근본되는 것 한 가지를 여기 들어보자. "사진이 예술 작품인가?"

이 말에 대해서 사진작가의 위치에서와 또 다른 예술 분야 인사의 위치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사진작가에게 사진이 예술인가 하고 묻는다면 몰상식한 질문이라고 반박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데서일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우리들 사진작가는 이 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의 안이한 작위(作爲)를 평해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六.

그러나 이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민 각자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철하고도 영구성 있는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 나갈 수 없으며 방향을 못 잡은 사람은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족과 조국은 그 자체의 어떤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사회적 참여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깨달음이 없이 그저 나가고 전진하라는 것은 마치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전진하라는 것 같아서 위험하고도 무의미해지기 쉽다.

왜 반공을 해야 하며, 무엇을 가지고 반공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가? 를 밝혀주어야 한다. 어찌서 우리들의 경제체계는 이렇게 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신념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었을 때 언제나 참으며 항상 협조하게 마련인 것이다.

과거의 부패 무능을 시정하는 일면 새로운 이념과 목적 그리고 우리들의 뜻하는 바를 찾아 명시하여 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뜻과 이념이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는 애국심이며, 다른 하나는 도의심이다. 기관차가 없이는 객차 화물차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같이 철저한 애국심, 강한 도의심을 가지며 또 가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모든 현실을 개혁 혁신시켜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우리들의 전 인격을 애국심과 결부시켜 조국을 통하여 인류에 봉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의 온갖 정열과 뜻을 굳건하고도 영원한 모럴(Moral)에 두어 인간이면 누구나 떳떳이 걸어야 할 길을 개척해 간다는 것, 이것은 만인의 원칙인 동시에 우리들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조국을 위해 있고 일해야 하며 나의 삶의 값과 의의는 도덕적인 완성에 이바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출발점이 마침내는 민족역사를 바로 잡으며 우리들의 생활을 영원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된다.

물론 하루 이들의 일도 아니며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우리들 모두가 천릿길을 위한 첫 발자국을 과감하게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이다.

<필자(筆者) · 연세대(延世大) 교수(教授)>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진지한 제작 의욕에서 진실과 대결하여 우수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작가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하나의 여기(餘技) 정도로 작화(作畵)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사진인(寫眞人)에 대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사진작가의 위치에서 이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타 예술 분야의 인사일 경우는 적어도 예술에 투신(投身)한다는 순수한 의식에서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겠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성(後進性)의 탈피란 명제(命題)에서 볼 때 선의의 조언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우리의 사단(寫壇)은 그런대로 적은 꽃을 피게 하여 이제는 세계 사단에 도전할 정도로 의욕면에서는 진지성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실정을 살펴볼 때는 그러한 사실과는 달리 좀 더 활발성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해방 직후에서 6·25 이어 수복(收復) 이렇게 민족이 급변하는 정세 밑에서 사단은 놀라우리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각 지방에 사진 연구단체가 조직되고 이어 편으로는 각종의 사진전 또는 연구발표전이 있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도 그것이 그다지 오실정을 보면 겨우 지난날의 명맥을 이을 정도 그러나 이렇게 명맥을 이을 정도이긴 했으나 수법에서 전진한 제작 태도가 엿보이기도 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 이러한 관점에서 수년 전부터 사단의 발전을



전국적인 연합체가 구성되고 (개인적으로) 한 계속 개척되어 그동안 신인의 배출이 현저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작금(昨今) 양년(兩年)의 의 작품전이 경향(京鄕)에서 있었을 뿐이었다. 나 그 질적 면(의식면)을 볼 때는 오히려 과거하여 이러한 작가들에게 좀 더 기회를 허용한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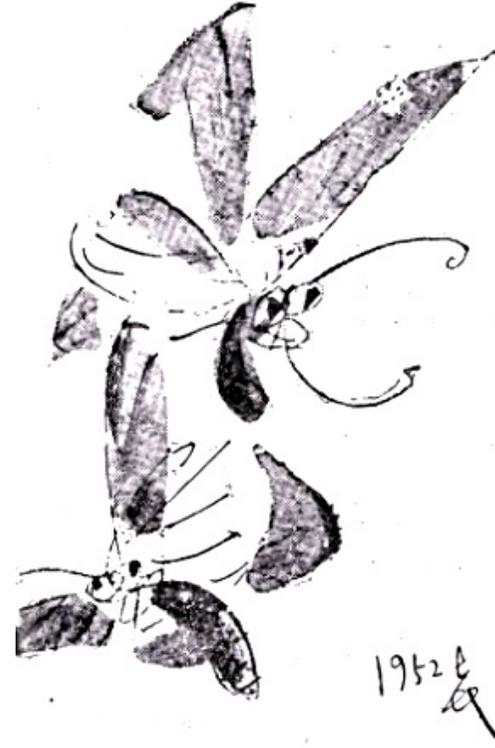
이것을 뒷받침하는 듯 작금년도에 있어서는 해외 사진 콘테스트에 우리나라 작가의 출품이 현저히 눈에 띄게 되었으며 개중에는 질적으로 높이 평가된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출품점 수에 비교해 볼 때 입상작품의 수는 그다지 좋지 않은 비율이었으니 이 점은 좀더 정선(精選)이 필요했을 것이며 한편 해외 출품작 중에는 우리 겨레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치는 것과 필요 이상의 비참상(悲慘狀)을 노출한 작품이 어떠한 악취미에 영합될 우려가 있다는 점 작가 자신의 양식에 맡길 문제이나 우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지난날의 숙제 또는 건전치 못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5·16 군사 혁명으로 모든 악의 독소 제거에 협력하는 한편 작가로서 새로운 국면 파악에 매진해야 될 것을 말해두고 싶다.

(필자(筆者) · 한국 사진작가단장(韓國寫眞作家團))

채규철(蔡奎哲)



1

쭉대같이 자란 원한이었다.
 강물처럼 흐르는 설움이었다.
 건너도 또 넘어도 헤어날 길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였다.

굶주린 창자와 혈벗은 발가슴이 몸이
 오히려 민망해 외면하였고
 태없이 말없이 흐르는 세월이
 짜장 안타까워 안간힘 하였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이 숨겨 갔고
 젊으나 젊은 녀들이 꽃잎처럼 져갔건만

눈 먼 독재의 구두쇠들은 아랑곳없었고
 썩은 권력의 꼬나풀들은
 그저 독사 같이 냉정했었다.

2

아아 그러던 것이
 그렇듯 매정하던 권세의 독종들이
 아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맥없이 자취 없이 무너져가고 말았다.

그 어느 날 이른 새벽이라기엔
 너무나 기억에 생생한 5·16 어스름 창공에
 한방 거룩한 군호가 울렸다.
 세기를 올리는 우람찬 진군의 나팔이었다.

3

언제나 그 언제나
 새로 눈부신 역사를 엮어내고
 어둠에서 광명을 꿰뚫고 나설 땐
 항상 죽음의 광장에서 앞장서
 몸부림치는 젊은 간성들—.

아아 이제 정녕 조국은 겨레와 더불어
 마지막 외칠 산마루에 서있다.
 마지막 크게 솟구칠 운명의 순간에 놓였다.
 5·16 혁명의 성스런 이름아래…….

새 세대의 숨결을 막던 반역아에의
 장쾌한 장송곡이었고
 짓눌려 살던 어진 겨레에의
 복된 축포였다 새로 찾은 삶의 예포였다.

이제 썩고 병든 무리는 살살이 물러가고
 새 세기를 창조하는 젊은 기수들이 나섰다.
 낡고 헝클어진 질서는 몽땅 깨어지고
 밝고 맑은 저 기틀이 바로 잡혔다.

오오 저 회오리치는 환호를 듣거라.
 오오 저 메아리치는 깃발의 행렬을 보아라.

산은 두 동강 갈라져 들판이 되고
 독은 장성으로 쌓여 논밭이 된다.

메말랐던 인정도 되살아나고
 어지빠르고 시산하던 풀기도 말끔히 씻기어
 자비로운 어머니의 젖줄기인 양
 사뭇 흐뭇한 옛 풍습이 풍기기만 한다.

10,000시간 무사고(無事故) 비행 기록을 수립한 103대대 파일럿들

참석자

- 김만용 중령 (대대장)
- 탁영호 소령 (비행안전장교)
- 김명순 소령 (정비장교)
- 김종남 대위 (조종사)
- 김석중 대위 (조종사)
- 사회(司會) 김열회 소위 (정훈장교)
- 6월 20일 10전비(戰飛) 103대대 상황실에서-

비행안전기를 말한다



정훈관(政訓官) 이번 103대대 여러분들이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올려 우리 공군의 비행사상(飛行史上)에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 1년 8개월 동안 비행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고심하고 노력하였는가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비행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지침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김열회 소위에게 맡기겠습니다.



사회(司會)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대장님께서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한 데 대한 감상이 어떠하신지요?

김만용 기쁩니다. 앞으로 이 전통을 깨뜨리지 않기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적도 비결도 없다

사회(司會) 103대대에서는 아마도



김만용 대대장

비행사고 방지에 대한 모종의 비결이라도 가지신 모양입니다……(웃음)
탁영호 비결요? 있지요. 오직 합심해서 자기가 맡은 책무를 다하는 비결을 가졌죠. 비행 안전에 있어서 우연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비결이란 있을 수 없어요.

김만용 그래요.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지키고 각자 책임을 하는 데에 안전이 있지요.

김명순 우리 정비사들은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저 틈만 있으면 점검에 시간을 바칩니다.

탁영호 대대에서는 제1차 목표를 10,00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정비사들은 이 기간 중 항공기 가동률을 100%로 계속 유지시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요. 여기에 숨은 여러 가지 애로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조종사들은 고된 훈련 중에도 매일 평균 한 시간씩의 각종 교육을 받구요.



사회(司會) 정비사, 관제사, 기상사(氣象士)들이 비행 안전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요?

김석중 비행 안전이란 결코 조종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 조건은 비행 안전에 최대 요건이기 때문에 기상사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관제사들은 전술 공군의 제1사명인 제공권 획득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뒷받침은 비행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의 역할 크다

사회(司會) 비행 안전에 있어서의 정비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김명순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데 기체에 어떤 고장이 있는가, 그리고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빨리 발견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탁영호 비행 안전을 인체에 비한다면 조종사가 머리가 되고 정비사는 사지(四肢)가 되고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정비사들은 비행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司會) 어떻습니까 김 대위님, 관제사와 기상사들도 비행 안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종남 그럼요. 비행 안전에 있어서 기상(氣象)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예요. 지금까지의 사고 통계로 보아 기상 조건이 조종사의 귀중한 생명과 항공기를 뺀다면 일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기상 장교가 항로상에서 여러 가지 기상 자료를 기기로 관측해서 조종사들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제사들은 정확한 레이더 장치에 의해서 우리 항공기에 접근해 오는 적기(敵機)가 있는 데까지 관제유도하고 임무를 끝마친 항공기를 안전하게 기지까지 유도해서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사나 관제사가 비행 안전에 끼치는 영향력은 여간 큰 것이 아니죠.

고공비행과 공항 군의관

사회(司會) 비행 안전을 위해서 항공군의관 또는 그 밖에 다른 분야로부터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까?
김석중 물론이죠. 조종사가 안전 비행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군은 항시 고공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을 잘 보살피 주지요.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의 협력 없이는 안전 비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司會) 고공비행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동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G에 걸렸을 때는 혈액이 어떻게 변동하며 산소가 적은 공기에서 뇌 조직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김석중 10,000피트 이상의 상공에서는 산소량이 적고 기압과 기온이 낮아지므로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사회(司會) 아까 김 대위님께서 관제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종남 간단히 말하면 사고의 미연 방지와 공중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관제(管制)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회(司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종남 관제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휘탑에서는 비행기 이륙과 착륙을 지시하고 G·C·A에서는 돌발적인 사태, 다시 말하면 갑자기 기상상태가 변화한다든가 통신기가 고장났을 때 레이더를 가지고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비행기를 유도하는 일입니다.

사회(司會) 그러니까 조종사는 관제사의 말을 믿고 들어야겠군요.

김만용 물론~. 조종사들은 관제사들을 자기의 귀와 눈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죠.

관제사와 비행 안전

사회(司會) 각 기지마다 관제사가 있는데 가령 수원(水原) 기지를 출발한 비행기가 대구(大邱)나 부산(釜山) 기지에 닿을 때까지 줄곧 같은 관제사의 지시를 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지의 관제사에 연락을 취하는지?

김중남 그건 이렇게 합니다. 어느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휘탑에서 ARTC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5,000피트 이상을 비행할 때에는 이곳에서 일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회(司會) 비행기가 공중에서 비상사태에 부딪혔을 경우, 가령 통신기의 고장이라든가 엔진이 꺼졌을 때, 또는 연료가 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김석중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하도록 하지요.

사회(司會) 가령 비행 중 통신기가 고장 났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도리가 없는데 이때에는 자유로 내릴 수 있나요?

김중남 안 됩니다. 그땐 왼쪽으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선회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비상사태에 있음을 지상에서 알게 됩니다. 그 때에는 바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가서 유도해서 착륙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사회(司會) 어디 아슬아슬한 경험담을 들려주시겠어요?

김석중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날 날씨가 좋았는데 미션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기상 상태가 변화해서 구름 속에 파묻혔구나 했습니다(웃음). 구름 속을 헤매면서도 마음을 침착하게 가다듬고 비행절차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새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뚫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지점과 비행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서 착륙했지요.

사회(司會) 정말 위기일발이었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번 103대대에서 탁 소령님이 전 공군의 탑건(Top Gun)으로 선정되었다는데…….



김만용 네, 지난해 무사고 비행기록을 올렸을 때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우리 탁 소령이 85%란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103대대에 이런 우수한 조종사를 두었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司會) 공중사격에는 유형에 따라 Radar, Manual Firing, Fix로 나눈다는데 탁 소령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요.

탁영호 작동상의 차이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Radar는 적기(敵機)와 우군기(友軍機)의 속도, 거리, 각도와 실탄 굴곡 등

<독서(讀書)>

5 · 16 후의 경향

안춘근(安春根)

 책은 청년들에게는 음식물이 되고, 노인들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유할 때는 장식이 되고 빈곤할 때는 위로가 된다. 집안에서는 즐거움이 되고, 밖에서는 또한 방해롭지 않다. 특히 밤이나, 여행할 때, 그리고 시골에서 다시없는 좋은 친구가 된다. -키케로

이것으로 우리는 독서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거니와, 확실히 독서는 우리들 정신의 영양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알렉산데르 대왕은 「나는 어버이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 그 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에게 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준 스승은 다름 아닌 저 만고(萬古)의 철인(哲人) 아리스토텔레스인 것이다. 알렉산데르는 다행하게도 위대한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면접(面接)할 수는 없어도,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알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고마움이다. 우리는 위인과 안면이 없어도 독서를 통해서 그들과 친숙해 질 수도 있고,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살아보지 못했어도, 그때의 정황을 꿰뚫어지게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지하 수천 척(尺)을 파헤치고 들여다보지 않고서도 독서를 통해서 그 속을 살살이 감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어떤 방면의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됬됨이 결정되어 진다고 보아도 잘못이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머슨은 그 사람이 남달리 훌륭한 것이 있거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가를 살펴보고 한 것은 적절한 말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의 귀함은 비단 우리 개개인에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독서계 일반의 경향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장래를 점치는 점괘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를 측량하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사회 내지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겠다.

무릇 사회 개량에 이바지하는 가장 주요한 것이 인간의 두뇌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두뇌를 양육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국민 일반의 독서의 잘잘못은 곧 국가 장래와 긴요한 연관이 있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한 독서에 대하여 현하(現下)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별견(瞥見)하고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무질서라는 한마디가 있을 뿐이다.

세계적인 통례라고는 할 수 있으나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연령으로 보아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학생층이고, 그 다음이 일반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4월 혁명 이후 사회의 불안, 그리고 경제 질서의 비정상적인 작용 때문에, 학생층은 독서할 정신적인 안정을 잃었고, 일반 지식층은 경제적인 불안으로 독서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몰심양면으로 독(讀)하고 서(書)할 수 있는 자세를 바로 차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서점에서의 여론을 대충 종합해 보면 고작해야 교과서류가 팔렸을 뿐, 그 밖의 책을 유별(類別)해서 그 이전과 같은 수량이 팔린 것은 아니나, 근사(近似)하게 나간 것이 있다면 잡지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사실로 독서를 하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뜻깊은 생활태도라고 한다고 해도, 엄밀히 독서의 동기를 캐어보면, 교양을 위하여거나, 전공을 위하여거나, 아니면 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겠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부조리한 세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독서의 동기를 충족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간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서는 독서하는 사람에 따라서 책의 선택이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나, 보통적으로 는 시대조류와 사회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혁명의 성과로 사회의 기풍이 건설해지고 국민 각자가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됬은 물론, 모든 직장에서 실력 본위(本位)로 등용하게 될 때, 독서의 경향은 차츰 달라질 것이 확연하다.

그 증좌(證左)로서 벌써 이때까지의 흥미 본위의 독서 경향에서 방향을 바꿔서 직업을 위한 입문서, 실용적인 책, 그리고 시사 문제를 옮겨 다룬 잡지를 읽는 한편, 교양을 위한 역사 및 위인전기 등의 책으로 전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다.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조사부장>

을 Sight에 전달시켜 자동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Manual은 거리와 실탄 굴곡을 수정해 주지 않는 것이 다른 겁니다. fix는 전연(全然) 자동 산출을 해 주지 않고 기관총 방향만 지시해주기 때문에 Radar 사격보다 명중률이 훨씬 낮으며 원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사격도 세계 수준

사회(司會) 이제까지 부분별로 보아서 세계 기록은 대략 몇%나 됩니까?

탁영호 글썽요. 정확한 기록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 공군에서는 Radar가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ual은 70% 정도로 기억합니다.

사회(司會) 그러면 우리 수준은 외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김만용 외국에 비해서 월등 우수합니다. 탁 소령만 하더라도 세계 기록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회(司會) 무사고 10,000시간을 돌파한 이 11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잊지 못할 추억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장님 얘기 들려 주세요.

김만용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지껏 무사고 10,000시간 계획을 세운 다음 3건의 사고를 낼 뻔 했지요. 그때마다 조종사들은 평소의 노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써 모두 무사했지만 정말 심전 감수는 조이 했습니다(웃음).

사회(司會) 지난 2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비행 안전에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행 안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용 별다른 비결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서로 협력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잘못을 발견할 때는 즉시 시정해 나아가는 것이 곧 비행 안전을 가져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司會) 앞으로의 비행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김만용 비행 안전과 병행해서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개인 전투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15,000시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탁영호 앞으로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조종사들에게 지상학술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司會) 정비사로서 비행 안전에 대해서…….

김명순 불시점검을 더 한층 강화할 생각입니다.

사회(司會)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관 이만 좌담회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귀중한 체험담이 앞으로 비행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락(娛樂)과 생활(生活)

조풍연(趙豐衍)



오락의 의의와 범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하는 일이다. 현재 사회에서는 누구나 근로할 의무와 권리를 가졌으며, 이것이 잘 조정되어 있는 사회는 건전하고 부유하며 명량하다. 반대로 죽도록 일하는 사람과 놀고만 지내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 사회는 불건전하다. 그런데 일을 좀 더 잘하고 일하는데 소모되는 정력을 여축(餘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가에 적당한 오락을 가져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여가의 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은 휴양·오락 운동·유희 등 여러 가지 뜻으로 나가는데 다음날 일을 잘하기 위하여 피곤한 몸을 푼다는 뜻이 있다.

‘일하기 위하여 잘 논다’는 뜻과 반대로 ‘놀이 위하여 일을 선다’는 것은 결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향락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향락주의는 몸을 버리고 금전을 낭비하며 남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레크리에이션은 자기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또는 경제력과 시간에도 적절한 배경을 하여서만 비로소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레크리에이션은 참으로 그 범위가 넓다. 이를테면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만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다르고, 시절에 따라 다르고, 취미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 하는 것, 팀을 짜 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있다. 또 직접 스포츠를 자신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하는 것을 관상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고요히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도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이다.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을 감상하는 것, 신선한 공기를 찾아 하이킹이나 낚시를 즐기는 것도 레크리에이션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도 레크리에이션이다. 트랙의 화초를 가다듬고 또는 목수 노릇을 하여 세상을 만드는 것 또는 우표 따위를 모으는 것도 모두 레크리에이션에 든다.

그리고 보면 자기의 직업적인 사무 외에, 어쨌든 마음과 몸 쉼이 즐거워지는 것은 모두 그 다음날 일에 보탬이 되고, 이것은 모두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映畫)>

방화(邦畫)의 오늘과 내일

이진희(李鎭熙)

근 40년의 연륜을 헤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영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그 성장과정도 결코 순탄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

영화예술이란 그 표현기술이 기계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과 같이 자연 발생적인 수공업적 기술 이어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항상 실험적 즉, 익스페리멘탈(experimental) 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빠른 세월이지만 사일런트(Silent) 시대에서부터 그 명맥을 이어 오늘날 컬러·시네마스코프(에 이르기까지 40년, 우리 국산영화는 크게 그 면목을 세우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절실하게 주어지는 무엇인가 깊고 두터운 인간 생활의 단면이 없다면 치더라도 우리는 먼저 이들 빈약한 영화의 성장을 저울로 재보기 전 그 영화를 낳는 영화계의 환경과 그 주변에 담을 쌓고 있는 국민, 국가의 대 영화예술관, 육성책(育成策), 보호책(保護策) 등 입지적 조건부터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후진적 제작과정을 먼저 못하고 있는 우리 영화가 요즘 아세아 지구, 또는 세계무대에 그 일각(一角)을 나타내고 있다는 현상을 결코 강 건너 불처럼 안이하고 단순한 사필귀정(事必歸正)적 관찰에서 그치기에는 그 이면이 너무나 흑독하고 처참한 것이 있는 것이다.

오락과 여유

오락에는 라디오와 같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종일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연장과 시설과 장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시설은 국가적으로 마련하거나 기업자가 마련하거나 또는 개인이 장만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용하자면 어쨌든 대가(代價)를 물게 된다. 우리가 영화를 구경하려면 우선 관람료에다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영화 관람에 바칠 만한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락은 어느 한 때 금전과 시간을 제공하면 목적이 달성되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야구 경기를 관람함에 있어서는 그 룰(Rule)을 몰라서는 뭐가 뭔지 몰라서 하나도 재미가 없다. 되도록이면 싸우는 두 팀의 성격과 기능,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선수 개인 개인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오락을 제대로 즐기자면 그 오락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서야만 뒀을 알 수 있다.

오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오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자꾸 딴 것도 즐기기가 좋아하며, 차츰 그 오락의 범위는 넓어 간다. 그러니까 오락은 연쇄반응(連鎖反應)을 일으켜 보다 더 많은 금전과 시간의 여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번져가는 오락 때문에 재정적으로 파탄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투기성을 띤 경마(競馬)나 도박성을 띤 마작(麻雀) 따위에 골몰하여 패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여행하는 데 재미를 들여 집까지 팔아가며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오락시설이나 국민 오락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은 그 나라의 부력(富力)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소득이 몹시 뒤떨어진 사회에서 덮어놓고 오락이 발달되거나 불건전한 오락이 유행하면 크나큰 재정과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 국민이 남의 나라 사람만큼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참아가면서 나라의 부력을 키우는 데 힘쓰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오락과 사고

사고가 인간 처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면 사고함에 있어서, 오락은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인가?

인간이 살고 처세하자면 사회의 모든 방면의 사람들과 늘 접촉하고, 사람과 사람의 화(和)를 잘 지킬 수 있다면 자기의 지보(地歩)를 확고하게 하고 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마련하고 따라서 생활의 안정을 구하게 된다.

이 처세에 있어서는 좋은 오락을 몸에 배어두는 것이 여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호(同好)의 취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오락을 하거나 또는 서로 가르쳐 주면 그만큼 피차에 정분이 두터워지는 것은 자연의 추세이다.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 나갈 기회는 차츰 많아진다. 이때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남과 더불어 즐겁게 놀고 또 풍부한 화제(話題)를 끌어내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그러므로 좋은 오락은 그 사람의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오락은 후진(後進)이나 동료들에게 권장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머리와 뼈가 말랑말랑할 때에 좋은 오락을 익히 두면, 나쁜 방면에 발을 들여놓을 겨를이 없게 된다. 국민 전체가 좋은 오락을 취미로 삼는 나라에는 국제적인 신임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락은 기존의 것을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상이나 남의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는 한편으로 우리의 창의로 오락거리를 생각해내 펴뜨리는 것은 의의가 더욱 깊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누가 하나 창안한 것이 세계에 퍼지기는 아주 용이한 일이다.

몇 해 전에 홀라후프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창안되어 삼시간에 지구 위를 휩쓸었다가 그 것이 위생상 나쁘다는 전문가의 말이 나와 또한 삼시간에 자취를 감춘 것은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 생생하다. 이 홀라후프는 우리 주변에도 한 때 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유도는 일본의 국기(國技)이지만 이것이 신체 단련에 주는 효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오는 제17회 세계 올림픽 대회에는 정식 경기 종목에 편입되었다.



지금 우리들은 방화(邦畫) 개봉관에서 아직도 10년, 20년 전과 하등 변화가 없는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는 창의성 있고 전위적인 한둘 프로를 발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듀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점차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도 우리에게 큰 기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거니와 지난번 마닐라에서의 영화제는 우리 작품 그 자체에서 수위를 저울질하기에 이르렀음을 상기할 때 외화(外畫)에 크게 위축을 느끼며 후진적 비굴에 엉겨주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만이라도 우리는 한국적 카테고리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현상의 하나로 접쳐두고도 남을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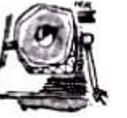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날 5·16 전 한국영화계가 당국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 고고히 그 터전을 지키며 고전분투하던 그 애처롭고 쓰라린 경험을 한 번 더 들추어 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소자본의 테두리 안에 방화의 생명이 연명을 해 온 지난날 당국은 마땅히 영화예술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방책 또는 육성책을 수립, 이를 과감히 실천에 옮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엔 아예 머리를 돌리고 실혹 한둘 국산영화 진흥책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이면 우선 언제나 그 이점이 되는 길 위에 장애물을 엮어 놓고 이권(利權) 운동이나

공군 장교들은 무엇을 어떻게 즐기고 있나?

<앙케이트>

취미와 오락 경향

여기에 소개하는 우리 공군 장교들의 취미 및 오락 경향은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걸친 <앙케이트>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다. 본 <앙케이트>는 500매를 9개 단대에 배포하였는데 307매(60%)가 회수되었고 대령 3명, 중령 58명, 소령 40(영관(領官)급 약 34%)명, 대위 83명, 중위 79명, 소위 34(위관(尉官)급 약 63%)명, 계급 불기입 8(약 3%)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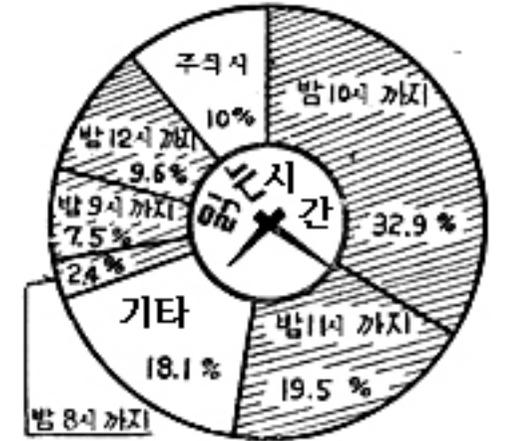


<앙케이트> 내용

◇독서는 ① 읽는 시간(밤, 주식(晝食) 시, 기타) ② 읽는 책(1정치 2경제 3철학 4법률 5문학 6과학 7군사 8외서) ③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의 면 ④ 많이 읽는 잡지 종류

◇음악은 ① 즐기는 음악(1재즈 2클래식 3경음악 4유행가) ② 즐기는 장소(1가정 2뮤직홀 3기타) ③ 듣는 매개물(1라디오 2전축 3축음기 4녹음기 5텔레비전)

◇영화는 ① 1개월간 관람 횟수 ② 국산영화(1현대물 2희극물 3사극물 4연애물) ③ 외국영화(1미극 2프랑스 3이탈리아 4서독 5영국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1현대물 2서부극 3전쟁물 4사극물 5음악물 6무용물) ◇기타에 있어서는 1당구 2바둑 3장기 4카메라 5스포츠 6등산 7소풍 8낚시 9라디오 등으로 구분하고 당구 바둑 장기 등은 급수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 앙케이트에 의한 경향은 물론 우리 공군장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전반적인 것이나 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못 된다 할 지라도 일단(一端)을 추리 상정하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서

◇읽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은 약 83%가 밤을 이용하고 있고, 약 10%가 주식(晝食)시간을, 나머지가 기타시간이다. 기타 시간에는 조조(早朝)가

<미술(美術)>

그 동향(動向)과 전망(展望)

박고석(朴古石)

한마디로 해서 최근 부쩍 늘은 소위 앙포르멜(informel)적 새로운 경향의 대두(擡頭)는 요즘의 우리 미술계의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그 의욕적이며 강행적인 발표전(發表展)의 왕성함과 아울러 일단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벽전(壁展)이니 60년 미술협회 등 아주 젊은층의 활동을 비롯하여 조선일보 주최인 초대작가전 등에서 볼 수 있는 소위 현대회화의 대두는 4·19 이래 더욱 더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국전(國展) 등의 온건파나 재야(在野) 및 중견들의 추상파, 표현파적 변형 등 다채다양이나 미술의 횡적(橫的) 부담(俯瞰圖)이 전면 목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구(新舊) 혼입(混立)인 우리나라 미술활동 위에 요즘 눈에 띄게 그 스타일과 방법이 강력한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 들고 나오는 앙포르멜적 모색이다.

자유에의 절규와 완전 해방감에의 열도(熱度)가 일체의 형식의 부정과 자료의 확대 및 원시(原始)에의 동경(憧憬) 등으로 빚어내는 소위 무정형(無定形) 회화의 성행은 울적하고 불안정한 젊은 세대들의 생리(生理)요, 취호(趣好)로서 일단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젊음의 특권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나 모색은 당연하리만치 의당(宜當)한 것이리라. 청(靑)·적(赤)·백(白)·흑(黑)·

우리나라는 훌륭한 민속 유물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오락물이 모두 저속하지 않고 대중적인 것이 많아서 이를 잘 다듬고 잘 소개하면 세계 인사들의 관심을 끌 것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씨름인데 씨름이 일본 씨름에 못지 않게 오묘한 기술이 깃들어 있건만 지방에 따라 가지각색이고 조금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규모가 짝이지 않고 게다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장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면 우선 국내의 젊은 힘들의 좋은 훈련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창극(唱劇)도 아까운 것의 하나다. 우리나라 창극이란 직업 창극인들이 흥행으로만 하기 때문에 갖가지 제약 받고 옹졸하게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 만약에 좀 더 넓은 대중의 세계로 창극이 번져 들어간다면 이것이 어찌 서구(西歐)의 오페라나 일본의 노(能)에 뒤지겠는가. 모든 것은 연구에 달려 있다.

군인과 오락

군인이야말로 근로 상태가 격렬한 터이므로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 이미 육상경기나 구기(球技) 따위는 군대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밖에도 군대 생활에서 능히 즐길 수 있는 오락은 당장 생각만 해도 허다하다.

그 중의 하나로 아마추어 연극을 들 수 있다. 군대의 생활이나, 훈련이나 작전은 모든 것이 팀워크에 생명을 둔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생명으로 아는 연극은 바로 군인들에게도 적절한 오락이 될 수 있다. 연극도 종류가 허다하여서 상당한 무대와 관객석과 경비를 소요하는 경우로부터 간단한 인형극 따위에 이르기까지 각층이 있다.

더군다나 현대전의 전락에는 후방 국민의 사기 양양, 계몽, 그리고 선무 등이 꽤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민간 직업인의 협조에 앞서 군인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크게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필자(筆者)·소년한국일보(少年韓國日報) 주간(主幹)>

(11면에서)

의 지도력이 강화되리라고 믿는다. 혁명을 수행하고 민주 국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요청되는 것은 ‘국민의 자각에 의한 협력이다. 국민이 자각을 있고 부패하였을 때에 민주주의에 어떤 파탄이 오는가 하는 것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이른바 국민 혁명, 또는 인간혁명이 요청되는 바이다. 혁명 정부가 6월 10일 ‘제헌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公布)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서일 것이다. 국민운동의 정의(定義)는 동(同) 법률의 제2조문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다만 국민운동의 추진은 위로부터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의 자각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자각에 의한 국민운동의 전개에 의하여 누적된 국민의 부패는 해소되며 새로운 국민 배양이 가능할 것이다. 자진(自進)에 의한 협력은 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지도자와 국민의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혁명의 중대한 과업이 추진될 것이다.

국민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혁명 공약에 제시된 혁명의 목적을 이해하며, 범국민운동에 자율적으로 호응하여, 심중(心中)의 적을 물리치고, 반공(反共)에 투철하고 내핍(耐乏) 생활을 여행(勵行)하고 건설 의욕을 증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혁명 과업의 완수에 이바지할 때에 혁명 공약은 실현되어 민주주의의 기초가 굳어질 것이다. (6·19)

<필자(筆者)·서울대 문리대(文理大) 교수>

(13면에서)

주거비 3,900환 / 피복비 7,000환 / 잡비 18,000환

B 노무자들의 소비지출별 비율

그런데 노무자들의 그것을 살펴보면 일반 월급생활자들과 다른 점이 여실히 나타난다.

(월수(月收) 50,000환으로 보고)

식료품비 52.3% 26,150환 / 광열비 6.8% 3,400환 / 주거비 6.4% 3,200환 /

피복비 9.2% 4,600환 / 잡비 25.3% 12,650환

(끝)

자가당착(自家撞着)에서 땀흘다가 해를 보내고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이는 자강불식(自強不息) 전지(戰志)에 앞서 있는 영화인들에겐 참초여근(斬草餘根) 되어야 할 첫째 암이 아닐 수 없었다.

서방(西邦)이나 유럽 등지의 여러 후진국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네들이 국민적, 국가적 끈기 있는 후원이 열매 맺어 세계시장에 버섯이 그 작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곁들여 우리가 항상 느끼는 점은 영화인 자체의 반성과 인식이 화급(火急)한 속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 영화는 예술이기에 앞서 우선 기업적 상품이어야 함을 머리에 두고 비양심적, 비사회적 작품 제작에 골몰하던 일부 프로듀서의 재각성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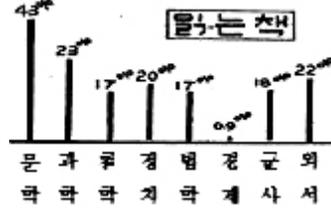
슬프고 괴롭고 어지럽지만 한 단면을 그려서 값싼 눈물을 강요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어온 습성은 좀체 가시지 않고 있었다. 이제 인간 개혁과 건전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혁명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는 상업주의 경향에서 건설적이고 양심적인 영화 제작의 길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엔 새 혁명정부의 영화 육성책의 과감하고 철두철미한 실천만이 풍타낭타(風打浪打)의 길에서 헤매는 방화의 구체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부언(附言)할 것은 앞으로는 영화제작상 가장 기본요소요 기본설계도가 되는 시나리오가 과거처럼 전주(錢主)인 프로듀서의 입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 작가의 머리에서 쓰여지는 작품이기를 바랄 따름이다.

<필자(筆者)·시나리오 작가·가정생활지 주간(主幹)>

대부분이며 친구집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밤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간은 10시까지로 33%를 차지하고 다음이 11시까지이며 야반(夜半) 1시까지 독서하는 장교도 한두 사람 있었다. 시간별 독서 경향은 다음과 같다.

- 8시까지 9명(2.4%)
- 9시까지 25명(7.5%)
- 10시까지 107명(32.9%)
- 11시까지 65명(19.5%)
- 12시까지 32명(9.6%)
- 주식시간 34명(10%)

밤 시간에 있어서 시간이 지적되어 있지 않은 장교가 18명 있었다.



◇읽는 책

약 43%가 문학서적을 읽고 있다. 군인에 가장 관계가 깊은 군사서적은 약 17%이고 경제 관계는 거의 읽지 않고 있다. 과학서적이 비교적 읽히고 있으며(23%) 제3위로 외서(22%)인데, 어떤 종류인지는 통계는 낼 수가 없다. 몇 사람이 경제와 과학 등을 기입하였다.

- 제1위 문학 43%(130명)
- 제2위 과학 23%(71명)
- 제3위 외서 22%(64명)
- 제4위 정치 20%(57명)
- 제5위 군사 17%(52명)
- 제6위 철학 17%(51명)
- 제7위 법률 (47명)
- 제8위 경제 (2명)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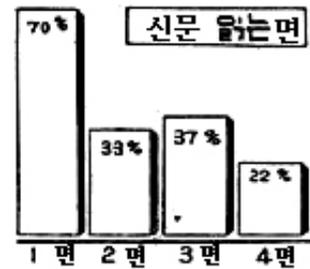
잡지를 읽는 경향은 전기(前記) 전문서적의 경우의 그것과는 다르다. 전문서적에서는 문학이 제1위였는데 잡지에서는 문예 잡지를 그처럼 읽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사상계(思想界)」와 그것과 같은 종합지인데 원래 종합지는 전기 전문적인 내용을 종합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합지에는 문예물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제2위가 대중잡지다.「아리랑」「명랑(明朗)」「소설계(小說界)」이밖에 많은 오락잡지가 등장되고 있다. 그런데 종합지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시사물이 많이 읽히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잡지에서는 외국간행물로 일본의「문예춘추(文藝春秋)」, 미국의「타임」「뉴스위크」「라이프」 등을 읽고 있다.

◇신문

신문에 있어서는 약 70%가 1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이 3면(사회면)이고 외신이 주로 되어 있는 2면이 33%이다.

- 1면(정치·국내정세) 70%(205명)
- 2면(외신·국제정세) 33%(106명)
- 3면(사회) 37%(139명)
- 4면(문화) 22%(67명)

그런데 이 <독서 양케이트>에서 전연(全然) 기입하지 않은 장교가 한 명 있었다.



황(黃)의 원색(原色)으로 마구 퍼부은 듯 500호, 600호짜리 대작이 덕수궁(德壽宮) 담벼락에 벌거숭이로 마구 걸려 있는 사실은 위선(爲先) 장관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그 의욕과 행동의 자유롭고 격정적인 자세는 쌍수(雙手)를 들어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이나 열중이 젊은이의, 아니 이 나라 미술계의 공통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 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생활환경과 밀도에서 자아내는 필연적이며 절실한 것일 때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국제 교류가 빈번하고 우리 화단(畫壇)이 후진적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과 사색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상품마냥 유행이나 유행에 떨어지는 비애(悲哀)에 부딪치기도 쉬운 일인 것이다.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일수록 진통과 파고드는 대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선진국 미술계의 동향에 뒤따르는 개념적, 아류적인 모색은 크게 경계하여야 한다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이 눈이 번쩍 뜨는 흥미는 줄지언정 우리들의 생활풍토와의 거리를 느낄 때 그저 상대적인 서구(西歐)나 미국적인 사고(思考)요 추구임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 정신적인 막다른 골목길에 봉착한 서구나 매카니즘의 절정에 도달한 미국적인 사색이나 방법은 의당 원시(原始)에의 동경이나 일체에 대한 부정, 혹은 합리(合理)에 정상형(頂上型)에 관한 추궁 등 있을 법한 일로서 수궁하는 바로되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과 생활 형식이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나의 반문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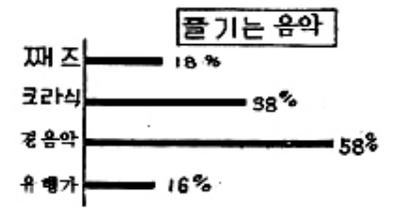
음악

◇즐기는 음악

경음악(輕音樂)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307명 중 174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클래식이다. 얼핏 생각하면 가장 많을 것 같았던 재즈물은 별로 환영되지 않는 것 같으나 유행가요에 비해서는 많다.

- 재즈 18%(55명)
- 클래식 38%(115명)
- 경음악 58%(174명)
- 유행가 16%(47명)



◇즐기는 장소

절대다수가 가정에서 즐기고 있다. 즉 307명 중 237명(약 80%)이다. 뮤직홀을 이용하는 사람이 16%이고 나머지 4%가 기타 장소로 되어있다. 이 기타 장소는 친구집, 야외 또는 공연 등이고 다방도 이용되고 있으나 아마 5·16 후에는 없을 것이다.

◇듣는 매개물(媒介物)

거의가 라디오에서 듣고 있다. 다음이 축음기이고 극소수가 전축, 그리고 녹음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도 있다. 그런데 음악에 전연 무취미한 장교가 5명 있었는데 독서, 영화, 기타 일반 취미에는 상세히 기입했으면서도 음악에는 전연 기입하지 않고 있다.

영화

◇1개월간 관람 횟수

월2회가 가장 많은 23%이고 월1회가 20%, 월3회가 16%의 순위로 되어 있는데 예외로는 월14회 또는 15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1회도 있다. 월횟수는 다음과 같다.

1회 20%(61명)	6회 (4명)
2회 22%(66명)	7회 (12명)
3회 16%(49명)	8회 (7명)
4회 20%(60명)	9회 (1명)
5회 5%(15명)	10회 (10명)

◇종별 관람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즐겨 보는가? 이것을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로 구별해서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염두에 가져야할 것은 국산영화에 아직까지 외화에 따른 만한 예술영화나 문예물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과 우리가 외화에서 즐길 수 있는 전쟁물, 음악물, 무용물 그리고 사극물에 있어서도 스케일이나 스펙타클이 보잘 것 없었다는 점이다.

국산 현대물이 49%로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연애물이 13%인데 실은 이제까지 국산영화에서 현대물 이라면 거의가 연애를 주제삼고 있기 때문에 확연한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극물이 29% 희극물이 21%로 비교적 사극물이 환영을 받고 있다.

아직도 가치 기준이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른 즉속과 풍토일진대 여기에 우리들의 진지한 절구가 있을 법하고 대결이 있을 법한 일이다. 선진작들이 달성한 위치나 방향을 그대로 뒤쫓을 수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들의 시야와 교양의 확대는 절대불가결의 것이리라. 그러나 한낱 관념적인 추종은 경계하여야 하겠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과 양식의 변천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커다란 의미의 현대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들의 고뇌와 딜레마가 있다. 여기서 따르는 진지한 대결에 진통만이 점차 우리들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리라.

스피드와 생존 경쟁이 강력한 개성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이리라.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듯이 결정(結晶)과 공(功)을 앞세우는 성급함을 경계하여야 하며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두름이 없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나 추구만이 감히 우리들의 조그마한 발견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싶다. 오히려 현대회화란 일체의 구속을 떠나는 자기에게 정직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리라. 진정 새로운 미술이란 또 한 번 이야기하여 유파(流派)나 양식을 뛰어넘는 자아의 발견일 것이다.

초대작가전, 60년 미술협회 등의 활동은 고갈증(枯渴症)에 걸린 우리나라 화단에 하나의 생선(生鮮)한 자극을 가져왔다 하겠고 김창렬(金昌烈), 정건모(鄭健模), 윤명로(尹明老) 등 제씨(諸氏)에

외화 외화에 있어서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물(연애물)이 32%이고 차위(次位)가 전쟁물 24%이다. 영화에 있어서 전쟁물은 가장 실패작이 적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흥미를 다루어가기 쉽고 흥행성도 있다는 것이다. 관람률은 다음과 같다.

- 현대물 32%(96명)
- 전쟁물 24%(73명)
- 음악물 21%(62명)
- 서부극 18%(55명)
- 사극물 13%(40명)
- 무용물 6%(18명)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수위(首位)로 61%(183명) 프랑스가 2위로 34%(108명) 이탈리아가 24%(71명) 서독 10%(30명) 영국 9%(29명)인데 이 순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화 수입량과 그 율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영화 앙케이트>에 있어서 외화를 전연 관람하지 않는 사람이 7명 국산영화를 전연 안 보는 사람이 17명 그리고 아주 담을 쌓은 사람이 2명이다.

타(他) 9종

일반 경향에 있어서는 바둑과 당구가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 당구는 5·16 후 금지되어 있음으로 당구 오락이 그 방향을 달리 돌리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어디로 돌려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먼저 각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당구 31%(94명)
- 바둑 33%(98명)
- 장기 27%(80명)
- 카메라 19%(57명)
- 스포츠 27%(81명)
- 라디오 39%(117명)
- 등산 22%(66명)
- 소풍 23%(68명)
- 낚시 26%(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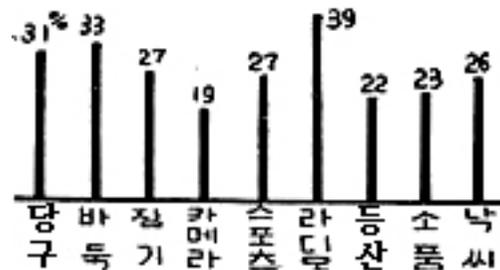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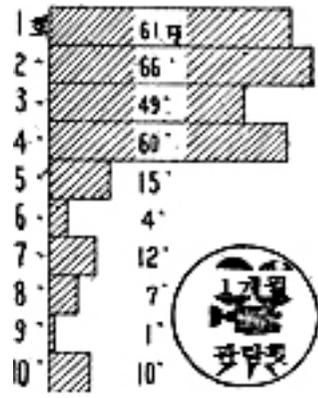
이 중 라디오는 일종의 가정비품이기 때문에 취미나 오락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당구는 300이 5명, 200이 3명, 150이 11명, 120이 9명, 100이 15명, 80이 7명, 이하 30까지 있고 바둑은 1급에서 12급까지 끌고루 있다. 장기도 3급자가 있는데 바둑 장기는 시합대회라도 개최하면

인상 깊은 전진이 눈에 띄었다. 중견층으로는 창작미술협회, 모던 아트 협회 등이 꾸준한 노력과 2·9 동인전(同人展)의 짜임새 있는 발표전은 이 나라의 새로운 미술의 어떠한 안정선을 그었다 하겠다. 끝으로 김환기(金煥基), 유영국(劉永國), 손응성(孫應星), 박수근(朴壽根) 등 제씨의 파고드는 개성은 어떠한 경지로 매진하는 듯 하여 적이 다행이었다.

이러한 신인들의 괄목할 만한 진출과 중견들의 정진적(精進的)인 추구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오늘의 결정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하겠다.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더 여지를 용납하지 않고 생활에 대한 몸부림과 더불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부딪치는 보다 절실하고 진지한 모색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필자·미술가)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밖에 취미로 사냥, 승마도 있고 늦잠 자는 취미도 있는데 이 늦잠 취미는 과히……. 그리고 전연 무취미 무오락이 3명 있다. 그러나 이 3명은 독서도 하고 음악도 즐기며 영화도 관람하고 있지만은 전기 당구, 바둑, 장기 등 9종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경향으로서 독서, 음악, 영화, 기타에 걸쳐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잡지에 있어서 대중지를 읽는 사람은 신문의 3번, 음악의 유행가, 영화에 있어서 연애물, 미국 영화의 서부극, 당구나 장기 등, 철학계 서적을 읽는 사람은 잡지는 사상계 같은 종합지를 읽고 음악에 있어서도 클래식을 즐기며 영화도 프랑스물, 카메라 등을 취미로 하고 있는 등 그 일레라 할 수 있다.

(유기영)

언론(言論)의 봉사(奉仕)

김동사(金東史)

‘저널리즘’이란 정보를 한 장소로부터 한 장소로 정확하게 통찰력과 보도(報道)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진리(眞理)에 봉사(奉仕)하는 것이 되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원리와 즉각적이 아니라 손 치더라도 서서히 그러나 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저명한 타임지 기자 에릭 호진스가 한말인데 이러한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말을 인용한 것은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언론의 자유란 이름 밑에 얼마나 그 본질적인 사용과는 어긋난 길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멀리는 그 예를 들지 않고 오직 4·19 이후 언론계는 진위(眞僞)의 판단과 진가(眞假)의 식별이 극난(極難)할 지경으로 혼란의 극에 이르러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무능 정치인들은 5·16의 군사 혁명으로 스스로의 묘혈(墓穴)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동안의 악폐가 이루어 형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요즘 신문지상에 그 일모(一貌)가 노출되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노출되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첫째는 후진국에서 범하기 쉬운 특권의식에서일 것이다. 무관(無冠)의 제왕이란 것이 이렇게 값싸게 얻어질 수 있다는 망상이 빛은 코미디라고 보겠다.

둘째는 이것을 용인한 사회의 부패성에 있을 것이다. 사이버 기자가 번식할 수 있는 소지(素地)를 국민들이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책(無策)이었던 위정자의 무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자유라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의에 입각했을 때 허용되는 것이지 무제한의 자유란 것이 있을 수 없다.

넷째는 곧 이를 저널리즘의 임무의 첫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사이버 언론인의 인간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사회악을 조장하는 행동을 조작하게 하는 언론기관이 어찌 언론이라는 관사(冠詞)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의 임무의 첫째가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자력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남의 보조를 받지 않고도 기업이 성립되며 또한 누구의 꼬나풀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제1의(一義)도 망각한 언론기관이 수도 서울을 위시(爲始)하여 경향(京鄕) 각지에서 판을 쳤으니 그것을 어찌 다 기록할 것인가.

그런만치 언론의 임무인 여타의 공정·정확·정직·책임성 등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화난만(妖花爛漫)의 세태도 이제는 꿈과 같이 잠적하고 오직 5·16의 군사 혁명은 민족의 지상과업 중 가장 긴급한 혁명 공약 6장의 달성을 위한 대열에 언론인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저널리즘의 목적을 말할 때 알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위안을 주기 위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밖에도 부차적인 목적은 있으나 그것보다도 미국 신문 편집인협회에서 말하듯 “신문이 인류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본질은 인간이 무엇을 하며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말은 하나의 정의(定義)는 아니다. 다만 그들이 경험에서 또는 신문의 본질에서의 탈선을 경계하기 위해 제정한 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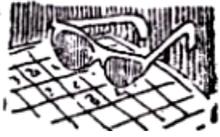
이것은 우리 언론계로서도 항상 명심할 평범하면서도 진실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문계가 지난날 범했던 모든 과오를 자율적으로 청산하고 오직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도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해줄 때 사회는 구악(舊惡)의 일소(一掃)와 더불어 명랑화해될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 과업의 완수를 위해 진정한 언론의 길이 수립되며 어디까지나 영향력을 고려해서 신중한 위치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언론인)

소선(小善)과 소악(小惡)

박찬홍(朴贊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흔히 선(善)과 악(惡)의 대소(大小)를 구별하여서 말하는 것 같다.

즉 악이라 하면 큰 살인강도나 또한 사기협잡 기타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것만을 말하고 소소한 것은 악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보통 있음직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한 것쯤이야 누구는 없겠느냐 하고 도리어 반문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그와 정반대로 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선하면 무슨 굉장한 일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겹하여 신문에 대서특필로 떠들어 대고 큰 포장(褒章)이나 받아야 선을 행하듯이 아는 사람도 또한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소소한 선을 행하여도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사일 것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선과 악의 대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적고 미미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적으나마 악의 뿌리 다시 말하면 근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근성을 송두리째 빼내어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이 차차 커지고 자랄 대로 자라서 나중에는 소악(小惡)에서 대악(大惡)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상례(常例)인 것이다.

그러나 작으나마 선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역시 마음 어느 한 귀퉁이에 선의 뿌리, 즉 근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양하고 확대하게 되면 현인군자(賢人君子)도 넉넉히 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한 이치인 것이다.

옛날 촉(蜀)나라 군주 류현덕(劉玄德)은 그가 임종시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악은 적다고 해서 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 또한 선도 작다고 해서 행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小而不爲”가 즉 그것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고도 쉬운 말 같고 평범한 말 같으나 다시 냉정히 생각하여 보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말과 같이 작은 것이라 해서 나쁜 짓 즉 좋지 못한 짓을 함부로 해버린다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또한 차차 커지고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여간한 나쁜 일쯤은 나쁜 일로 생각지 않는 습관이 자연 생기게 되어서 필경에 가서는 큰일 즉 대악도 서슴지 않아 저지르고야 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하므로 선은 그렇지 않지만 악이라 하면 작았을 때부터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만 하겠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는데 가령 한 가정에서의 일이다.

어린아이가 철모르고 좋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물론

이것은 고의도 악의도 아니요 즉 동심(童心)에서 이러한 순수한 즉 무의식(無意識)인 것이다.

그리 하였을 때 부모나 자매되는 분들이 반드시 그것이 좋지 못한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일러 주고 또한 깨우쳐 주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할 것이요, 두 번 세 번 일러도 그것을 고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별다른 제재라도 가하여서 그 나쁜 버릇을 즉 근성을 없애주어야 할 것은 물론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흔히 우리네 가정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어린아이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눈감아 버리려는 즉 애정 아닌 애정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우리네들의 가정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어린아이가 일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 되는 분은 그것을 훈계하고 제재하려 하면 그의 어머니 되는 분은 반드시 이것을 싸고들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어린아이가 철모르고 한 일을 뭘 그러느냐?”고 무마해버리려는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식의 장래를 그려 주 는 것이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 것이다.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선하다고 칭찬을 해 줄 것이고 나쁜 일 악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악한 일이라고 깨우쳐주며 다시는 안 하도록 제지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줄 알고 선한 일을 즐기고 좋아해서 악한 일을 싫어하는 습성이 깊이 들도록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도 있듯이 하루동안 선한 일을 하면 그날로 즉시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재앙이 멀어지고 하루동안 악한 짓을 하면 이것이 그 당장에 화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복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그 날 그 날 끊임없이 적은 선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뒤뜰에 나는 봄 풀과 같아서 쉴 새 없이 자라나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나, 날이 갈수록 차차 무성해지는 것이다.

또 그 날 그 날을 적은 악이라도 행하자 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깎이고 닳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날이 갈수록 차차 깎이고 닳아서 나중에는 깊어지는 것과 같이 손(損)은 있을지언정 이로운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8·15 해방과 더불어 더욱이 6·25 동란(動亂) 이후로 매일같이 신문지 제3면 기사를 장식하며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순진하고 난만(爛慢)하여야 할 어린 소년소녀들의 범죄 사실인 것이다.

지금은 군사 혁명 이후 광복들의 뿌리가 뽕히고 질서가 완전히 잡혀서 많은 청소년소녀들이 자숙(自肅)하고 있지만은 혁명 전에만 하여도 순진하고 착해야 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구명한다면 첫째는 가정교육이 부족한 탓이오, 둘째는 사회도덕이 퇴폐하여 땅에 떨어진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인간이란 나면서부터 악한 것도 아니요 착한 것도 아니다.

저 유명한 순자(荀子)는 사람의 성악설(性惡說)을 들고 나와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사람의 천성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어도 저의 본성인 악으로 흘러가기 쉽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한편 맹자(孟子)는 성선설(性善說)을 내걸고 주장하였으니 사람의 천성은 선하고 착한 것이지만 물욕에 현혹되어 악한 짓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천성은 악도 아니요 선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직 거울과 같아서 맑은 것으로서 흰 것이 그 거울에 비치면 희게 비치고 검은 것이 (58면으로 계속)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의 문맹률(文盲率)

얼마 전에 유네스코(UNESCO)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의 문맹률(文盲率)은 별표(別表)와 같은데 아르헨티나가 13.6%로서 가장 높으며 최고는 하이티의 89.5%로 되어 있다.

인구 3,000만의 아르헨티나 700만의 칠레(19.9%) 및 100만의 코스타리카(20.6%) 등 유럽색 계통의 백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나라의 문맹률이 1·2·3위 이렇게 가장 낮은 데 비해서 인구가 340만 중 흑인 혹은 인디언이 95%를 점하고 있는 하이티나 350만 이들이 53.5%를 점하고 있는 온두라스 같은 나라가 각기 89.5%와 70.6%를 나타내고 있음은 대조적이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6,000만이라는 가장 큰 나라 브라질이 50.6%로 되어 있다.

더욱이 문맹률이 가장 양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도시가 8.8%인데 비해서 지방은 23.2%로 대륙 문화의 편중을 입증하고 있음도 재미있는 사실이며 남녀별로 볼 때는 남자 12.1%에 대하여 여자가 15.2%로 되어 있다.

문맹률이 높은 원인으로서는 잡다한 토어(土語)와 소학교 교사의 부족, 그 밖에 지리, 빈궁 등이라고 유네스코에서는 말하고 있다.

*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의 문맹률(文盲率)

아르헨티나 13.6%	브라질 50.6%
칠레 19.9%	도미니카 57.1%
코스타리카 20.6%	엘살바도르 60.6%
쿠바 22.1%	니카라과 61.6%
파나마 30.1%	온두라스 64.8%
파라과이 34.2%	볼리비아 69.7%
콜롬비아 37.6%	과테말라 70.6%
에콰도르 44.3%	하이티 89.5%
베네수엘라 47.8%	

생활 양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혁명 과업의 달성은 먼저 우리들 모두의 생활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 좌담회는 그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일시 6월14일

장소 공본정훈감실(空本政訓監室)



◇말하는 이들

- 윤 관 대위 (법무감실法務監室)
- 정 양 모 중위 (공사교관空士教官)
- 이 문 규 소위 (정훈감실政訓監室)
- 김 병 국 상사 (본사本司)
- 최 봉 순 하사 (의무감실醫務監室)
- 정 옥 점 문관 (행정감실行政監室)
- 사회 이재환 소령 (정훈과장政訓課長)



- ① 김병국 상사
- ② 이문규 소위
- ③ 정양모 중위
- ④ 정옥점 문관
- ⑤ 최봉순 하사
- ⑥ 이재환 소령(사회)
- ⑦ 윤관 대위



사회 이제 우리는 정말 구호나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개혁을 강행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생활양식의 전환이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가졌던 태만과 퇴폐적인 일체의 요소를 청산하고 실질적이고 건전성 있는 양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우선 우리들의 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주를 따라 얘기를 시작합니다. 옷차림[衣服]에 대해서 정양모 중위께서 먼저 얘기 해 주실까요.

정중위 좀 더 검소한 차림이 되어야겠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에서는 확실히 우리 경제실정에 맞지 않는 치레거든요. 한때 신생활복(新生活服)이라 해서 일부 사람들이 입기는 했어도 실상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봐요. 원체 한국 사람은 유행에 너무 예민한 것 같더군요. 유행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재빨리 이 유행에 따르고 있어요. 서울 거리는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으니 먼저 이 유행병부터 고쳐야겠습니다.

사회 해방 전 미국 국무성에 근무하던 한국인이 해방 후 5년인가 얼마 후에 처음으로 귀국해서 첫째로 놀랐다는 게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이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그만치 부(富)한 나라이지마는 직장에서는 거개(學階)가 아래 위 색이 다른 옷을 입는 것이 보통이구 초대를 받았든가 무슨 특별한 파티에나 아래 위 맞춤옷을 입는다는데 한국의 도시에서는 맞춤옷을 입은 사람이 거리에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더군요. 어떻습니까, 정 양께서는—. 사치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한 말씀…….

정문관 5·16 혁명 후에는 저희 여성들도 컬러에 대해서만도 자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화려하고 난한 색깔은 자연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잖은 색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흰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같은—.

이소위 혁명 후에 양장점(洋裝店)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정문관 근래에는 없어요.

호사(豪奢)와 아름다움과는 다르다

사회 제가 잘 아는 양장점 주인이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종전까지 줄곧 외국산 천만 택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국산 천으로 전환했다고 하더군요. 실제에 있어서 국산 천이 외국산보다 우수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컬러가 아무래도 외국산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약점이긴 하지만…….

김상사 여성이 사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미적 관념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경제능력을 무시하거나 우리 생활 실정에 맞지 않는 차림을 할 때 사치라고 보겠지요. 미(美)는 사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소하고 생활환경에 맞는 건전한 차림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사치하는 여성들이 자각하고 또 주위가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겠어요.

정중위 생활 정도에 맞는 차림으로 고쳐야 합니다. 여대생들이 「하이힐」에다가 고급 차림을 하고 나다니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정문관 그렇지만 검소한 가운데에도 여성에게는 여성이 가지는 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성두 마찬가지로…….(웃음)

사회 지당한 말씀입니다.(웃음)

이소위 아까 유행과 사치가 문제 되었는데 주로 도시에 국한된 현상이고 특수한 계층들이 주로 유행을 따르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치를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면 유행이고 사치고 그런 것과 담을 쌓고 있는 실정이며 해방 전이나 지금이나 구태의연한 겁니다.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의 의복 개선도 아울러 문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사 유행이란 사실상 도시의 독점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할이 농민인데도 농촌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5·16 혁명 이후에는 도시민들도 모두들 자중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소위 여성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만 허영이나 사치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이 본거지이니 여자들이



국민도의(國民道義)와 범국민운동(汎國民運動)



사람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이 모든 찬사는 결국 인간은 믿음의 동물이다 하는 대로 귀결이 지어진다. 인간이 만약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진다면 인간은 결국 자기파산을 하고 만다. 믿음이란 인간의 기둥이다. 집이 기둥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서지 못한다.

사람이란 자기개체의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때에 만물의 영장도 되고 하느님의 아들도 되고 사회적 동물도 되고 정치적 동물도 된다.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무내용(無內容)한 표피뿐이고 정신이 없는 허수아비다. 내용이 없는 표피의 영장도 하느님의 아들도 될 수 없는 동시에 남과의 상호 부조(扶助)와 조화도 이를 수 없으니 사회적 동물도 정치적 동물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며 민족적인 것이며 국민적인 것이며 전 인류적인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오천년래의 도의민족(道義民族)이다. 우리 민족은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으로 함양된 신의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도의에 살고 신의에 죽을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고대 중국 사람들도 우리 민족의 이 고상한 민족성을 인정하여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높은 문화와 얼마나 고상한 도의와 얼마나 견고한 신의에 사는 민족이었던가를 우리는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삼국시대까지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제천(祭天) 사상과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외세의 침입이 없이 자주독립(自主獨立)하고 살았다. 고려(高麗) 조에서는 우리 고유사상을 차치하고 불교사상에 의해 정치를 하게 되자 중화(中華) 이후로부터는 외침(外侵)에 큰 고생을 했고 본조(本朝)에서는 또 유교사상을 의존해서 정치를 해오는 동안 우리는 불행했다. 물론 불교사상과 유교철학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는 인도(印度)의 풍토와 인도 민족의 전설을 토대로 해서 발생했고 유교철학은 중국의

풍토와 중국의 역사를 기지(基地)로 하여 배양된 사상이고 보니 이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풍토와 한국의 역사적 기지에 조화되도록 이에 대한 취합 선택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한 취합 선택이 없이 그 전부를 마치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이상의 것으로 높이 평가하여 이를 존숭(尊崇)했으므로 부지불식간에 우리 민족은 외래사상 숭배와 사대주의(事大主義)를 길러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기를 열등시(劣等視)하고 과소평가하는 동시에 남을 믿고 남을 우월시하고 남을 과대평가하는 습성을 길렀다. 그래서 이조(李朝) 500년래로 명(明)나라에 스스로 신사(臣事)하는 수치(羞恥)를 상도(常道)처럼 생각하는 철저한 외세 의존과 사대주의 정치를 감행하노라고 안으로는

동조자손(同祖子孫)으로서 반상(班常)의 귀천을 엄별하여 소위 양반이란 귀족은 상인(常人)이란 국민을 억압 착취하여 영화(榮華)를 누리되 조정은 4색으로 분당(分黨)하여 정권을 위해서는 서로 원수와 같이 싸워 부단히 피를 흘리는 것으로써 일을 삼아오다가 이조 말엽 거금(距今) 50여 년 전에 전국을 들어 일제(日帝)의 식민지로 바치는 비극을 감행하고 말았다. 그 후 3·1 독립운동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배하고 우리는 UN의 적극적인 원조(援助)에 의해 다시 주권국가로 돌아왔다.

독립 후의 이(李) 정권, 4·19 후의 허(許) 과도정권(過渡政權), 7·29 이후의 민주당 정권이 다 관준민비(官尊民卑) 사상의 특권정치를 하여 민생을 도탄의 고통에 몰아넣어 국운이 가히 위경(危境)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민족정기—홍익인간 정신은 우리 민족의 혈액 가운데 맥맥히 살아 우리는 이번에 다시 5·16 군사 혁명을 맞이하여 기울어지는 국운을 바로잡고 생활고에 얽매어 허덕이는 동포를 생활고에서 해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열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가졌다.

공무원의 준법정신이 되살고 민심이 바야흐로 질서를 지키려는 이 기운을 타서 우리의 도의정신을 바로잡고 한국의 전통과 현 민도(民度)에 적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국의 역사적 경과를 보아 우리에게 반공국시(反共國是)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와 반공국시와 도의정신의 양양(昂揚)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이 삼자(三者)는 종합일체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 선정(善政)이 곧 반공국시가 되고 도의정신 양양이 곧 민주 선정이 되고 반공국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 민주정치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을 기아(飢餓)에 몰아넣고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은 물론 기성 지도자들의 무능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은 아직도 민주주의에 보다 사대주의, 관준민비 사상에 시는 사람이 거의 전부인 만큼 우리는 민주 선정과 반공국시와 도의정신 양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민주사상 함양과 사대주의, 관준민비 사상의 타파를 위해 시급히 일대(一大)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박암(朴巖)·외국어대학(外國語大學) 강사〉

스스로 허영이나 사치의 일소(一掃) 운동을 전개함직도 합니다. 하기는 여성 해방 운동도 남자들이 했다고 하지만 (웃음)

윤대위 그런데 아까 정(鄭) 문관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질박한 생활운동이 요청된다고 해서 각자 사생활에 본의 아닌 제약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이소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곤란하나 각자가 반성하고 자각하는 태도에 서만이 참다운 생활개혁이 이룩된다고 봅니다. 사치한다는 것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국민복(國民服)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중위 제 생각으로서는 국민복 같은 것 안 해도 검소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상사 생활 개선은 아무래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을 샅을 주는 따위의 안이한 생활감정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와이셔츠 하나를 세탁하는 것도 세탁소만 찾아가지 말고 집에서 세탁하도록 하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생각할 문제이죠.

이소위 한국은행(韓國銀行) 1960년 통계에 의하면 봉급생활자 생계비 지출에서 잡비가 33%나 되더군요. 식품 다음가는 숫자인데 아마 이 잡비 속에서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한 절약을 지향한다면 잡비 같은 지출에도 검토가 가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문관 저는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검소한 차림이라면 일복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고급 천이 아니고 싼 것이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하모니가 되게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옷감을 택하도록 해야겠어요. 또 세탁이 용이하고 색깔이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을 골라 산뜻한 차림이 되도록 디자인도 연구하구요.

이소위 따라서 걸핏하면 양장점에 뛰어가든 버릇도 고쳐서 웬만한 것은 가정에서 바느질하시도록…….

정문관 그럼은요. (웃음)

조미과학(調味科學)에 대한 지식(知識)도

사회 식생활 면에 있어서도 고칠 점이 많이 있잖겠습니까?

정문관 정말 그래요. 식탁 같은 것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해야 할 점이 많아요. 가족 중에서 아무도 즐기지 않는 반찬 같은 것을 아침저녁으로 등장시킨다든가 하는 형식.

최하사 요리에 대한 과학 지식이랄까 칼로리 지식이랄까 값이 헐하면서도 많은 영양(滋養)이 섭취되는 요리에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윤대위 양보다 질 주의로군요.

정문관 잡지나 신문에 요리법이 많이 실리는데 읽는 여성들도 많을 거예요.

이소위 많이 읽는 것만으로 먹을 수 있나요.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웃음)

형식(形式)보다 쓸모 있는 주택구조(住宅構造)로

사회 우리 재래식 주택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문관 구식 주택은 부엌 구조나 설비가 주부의 노동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저희들도 높은 문지방을 넘다가 다른 일 못하거든요. 대청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스페이스만 차지하고 이용가치란 여름철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유익하게 양식(洋式)의 리빙룸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어요.

이소위 한국식 주택은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의 구조만 하더라도 한복이면 무방하지만 양복은 의자에 걸터앉게 되어 있거든요. 나태하기 쉽게 된 주택의 구조 등도 연구되어야겠습니다.

정중위 장독대의 존재도 생각할 문제일 것 같아요. 무슨 치레처럼 차려놓는 장독은 많은 장소를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장독이란 잘 깨뜨려지는 용기 아닙니까. 간장 공장이 좀 더 발전해서 다량생산하고 맛도 좋고 하면 부락 단위로 사서 먹는 편이 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그리고 요사이 잡곡혼식이나 도시락 지참이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출판(出版)>

최근의 동태(動態)

조성출(趙誠出)

국민이 전진하고 있는가 후진하고 있는가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손쉬운 방법의 하나가 그 나라의 출판계의 성쇠로 알 수 있다.

출판인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면 “2,500만 인구의 일모(一毛)에 미치지 못하는 2,000부의 책이 초판을 팔지 못하니 어떻게 출판을 해먹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 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10만 이상 20만을 돌파한 출판물이 있다는 사실이다. 2,000부가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2, 30만 부가 팔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서책의 내용에 독자를 흡입할 수 있는 요소의 유무에 있다고 보겠다.

그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출판업자들은 기획의 경쟁이 치열하다. 적은 독서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한다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들은 풀고 있는 것이다.

왜 책을 안 볼까.

이유를 캐어 본다면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팔리는 책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역시 내용이 문제라고 보겠다. 우리는 해방 후 한때의 출판의 호경기(好景氣) 시대를 지나 6·25를 겪고 수복이 되었을 때 출판계는 활기를 띠었다.

출판사는 낱말이 그 수를 증가시키고, 너도나도 출판에 집중하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안정된 생활이 이룩되자 출판계는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이었지만 이미 독자층의 의식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현한 것이 전집류와 더불어 백과사전 등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기획과 투자는 독자층을 흡수했다.

이 출판의 성공은 월부판매(月賦販賣)라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욱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 경기(景氣)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李) 정권 말기에는 시들기 시작했다.

4·19에서 잠시 정관태세(靜觀態勢)에 놓였던 출판계는 장(張) 정권의 우유부단한 정책의 여파로 우리 국민의 기대와는 역류하는 것이었으니 이 통에 출판계는 일체의 기대도 공념화(空念化)하고 방대한 시설들은 유평(遊休) 상태를 불문했다.

이 동안에 요화(妖花)처럼 일시에 꽃을 피게 한 것은 이른바 ‘일본 봄’이란 우리가 일찍 상상도 못해본 일서(日書) 번역이란 것이 성행되어 몇 개 출판사는 이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즉 국민을 기아선(飢餓線)상에서

이소위 잡곡혼식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미각적으로도 좋다고 봅니다. 영양도 더 많이 섭취되구요. 도시락도 좀 더 철저히 실행되어야 하겠어요. 외식한다는 것 정말 낭비에요. 도시락을 싫어하거나 도시락에 잡곡을 혼용치 않은 것은 결국 허영심의 작동이라고 봅니다.

김상사 최근에는 도시락 지참자가 대단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중위 작년엔가 신문에 보니 전국 도시사람들의 1개월 외식비가 팔억 환인가 했어요. 이것은 낭비거든요.

이소위 짧은 시간에 밥을 지을 수 있는 부엌 개조도 연구되어야겠어요. 주부들은 하루에 밥짓느라고 세 차례씩이나 죽어나거든요.

정문관 정말 집에서는 부엌일 하다가 신문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밥상도 좀 간소화해야 되겠어요. 실속 없는 반찬수가 무슨 전시회처럼 많기만 해요. 또 우리 가정에선 반찬 같은 것 남으면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식사 때에 먹곤 하는데 보건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림 망치는 관혼상례(冠婚喪禮)

사회 일반적인 사회생활면을 통해서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윤(尹) 대위께서 좀 말씀해주시시오.

윤대위 글썄요.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사회 관혼상례 같은 데서 문제되는 시정사황 같은 것부터 말 좀 하실까요.

윤대위 관혼상례를 대사(大事)라고 하며 돈을 많이 들여야만 체면을 세운다는 인습적(因襲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걸핏하면 큰일 났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습성도 이런 경우에 지나친 허례허식을 일삼았던 폐단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사(喪事)나 결혼에 돈을 많이 써야만 체면이 서고 일가친척이나 이웃사람들로부터 치하(致賀)를 받는다는 그런 습성은 정말 비현실적이고 나쁜 인습이에요. 이것도 이제는 구악의 하나로 되었지만…….

관혼상례에서 살림을 망치는 일례(一例)가 많아요. 상례(喪禮) 같은 것 죽은 조상 위해서 산 자 손 잡는 격이고 관혼(冠婚) 치례도 자손 위해서 조상이 죽는 격이에요.

정중위 허례허식은 곧 허영입니다. 빛을 내서라도 결혼이나 초상을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란 정말 일종의 넌센스에요. 이런 것 냉큼 뜯어고쳐야겠습니다.

청첩장(請牒狀) 남발(濫發)에는 질색

윤대위 결혼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그 청첩장 돌리기 좀 삼가주었으면 해요. 내가 청첩장을 받고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 예가 있어요. 꼭 청첩해야 할 사람이구 꼭 청첩을 받을 만한 사이라면 보내온 사람이 누구인지 얼른 못 알아차리는 정도는 아닐 것인데 무정견(無定見)하게 화내는 폐단라고 봐요.

정중위 부조(扶助) 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만 일반화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웃음)

이소위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이면 부조 돈도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경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인데……. (웃음)

윤대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회갑인데 아들 장가 들네 딸 치우네 해서 한 살림 톡톡히 모은 사람들도 있단지 않아요. (웃음)

사회 그런 것 이제부터는 없어져야겠는데 최(崔) 하사는 아직 미혼이니 소감이 어떤지요?

최하사 저는 아주 친밀한 친구에게나 청첩장

구하며, 반공체제를 실질적으로 확립시키며 구악을 일소하려고 궤기(蹶起)한 국군장병들에 의해 이루어진 5·16 군사 혁명 이후는 어떠한가?

구악의 잔재가 출판계에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출판업자들이 민족적 과업 완수에 궤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의 영합적 출판 근성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앞장에 서서 민족의 지성을 일깨울 수 있는 양서(良書)의 출판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업자나, 위정자를 위해 몇 마디 고언(苦言)을 남기고 싶다. 예를 든다면 국내출판의 월간지가 서사(書肆)에 진열되는 것이 2·30종이 있으나 이것의 총 발행부수가 월 20만 부 선을 그다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독사 흡수를 오만한 편집자의 기획 미스 또는 참신체(斬新體)의 결여 등이 문제라고 보겠는데 이 점 참고가 있어야 하겠고 시책(施策)면에서 볼 때 서책에 관해서는 융자(融資)의 길, 양서 추천, 그리고 양서 출판의 암(癩)이라고 할 투매(投賣) 시장의 단속 등이 적극 추진되면 국민의 건실한 사조와 더불어 출판계도 앞으로 기업으로서 지성의 반려(伴侶)로서 양서의 출판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필자(筆者)·성봉각(聖峰閣) 대표>

을 보내겠어요. 조용하고 간소하게 할 생각입니다.

사회 실례지만 정문관계선?

정문관 아직 결혼 같은 것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웃음)

최하사 저는 결혼 안 할 생각은 안 합니다. (웃음)

코리안 타임 뱅크 버리자

사회 대인관계나 일반 사고면에 대해서 어디 이 소위 한 말씀—.

이소위 코리안 타임을 철저히 분쇄해야겠어요. 사회적인 모임이나 개인적인 약속에 있어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실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중위 권위 있는 단체가 개회시간을 지키지 않는 데는 정말 격분하겠더군요.

이소위 모두가 바쁜 생활이고 또 각자 그 날의 스케줄이 있는데 약속시간에 상대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 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만나면 될 일에 두 번 세 번 만나러 가야 하니 교통비나 시간의 낭비가 많아요.

정문관 그저께 제가 아버지 친구 되는 분한테서 들은 얘긴데요. 요즘 일반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관청에 불일 보는 시민들이 시간절약이 된다더군요. 5·16 전에는 관공서에 용건이 있는 시민들이 한두 번이면 될 일을 몇 번씩이고 찾아가야만 했었대요.

윤대위 그것두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구 다방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소비 성향의 오락과는 당분간 굿바이

사회 한국 사람의 시간관념도 구악의 하나였지요. 시간관념의 새 기풍을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조성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락면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정중위 오락에 소비가 따르는 것은 부득이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당면과제가 국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소비성향의 오락은 당분간 억제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위 너무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중독적이랄까 너무 몰입하는 종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밤을 새우는 놀이라든가 한 번 손을 대면 자꾸 하고픈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문관 저는 가정 중심의 오락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면 해요.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으로요…….

오락(娛樂)은 노소(老少) 동락주의(同樂主義)로

김상사 직장에서도 오락시설이 있어서 동료들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들게 마련이고 의외의 소비가 따르게 마련이니깐요.

사회 요새는 어떻게들 여가를 즐기시나요?

정문관 오락이란 별로 없어요. 기껏 영화나 보고 책이나 읽고 해요. 그렇지만 5·16 후엔 극장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家庭) 중심으로 즐기자

정중위 특히 우리는 오락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청신(淸新)한 기풍 조성에 앞장을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무용(舞踊)>

진로(進路)는 잡았으나

김상화(金相華)

4·19에서 5·16,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숨 가쁜 정치 및 경제의 개혁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5·16 혁명은 원리원칙을 준수하려는 질서의 회복과 그 결실을 즉각적으로 사회에 반영시킴으로서 모든 구악을 제거하며 간접침략을 미연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찬란하고 승고한 매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가진 유일한 순수미(純粹美)인 무용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기획의 빈곤

오늘날의 무대 예술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주관(主觀)에서 보편화된 개성으로 그 진로를 잡고 있다. 따라서 무용예술의 진가는 그러한 체계 없이는 존립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용계는 이와 같은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윤대위 오락도 정문관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즉, 오락하는 데 있어 여태까지 나쁜 습성이 있어요. 가족의 전체성을 기초(基調)로 한 오락에의 관심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첩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의 일요일을 부인과 함께 즐긴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사회 부인이 없는 총각은 (웃음)

윤대위 애인과 더불어. (웃음)

사회 그럼 최 하사는 애인과 가겠구려.

최하사 아직 그런 애인이 없어서요. (웃음)

사회 지난번에 댄스광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 주의로 엄단을 했는데 댄스는 어떻습니까? 윤 대위님 사회기풍에 미치는 영향이.

윤대위 제가 뭐 댄스광입니까. 저에게 물으시니 (웃음) 댄스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는 무리가 나빠요.

또 댄스에 의한 풍기문란 같은 것도 우리 문화와는 전연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전통과 융합될 수 없는 요소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사회나 레크리에이션으로 적당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댄스는 청신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재건에의 힘찬 바람을 불러일으킬 지금 시국에는 마땅히 제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성적(陰性的) 오락은 범죄화

이소위 음성적으로 호를 가능성이 있는 오락은 적어도 요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건전성 없는 것이고, 한편 음성화하는 것이 곧 퇴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댄스 같은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어요. 금지 되면 비밀 홀(Hall)이 성행하고 그 비밀 댄스홀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회악, 퇴폐적인 이성 교섭 따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고유 오락, 이틀테면 그네뛰기. 윷놀이, 씨름 같은 것은 모두가 공개적이고 음성화 할래야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락부에 있어서도 우리 고유의 것이 되었으면 해요. 이것은 별개의 내용 같지만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민족정기를 진작(振作)시키는 데도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군대에 있어서도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기획의 빈곤에 기인한다. 집단의 미는 지도자의 조화된 기술과 학문의 영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우수한 기획이 긴요한 것이다.

우리 무용계는 집단의 미만이 현대예술의 올바른 자세임을 인식하고 1950년도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종합성을 핵체(核體)로 하는 무대구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결코 표현에까지는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기(前記)한바 기획의 빈곤이다.

그러므로 창작행위와 흥행의 토대인 기획을 완전 양립시켜야 하겠고 미성년자의 연구장인 무용연구소 단위의 무용단정도으로써는 도저히 본격적인 무대를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조속히 직업무용단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막연한 방법론

그러면 직업무용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겠는가? 현대무용의 관건인 집단미의 구현과 종합성의 개화(開花)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막연하다. 진로는 잡았으나 방법의 질서를 갖지 못한 것이 우리 무용계다. 첫째 진정한 뜻에서의 프로듀서 또는 매니저라는 인물이 없다. 다시 말해서 흥행사(興行師)가 없다는 뜻이다. 하기는 상행위(商行爲)를 하기 위해서 해외진출을 노리는 흥행사가 다수하지만 참된 흥행사 즉 양식(良識) 있는 프로듀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 고로 무용의 기업화는 바랄 수 없고 지극히 산발적으로 무용단이 조직되었다가 하던 1회 공연에서 중지부를 찍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취볼 때 기획은 양식 있는 프로듀서의 등장 없이는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무용단의 육성은 연구생 중심의 가족적 흥행에서 벗어나게끔 확고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튼튼한 기업의 확립 없이는 옳게 뻗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우리 무용계는 집단미에서 진로는 잡았으나 그 방법론을 갖지 못한 채 소일(消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망과 과제

그러기에 무용계의 앞날은 이 상태로서는 발전의 여지가 없다. 올해도 한두 사람의 공연이 있었으나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창의와 기획성이 없는 무대였던 것이다.

아무튼 전술한바 우리 무용계는 기획의 빈곤을 조속히 시정하여 보다 충실한 무대를 이룩하게끔 전진해야 할 것임은 물론 관념에서 방법과 수단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행동과 표현으로서 민족예술의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기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필자(筆者)·무용평론가(舞踊評論家)>

사회 이제 그런 말씀은 ‘노소동락(老少同樂) 같은 점도 포함된 것이라 보겠는데 정말 노소동락이 오락의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손녀가 즐기고 할머니와 며느리가 즐기고— 여기에 비로소 오락의 근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문관 가볍고 명랑하구 그리고 활동적인 것이 보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같은 게 좋다고 봐요.

정중위 동감입니다. 군에서도 가벼운 게임의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이 좋겠어요. 탁구, 배구 등…….

이소위 가령 소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인극(素人劇) 같은 것을 해 보는 것도 군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要)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퇴폐적이며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의 확립과 강인한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지요. (끝)

<토막 지식>

핵폭발(核爆發)의 각 형태(形態)

핵폭발 직후에 발생하는 현상과 폭풍 충격파, 열선, 방사선 등의 효과는 지표(地表)에 대한 폭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다섯 가지 형(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공중폭발, 수중폭발, 지하폭발, 지표폭발, 대기권외(초고공) 폭발이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각 형의 폭발의 커다란 특징을 보면 공중폭발에서는 폭풍, 열효과 즉 핵방사(核放射)가 강하다. 그것의 전형적인 것으로 일본 히로시마(廣島)나 나가사키(長崎)에서 투하된 폭탄이다. 수중폭발에서는 수중의 충격파가 강하나 다른 효과는 적다. 그러나 심도(深度)가 얕을 때에는 오염된 해수의 비산(飛濺)으로 국부적(局部的)인 핵방사능 강하가 생긴다. 지표폭발의 경우에는 공중폭발과 거의 같은 효과를 일으키며 동시에 지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오염된 토사 등의 강하로서 상당히 광범위한 국지적 방사능 오염지역을 만든다. 얕은 지하폭발에서는 지표폭발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깊게 되면 지진파를 나타낼 뿐이고 외계(外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기권의 즉 초고공 폭발에서는 전리층(電離層) 등에 영향을 미치나 지표 부근에 대하여는 직접 커다란 가해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핵폭발의 검지(檢知) 식별은 공중이나 수중이 용이하며 지하와 대기권외에서는 곤란하다.

역(逆) 로케트란?

우주 로케트를 달이나 유성에 착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로케트인데 인공위성으로부터 인간용기(艗)를 이탈시켜서 지구상으로 강하시킬 때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로케트의 비행 「스피드」를 낮추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로케트의 진행방향으로 뿜기 위하여 보통 로케트의 반대방향으로 분사하므로 역 로케트라 한다.

소형의 고체연료 로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로케트의 최종단계 또는 위성 본체에 장치된다.

달에 로케트를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시키고자 할 때는 로케트가 달의 인력권(引力圈)으로 들어가서 가속도가 가해졌을 때에 달의 방향으로 역 로케트를 발사하여 달로 낙하하는 속도를 낮추게 함으로써 착륙시에 관측용 기체 등이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결합(結合)과 비결합(非結合)

결합이란 어느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진동이 전하여지는 상태를 말하며 비결합이란 진동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핵실험 금지 문제에서 결합(COUPLING)이나 비결합(DE-COUPLING)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바크너 보고에서부터이다. 동 보고에는 비결합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실험을 은닉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핵폭발의 에너지가 지각(地殼)에 전하여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면 지진의 진동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래터(Latter)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핵폭발을 지하의 적당한 공동(空洞) 속에서 하면 전문가 회의의 자료가 된 레니아 실험의 3분의 1로 지진파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300킬로톤의 핵폭발을 1킬로톤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실험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됴으로써 지하실험을 탐지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게 되고 실험 금지 협정의 의견 일치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수필(手筆)>

인간혁명(人間革命)과 공작교육(工作教育)

김요섭(金耀燮)



몇 해 전에 「나의 사랑 안드리스」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다. 미국 어느 여교사의 수기(手記)다. 한 고아를 길러내는 고심담과 재생의 길이 밝혀져 있는 눈물겨운 책이었다. 6·25를 치루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전쟁의 상처가 피어던 그 책을 읽고 강한 인상을 입은 일이 새삼스럽다.

2차 대전 때 폭격에 안드리스라는 고아가 집과 고향 그리고 어머니를 잃게 된다.

그때마다 안드리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 전쟁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다니게 된다.

모국어가 없는 안드리스의 말은 괴상망측하다.

여러 나라 고아원에서 주위들은 각국 말이 안드리스의 말에는 마구 뒤섞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은 강하나 성격이 거칠기 한이 없다. 무질서한 성격, 논리 없는 그의 사고는 일종의 성격과산자였다.

독일에서 지낸 적이 있어 강박관념도 있었다. 제복을 입은 교통순경만 보아도 길을 가다가 다시 도망쳐 오기도 하고 방공호 같은 데 숨기도 잘 하였다. 나치스에게 입은 상처였다.

전쟁 후 우리들은 정신에 많은 균열을 가지고 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안드리스의 일그러진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끝없이 안드리스가 측은해지고 어린 성격과산자 안드리스를 품에 안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고 전쟁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싶었다.

안드리스에게도 구제의 길은 있었다. 유럽의 고아원에서 안드리스는 어느 미국가정으로 간다.

그 가정의 주인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대학에 가고 혼자서 여교사의 일을 보면서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다. 이 여교사는 고심참담하게 안드리스의 구제의 길을 모색한다.

안드리스의 잘못된 점을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자기대로의 논리로 대들기도 한다. 좀 때려주면 바깥에 뛰어나가 뒹굴면서 이상한 고향과 함께 지랄을 한다.

안드리스의 정신이 정상에 잡아들 길잡이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다.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를 다시 고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재미를 본 안드리스는 장을 들고 집에서 목수 노릇을 한다. 직접 노동을 통하여 무엇을 만드는 기쁨을 안드리스는 얻게 되었다. 안드리스의 정신과 생활에는 변화가 왔다. 질서가 서고 거칠음이 가시어지고 섬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인간이란 너무 지나치게 정신주의에만 기울어지면 악마가 되고 또 지나치게 노동에만 기울어지면 짐승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신과 노동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5·16 혁명 이후 인간 혁명이란 말이 나왔다. 인간 혁명의 방법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근면한 인간, 생산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기생층과 같은 존재는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정신의 아름다운 발전도 귀한 땀의 흘림, 육체적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룩될 수 없다.

나의 직업과 생활

사람은 몸이 건강하여야 한다. 특히 도회지의 탁한 공기 속에서는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 푸르른 나뭇잎들의 재갈거리는 듯한 싱싱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며 힘이 오른다. 얼마나 명랑한 정경(情景)이라.

내가 약업회사(藥業會社)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불건강한 육체를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워 진다. 마음이 무거우면 생각들이 건실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직장에서도 신경질을 부리게 된다. 이것은 다수인의 조화 단결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의 무거움은 우리들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력에서도 빚어지기도 하지만 육체적 조건에서 말미암은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나는 평소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이 어려운 생존경쟁에 이겨나가는 힘이란 강건한 체력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못할 것인가?

이번 5·16 군사 혁명이 착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이때 첫째 국군장병들의 무엇보다 씩씩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육체적 건강은 곧 정신적 건강을 가져왔으리라고 본다.

병든 사회, 고질(痼疾)이 된 사회를 이들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소유자들이 더구나 애국일념으로 구약 일소, 반공체제의 실질적 강화에 주야감투(晝夜敢鬪)하고 있으니 힘 미더운바가 큰 것인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이상적인 생활태도란 무엇보다 건전한 생활을 갖추기 위한 육체적 건강으로 출발하여야 하며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병든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 없앨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병균의 침해를 받기 전에 세심한 주의로 예방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육체의 건강은 곧 마음의 건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김옥교(金玉橋) (가정생활지 기자)

<시(詩)>

6월의 대지(大地) 위에
—혁명군(革命軍) 장병(將兵)에 부치는 노래—

박기원(朴琦遠)

한밤 세찬 폭풍우가 스쳐간 넓은 대지 위에 새로운 아침 햇빛은 한층 더 맑고 아름답다.
산이며 강이며 들판은 지난날의 온통 끄시름으로 지쳤던 낡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넘치어 출렁이는 강물은 번득이는 햇살을 받아 줄기찬 흐름이 대해(大海)로 통하는 거센 흐름이 한창 바쁘고.
산은 청산 파릇파릇 청산은 온통 푸르름에 젖어 파란 하늘이 뻗치면 이내 손에 잡힐 듯 구름 아래 낮았는데.

6월은 아 6월은 우리들의 피가 거꾸로 흐를지라도 참을 길 없었던 그날의 분노가 화덕불 같이 타오르는 적
개심을 복수(復讐) 삼아 씹어보는 달 6·25.

겨레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대의(大義) 앞에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無名勇士)의 비석 앞에 정성어린 꽃
다발을 드린다. 현충일 그날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의 총을 멘 사병의 자세로 경건히 손을 합하여 값진 눈물
을 뿌린다.

그러나 보라. 혁명용사들의 우렁찬 군호(軍號) 앞엔 온갖 불의와 부패는 폐성(廢城)처럼 무너져가고 추악한
무리들의 교활한 꼴들은 낫도깨비마냥 꼬리를 감추지 않았는가.

그것은 정의의 힘이었다. 조국을 도탄에서 구해내고 강토를 전화(戰火) 속에서 지켜온 멸공(滅共)의 투지,
용감한

높은 생산고관 노동력의 체적(體積)이다. 생산이 없는 나라에서나 민족에게서 아름다운 정신의 개화를 바
랄 수가 없다.

어떠한 문화이든지 그 문화 속에는 커다란 노동력이 박혀 있다. 손을 움직이는 일,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은 창백한 지식의 축적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을 어느 단면에서만 바로보아도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의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의 현황은 일방적인 지식주입식 교육이다.

어린이들의 창조활동을 조장할 만한 교육의 실적은 아주 빈곤하다. 전국에서도 가장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서울의 실정을 더듬어보면 현재 100여개교의 초등학교 중 간신히 20여개교가 공작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공작활동은 노동의 귀함을 깨닫게 하며 만듬의 다시 말하면 창건의 기쁨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은 공연히 일류중학교 입학시험 중심주의로 학습의 전체를 지식의 암기에
만 그치고 있다.

국민학교 교사 양성의 주축인 사범학교에는 아직 공작 같은 것은 정과목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인간혁명은 강력한 교육의 혁명을 말한다. 교육의 혁명은 국민학교 교육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장병들의 충의(忠義) 위대한 애국의 정신이었다.

그들은 권세를 모른다. 그들은 금력(金力)을 모른다. 그들은 관직을 탐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과
싸움과 정쟁(政爭)을 일삼던 자들 앞가슴에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날이 있길 바라는 아량(雅量)과 관후(寬厚)
한 민족애가 있다.

그렇다. 그들은 오직 나라를 아끼고 겨레를 사랑하므로 의(義)를 위하여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조를 가졌
고 그들은 자유를 희구(希求)하는 조국의 기둥, 조국의 역사를 창조하는 조국의 용장(勇將)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개를 편히 하고 단꿈을 꿀 수 있는 고요한 밤이 있고,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질서
바른 가도(街道)가 있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는 도의가 있고.

값진 의상과 외국산 파라솔을 들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치가 여인들의 검소한 차림으로 오히려 정이
가는 이웃이 있고.

원장찌개 대신 댄스가 더 구미에 맞는다는 열간이들의 허영의 발굽처가 수치의 녹이 슬고.

황폐한 국토는 건설의 힘찬 깡이 끝에 이랑이랑 옥야(沃野)로 개발되는 풍년의 감우(甘雨)는 나리고.

세계 우방(友邦)은 재건의 실천 앞에 진지한 찬사를 보내오는 반공(反共)의 유대(紐帶), 자유의 단결이 있다
어찌 이것뿐이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살림이 목단 송이처럼 피어나는 이대도록 알뜰한 거리거리엔 벽찬 삶의 기쁨이 바다
처럼 넘친다.

아 별같이 우러러 향시 우리들 앞에 있어 마음 든든한 위대한 이름 혁명 장병의 빛나는 얼굴들이여!

한 맥(脈)에 이어온 우리의 님이 있다 의(義) 앞에 몸을 바칠 우리의 생명이 있다.

피 흘려 지켜온 조국이었다. 살 깎아 찾아낸 강토였다. 한친들 쉽사리 누게 밝히라.

오 나의 조국 찬란한 이름이여.

오 나의 강산 화려한 판도(版圖)여.

<1961 . 6 . 5>

교통도덕 준수를 비롯하여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인간 혁명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국민학교 교육의 재검토와 일대교육의 혁신 단계는 왔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높은 생산력을 가진 풍부한 조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입은 똑똑하지만 실천력이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 폐단이며 오늘의 낙후성을 낳았다.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 입만 영리한 어린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입은 무거워도 무엇을 끙끙거리고 만들어내
는 어린이로 교육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활발한 공작교육의 전개가 필요하다.

미술대회, 음악 콩쿨, 글짓기백일장 같은 것은 서로 다투어 열리나 공작대회는 별로 여는 일이 없다. 깊이
반성 할 일이다.

<필자(筆者)·소년한국일보 취재부장>



군인생활(軍人生活)

이윤근(李潤根)

군인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의 직업은 군인이다.

군대에 몸을 맡긴 지 12여 년. 무슨 일이든 간에 3년이면 전문가 10년이면 대가가 될 수 있다는데……. 정녕
군대에서 뼈가 굵었기에 12년이란 세월이 나로 하여금 전형적인 군인이 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몇몇 친구와 어울려서 야외로 소풍 나가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다.

뒷날 나는 사진의 사복 입은 자신의 모습에 고소(苦笑)를 금할 길이 없었다.

흡사 차렷 자세를 취한 것만 같은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전형적인 군인이랄 수 있단 말인가. 장교후보생과 같이 생활하던 때의 이야기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나에게 대하여 자못 불만이 많다. 당신은 어쩌면 나를 후보생같이 다루느냐……. 횡포한 편은 더욱 아니고 성급한 편도 아닌데……. 무엇이든지 요구해서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다. 누구든 할 일 해보지도 아니하고 말만 앞세우면 마음속에서 불길이 일어난다.

군대의 사명은 국토방위이다. 국가의 독립과 변영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서 처절한 전투간 지휘관의 일 명령하에 일사분란 임무를 위하여 사지(死地)에라도 뛰어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조직 군기, 엄격한 군대 관습, 정신과 육체의 단련이 요구되는 만큼 군대에서 생활하는 지는 모름지기 무거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대생활은 일상 우리에게 인내, 극기, 용기, 강직, 소박 등의 엄하고도 귀한 교훈을 준다.

무인(武人)을 천시하였다던 옛사람들은 좋은 쇠로서 못을 만들지 않는다고들 하였다지만……. 나는 자신이 군인이 된 것을 별로 후회해본 일이 없다.

군인으로서의 자기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군대사회는 일반사회보다 높은 도덕과 질서를 필요로 한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훌륭한 사회인이어야 한다.

진정한 군인이라 모범적인 사회인에게 군대에서 요구되는 덕성을 플러스(plus)하여 준 것이 아니겠는가? 성실하고 검소하라.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아침과 날조(捏造)와 사치를 일소하자. 개인의 영달과 안위만을 꾀하며 교활하게 사는 것만이 처세의 비결인 것 같이 여기며 또한 그러한 자에게 칭송과 선망을 보내던 경박하고 폐퇴적인 사조들이여 이제는 물러가라. 최상의 외교술은 성실이다.

교활한 처세로서 얻어진 영달과 총애는 영속치 않으며 분에 넘치는 사치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주어진 책무에 신념을 가지며 충실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을 발견하라. 신념은 때로 능력에 앞서 요구되는 때가 많다. 책무를 유효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것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자기 책무에 열중할 수 있고 그곳에서 소망을 얻는 자는 곧 행복한 자이다.

군인이기에 배우고 힘써 향상하자. 교양과 기품은 배움 이외의 대가로서는 얻을 수 없는 존귀한 보배이다. 거칠고 매마른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정서(情緒) 생활을 하자. 독서삼매(三昧), 음악 감상, 적호(嗜好)한 스포츠(sports) 등은 우리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진정 지식을 갈구하는 자세를 갖춘 자는 지식의 반 이상을 얻은 자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자.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화목 단결은 개개인의 사소한 인간관계에 그 기초를 둔다.

인간성이 이 세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요구되었던 때는 없었으리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동으로서 표시하자.

〈필자(筆者)·공군 중령(中領)〉



거리에 서서

성경린(成慶麟)

요즘 새로워진 확실히 새로워진 거리를 건노라면 무엇인지 모르는 충족감에 가슴이 뻗뻗해지는 걸 느낀다. 푸르고 싱싱한 가로수의 탓이라도 좋다.

6월의 눈부신 도톰하고 따가운 햇살의 탓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녹음을 스치는 경쾌한 훈풍(薰風), 그런 자연계의 감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 오랜만에 있는 일이란 말이다.

훼손된 깨끗한 거리를 들어야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인 이 나라에 어디 군왕의 행차라도 있던 말인가? 행맹그레한 대로는 막 살수차가 시원히 물까지 뿌려 한결 정갈함을 더하였다.

그 위를 구르는 자동차들의 서서(徐徐)한 행진. 좌우 인도에도 분명히 사람은 밀물처럼 흐르는데 어찌 이토록 의젓하고 조용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말이 없다. 나에게만 안 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미우(眉宇)에서 나는 그들의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자신을 돌이키고 새로운 의욕이 번쩍이는 겨레의 양양(洋洋)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얼마만인가? 정녕 얼마만인가?

8·15의 광복이 그러했다. 미친 듯 감격했던 환희의 도가니, 전차에 매달려 태극기를 휘두르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소리치다가 죽어간 시민도 있었다. 애석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죽어간 그 순간은 또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이를 수 있을까?

도로 찾은 나의 조국과 우리들의 자유. 이것이 길이 보장된다고 하면 한들의 생명쫓은 거룩한 회생으로 여기어도 무방할 것만 같다.

그러나 불행한 민족의 역사는 국토의 분단이란 것으로 금이 가고……. 대한민국의 희생.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선두에는 기마대 대통령기를 필력이며 달린 자동차도 이 포도 위를 오만하게 미끄러져 갔다.

저마다 발소리마저 죽여야 했던 6·25의 석 달—. 9·28의 수복.

간난(艱難)은 곧 너를 옥으로 만든다고 한다지만 하늘은 이 백성으로 장차 무엇을 맡기시려기에 이토록 시련이 준엄하시던 말인가?

그래 또 실항의 슬픔과 환도의 기쁨을 느끼던 것일까?

4·19의 노도와 같은 함성이 거리를 지나갔다. 제2공화국의 정권은 무엇을 두려워하였던 말인가? 두려울 것이 있거나 하였으며 있었다면 분명히 무엇이었던 말인가?

‘불행한 민족이다’라는 국민의 체념한 자조(自嘲)가 무서우리라고는 아예 생각지 못했을 게 아닌가? 이제 무슨 말을 하라?

또 도시 이제 와서 말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너도 나도 이제 정말이지 말을 적게 하고 하나라도 억세게 실행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돌아올 시간이 늦어도 별로 걱정이 안 쓰이게 되었다. 안심하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부터가 다행하고 죄가 없이도 얻어맞고 함부로 강탈을 당하던 거리의 행패는 이제 전설로나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안심할 것은 천만 아닌 것이다.

가사 교통순경과 헌병이 없는 네거리에서도 우리가 일사분란의 질서를 지금모양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여기 있을 것이다.

안될 것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넉넉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글썽…… 하고 회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리가 또 다시 아수라가 되는 경우는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것이다. 우리가 고심참담 겨우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대로 비탈길의 수레바퀴 모양 곤두박질을 쳐서는 만사휴의(萬事休矣)다.

거리는 달라졌다. 강한 포고의 위력만도 아니다. 국민들이 두엇이고 깨달은 것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자포자기에 살기 싫은 사람들의 메다 붙는 율화가 저절로 지난날의 무쾌도한 방종을 빚어낸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다.

살고 있다는 것을 즐기는 국민은 물론 아니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사는 국민이 과거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구경하듯 나의 생활마저 방관하고 살아온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생활에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철학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저들만의 잘못된 생각이라고만 나무랄 수 있단 말인가. 불행한 민족이란 어느 때고 민심을 떠난 괴리된 정치에서 오는 것이요 그런 악정의 책임은 바로 위정자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할 수는 없다. 불행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과감히 실천하여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돌이키는 일이다. 잃었던 나 잊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 일으키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저마다 얼마나 자기를 잊고 쓸데없는 공간을 헤매었던가? 그러나 5·16이 여기에 큰 자극과 계발을 국민에게 주었다면 그만으로도 겨레의 광명이 약속된 것이니 얼마나 경행(慶幸)한 일인가?

6월의 뜨거운 양광(陽光) 아래 시민들의 가벼운 옷차림이 몹시 신선하고 청초해 보인다. 어제의 무의미한 행렬이 아니다. 남녀 없이 약동하듯 발랄한 발걸음에 나는 뿌듯한 충족감을 혼자 아무만지고 이렇게 부러운 듯 서있는 것이다.

〈필자(筆者)·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악사장(樂師長)〉



☆진정한 사랑☆

정 대감(정홍순鄭弘淳)이 사위감을 정해 놓고 부인에게 결혼 비용을 물었다. “이번 혼인에 혼수(婚資)가 얼마나 들겠소?”

“800량은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당일의 연수(宴需—잔치 음식)가 있어야지 그것은 얼마나 있어야 하오?”

“연수에는 한 400량쯤 들겠죠.” “그럼 도합 1,200량을 가져야 하겠군?”

그러나 혼인날이 임박해 와도 종로(鍾路) 저자에 부탁해 두었다고만 말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일껏 일러두었는데도 아직껏 이놈들이 안 가져오는군요.”

부인은 이렇게만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마침내 혼인 전날이 왔다. “이젠 별 수 없으니 그저 집에 있는 술이나 하고 음식을 좀 만들어 지내게 하오.”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서로 다룰 염의도 없어 부인은 할 수 없이 되는데로 혼인날을 지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사위가 장인을 뵈러 왔다. 때마침 비가 내리므로 갓모와 나막신을 사위에게 내어 주면서

“이 갓모 쓰고 나막신 신고 네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우리는 네 밥을 차비하지 않았고 네 집에서 이미 준비해둔 밥이니 해놓은 밥을 버리고 안 해놓은 밥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어서 가거라…….”

이 말에 사위는 화가 별컸다. 그길로 집으로 가서 다시는 처가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 대감은 사돈에게 편지를 해서 사위와 딸을 불러왔다.

“그동안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하고 어디를 좀 같이 가자.”

이리하여 사위와 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가자는 대로만 따라 갔다. 얼마를 걸어갔다 정 대감은 어느 집으로 들어섰다.

“이것은 너희들 집이고 너희 살림살이다. 너희들이 혼인할 때 너의 어머니에게 물으니 혼사비용이 1,200량이 든다기에 무용한 비용을 쓰기보다 실속 있게 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또 시골에다가 너희들이 지낼 만치 땅을 장만해 두었으니 그리 알아라.”

사위와 딸은 너무나 감격하여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미사일의 역사(歷史)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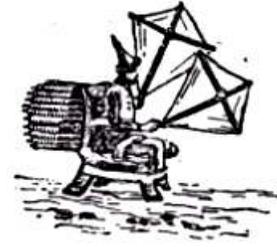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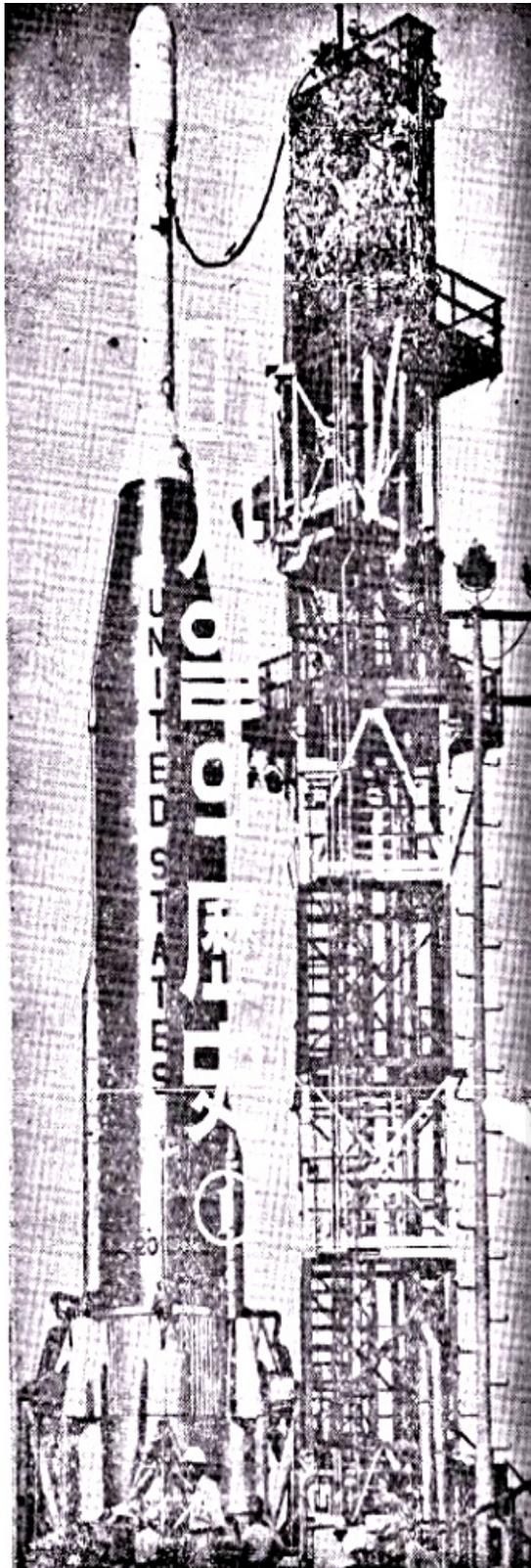
미사일의 기원

인류가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5·6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수렵이나 혹은 자신의 방위를 위하여 근처의 돌을 주워서 새나 짐승에게 팔매질을 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옛날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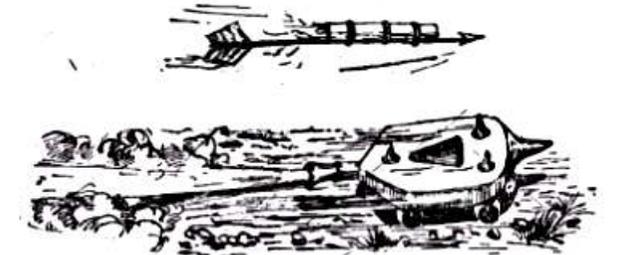
맑게 개인 날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 인류의 조상은 목표를 벗어나 크게 호(弧)를 그리며 낙하하는 돌과 사라져 가는 새의 자취를 바라보다가 그 던진 돌에 두뇌가 있어서 스스로 새를 쫓아 간다면 얼마나 좋으랴……하는 몽상을 하였을 것이다. 미사일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광경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미사일의 가장 소박한 개념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 후 노(弩)가 발명되고 다음에 화살이 발명되어 미사일은 차차로 기계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원시시대는 차치하고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고 흥미 있는 것의 하나로 기원전 360년경 알키다스라는 사람이 소위 목조(木鳥)라는 것을 제작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이 목조는 그 어떤 교묘한 장치에 의해서 관중 앞을 자력으로—즉 어떠한 추진력에 의해서—날아갔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한 개의 장난감이라고 하겠으나 벌써 근대적 의미로서의 훌륭한 미사일의 하나였음이 확실하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화살(矢)은 가장 원시적인 미사일의 한 형식이며 활(弓)은 다시 말해서 발사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화살이라는 미사일은 수렵이나 전쟁무기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다. 가령 옛날 「사기(史記)」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시문(矢文)이 그 하나이다. 화살에 편지를 붙들어 매서 이것을 멀리 있는 상대방에 쏘아 보낸다고 하는 따위의 사용법은 오늘날 시험 중인 우편 미사일이나 더 크게 말해서 소위 달로켓과 규모의 차는 있을망정 그 착상(着想)에 있어서 아무런 틀림이 없는 것이다. 기원 1,200년경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미사일의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 화약이 발명된 지 얼마 안되는 1,232년에 몽골 침략군을 맞아 중국군이 새로운 무기로서 소위 '날오는 화사(火矢)'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화살에 송진 같은 것을 집어넣어 목표물을 쏘면 불이 나도록 되어 있는 이 불화살은 그보다도 더 옛날에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날오는 불화살'은 그것의



1,500년경 중국의 한 관리가 로켓 비행을 시험



1232년 중국군이 사용한 '날오는 불(火) 화살' (위)
1405년 독일군이 고안한 로켓 병기(아래)

개량형이 아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본체는 바로 로켓이었던 것이다. 이 불화살은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기 위해서 화살의 날개가 후미(後尾)에 달려 있고 선단(先端)에 화살촉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전체의 모양에서 볼 때 화살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지만 그것은 활(弓)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발진하고 비행하고 명중하였던 것이다. 이 공방전에서는 폭탄도 사용되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뜻에서 근대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쟁이었던 모양이다.

그때로부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1241년에는 몽골군이 유럽에서 최초로 로켓 화살을 쏘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출현이 충격적인 위력을 나타냈을지를 상상할 수 있다.

13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의 업적으로 화약이나 로켓에 관한 지식은 유럽에도 퍼졌다. 1280년에는 핫산 엘 라마라는 사람이 수상(水上)에서 육상 목표를 공격하는 일종의 어뢰(魚雷)를 설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1379년에는 어느 전쟁에서 도시를 방위하던 군대가 탑 위에서 로켓 화살을 쏘아 적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다고 한다.

선구자(先驅者)들의 노력

로켓 기술은 15세기에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이것을 응용한 미사일도 많이 나왔다.

1405년 독일의 한 군사과학자는 로켓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세 가지 로켓의 가능성과 그것이 무기로서의 응용가치를 논술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인 요아네스 데 폰타나(Johannes de Fontana)도 그의 저서 가운데서 토끼, 비둘기, 물고기 같은 모양을 한 로켓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다 밧줄을 끌게 한다든지 불을 붙여서 적진으로 보낸다는 기발한 이론을 발표하고 또한 어지간히 실현성 있는 로켓차의 형상도 실리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실제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로켓 과학사상을 전파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15세기에는 대포나 그밖에 소화기(小火器)가 많이 발달되어 전쟁에 쓰여졌기 때문에 원시적 로켓 무기를 능가하여 무기로서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로켓 무기는 점차로 구식화되고 그 후 거의 3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전장에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차분한 연구로 말미암아 현대 미사일 과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귀중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1500년경 중국의 '옹후'라는 한 관리가 로켓 추진비행을 시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옹후는 좌석 양측에 커다란 두 개의 연(薦)을 고정시켜 놓고 좌석 후방에는 로켓 47개를 장비한 후에 좌석에 앉은 옹후는 부하에게 명령해서 47개 로켓에 한꺼번에 점화를 시켰다. 그러자 로켓은 불길을 내뿜으며 어마어마한 폭음과 함께 폭발하였다. 불길과 연막이 걷힌 뒤 보니 옹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시커멓게 흩어진 잔해만이 이 불행한 선구자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트라스나 인공위성도 최초의 일발(一發)은 발사대 위에서 폭발해 버리지 않았던가? 누구라도 이 옹후의 시험을 웃음거리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인류 최초의 로켓 비행은 참혹한 결과로 끝났던 것이다.

16세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1550년에 라인하르트 폰 솔트스 백작이 고안한 패러슈트로 회수하는 로켓·미사일의 발표이다. 이 로켓 회수의 실험은 결국 해 보지 못한 모양이나 그 착상의 의의를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서서 뉴턴이 근대 역학의 기본이 되는 운동의 3법칙을 발표하여 이것을 적용한 반동 추진 기관이 여러 가지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사적 가치의 저하로 16세기 17세기를 통해서 자취를 감추었던 로켓·미사일은 겨우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즉 1789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마이소르 왕국과의 싸움에서 마이소르군이 편성한 세계최초의 미사일 부대가 크게 전과(戰果)를 올렸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아 영국의 유명한 콩그리브(Congreve) 군용 로켓·미사일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근대 미사일사(史)의 출발점이 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에는 또한 인류가 항공의 역사를 마련한 때이기도 하다. 즉 1783년 10월 15일 프랑스의 몽골피에(Montgolfier) 형제가 열공기를 이용한 기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파리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같은 프랑스인 아베 미오랑이 기구의

열공기를 이용하여 로켓 분사식으로 기구를 조종하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마시일과 항공기라는 두 개의 혁명(革命)이 때를 같이 하여 본격적 출발을 한 18세기 말은 근대 과학사상 빛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초유의 미사일 부대

마이소르 왕국에서 세계최초로 미사일 부대가 편성되었음은 전술하였거니와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황태자인 하이델 아리 공(公)으로서 1780년까지 그 대원수가 1,200명, 장비한 로켓탄은 무게가 27 내지 50kg쯤 되는 것인데 길이가 약 20cm, 직경이 약 3.8cm 되는 철통에 고체화약을 꽉 차게 집어넣은 것으로써 이것을 긴 대나무에 붙들어 매어 비행중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정거리는 최대 2.4km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마이소르 왕국은 영국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동안 1789년에서 1799년에 걸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아리 공이 지휘하는 미사일 부대는 크게 활약을 하여 영국군에 많은 손해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1792년 세링가파탐(Seringapatam) 지방 싸움에서는 2km 이상 떨어진 영국군 기병대에 로켓탄 공격을 가하여 당시 영국군 지휘관인 제러드 대령의 보고에 의하면 로켓탄 일발에 전사자 3명과 부상자 4명을 내었다고 한다. 물론 모든 로켓탄이 전부 이만한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어쨌든 사상 최초의 미사일 부대가 절대(絶大)한 전과를 올렸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와 같은 위력이 유럽에 전해지자 특히 영국육군이 받은 충격은 컸었다. 이리하여 우선(爲先) 영국군사 연구소(Royal military Laboratory)에서 로켓 병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뒤이어 1800년에 로켓 병기 연구를 시작한 윌리엄 콩그리브 씨의 성공으로 근대 미사일사(史)는 눈부신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 군을 공격

근대 미사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콩그리브 씨가 처음으로 로켓 병기의 테스트를 개시한 1801년에 그는 아직 29세의 청년이었다.

콩그리브의 로켓 연구는 그야말로 ABC부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는 우선 화약상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불화살 따위를 사서 그 구조를 조사하고 또한 실제로 시사(試射)도 해보았다. 그런데 이 기성 로켓은 기껏해야 450-550m밖에 날지 못하는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콩그리브는 다음해 즉 1802년에 손수 만든 로켓·미사일을 1,800m까지는 확실히 날 수 있게 개량하는 데 성공하였다.

1805년에 콩그리브는 당시 정부 고관이나 장군들 앞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전란 중에 있던 영국으로서의 이 비밀무기를 즉시 실전에 써먹기로 하였다.

이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1803년부터 시작된 나폴레옹 군과의 결전이었다. 그리고 콩그리브·로켓이 완성되었을 무렵에 도버 해협(對岸)에 포진하고 있던 나폴레옹 군은 부로뉴 부근에 대군을 결집하여 호시탐탐 최후의 목표인 영국 본토를 노리고 있었다.

1805년 10월 콩그리브·로켓 미사일을 장비한 영국해군은 부로뉴에 집결하고 있는 프랑스 함대에 최초의 공격을 가하였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이 공격에서의 상세한 상황이나 전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영국해군은 수척의 조그만 배에 로켓탄 발사 장비를 갖추어 부로뉴만(灣)을 습격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콩그리브 □□이 쓴 수기(手記)를 보면 ‘공격용의 적은 배들은 세찬 폭풍우로 많은 장애를 받았다……’고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를 폐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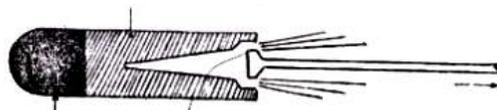
1805년 11월 21일 콩그리브·로켓탄을 장비한 영국 소함대의 두 번째 공격도 실패로 끝나고 겨우 2척만이 간신히 로켓탄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거의 같은 때 저 유명한 넬슨 제독이 스페인의 대함대를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상에서 격파하였다. 이 결전에서 승리로 말미암아 영국해군의 제해권(制海權)은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고 콩그리브·로켓탄에 의한 기습 공격 등은 그 필요성이 희박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불(對佛) 전쟁의 계속과 더불어 1806년 말에는 다시금 프랑스 연안 공격의 필요가 생겨 콩그리브·로켓탄이 등장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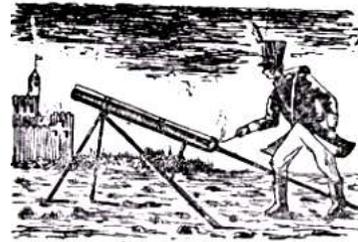
이 셋째 번 공격은 대성공이었다. 200발의 로켓탄이 부로뉴에 퍼부어져 도시의 태반은 귀중한 군사물자와 더불어 불타버리고 말았다.

더욱 대규모적인 미사일 공격은 1807년에 또다시 영국해군에 의해서 감행되었는데 공격 목표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으로써 해상에서

화약으로 가득 찬 로켓 탄체



철제 탄두



콩그리브 로켓의 발사 광경

퍼부어진 25,000발의 동(同) 로켓 세례탄(洗禮彈)을 받은 코펜하겐시(市)는 화재와 파괴로써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어서 1809년에는 프랑스 함대를 베이른 부근에서 공격하였고 또한 1813년에는 단치히(Danzig) 및 라이프치히(Leipzig) 회전(會戰)에서 모두 콩그리브·로켓부대가 크게 활약하여 이 영국의 비밀병기는 굳건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1812년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전투가 있었다. 이 해에 워싱턴 부근인 체서피크만(Chesapeake Bay)에 상륙한 4,500의 영국군은 미국의 민병들과 메릴랜드주(州) 블라텐스버그에서 싸웠는데 이때 영국군은 미군 진지를 로켓탄으로 공격하여 2개연대의 미군은 큰 혼란 가운데 패주(敗走)하고 영국군은 일거에 워싱턴으로 침입하였던 것이다.

콩그리브·로켓이란?

이와 같이 근대 미사일사의 첫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콩그리브·로켓이란 대체 어떠한 것이었던가? 콩그리브·로켓의 구조는 종전의 로켓과 그다지 큰 상이점은 없는 것이었다. 개량되었다는 점은 주로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조작이나 설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초기의 콩그리브·로켓은 실용성이 그다지 없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것은 1806년 봄부터였다. 즉 이때부터 콩그리브는 탄체(彈體)를 지제(紙製)에서 철제(鐵製)로 바꾸고 8파운드, 12파운드, 32파운드, 42파운드 이렇게 각종 형을 생산하였는데 폭탄처럼 뇌관(雷管)단 것, 산탄을 집어넣은 것, 화약을 집어넣은 것 등 실로 다종다양하였다고 한다.

32파운드형의 구조를 예로 든다면 탄두는 원추(圓錐)형의 철제이고 탄체는 약 1.07m 직경은 약 10cm로서 그 사정거리는 약 2,700m쯤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로켓탄체 후미에 비행중 안정을 잡기위하여 긴 붓을 달도록 한 것은 콩그리브 씨의 착상이었다고 한다.

이 안전붕의 길이가 처음에는 7.6m나 되었으나 그 후 실험결과에 의해서 이 길이를 줄여 취급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로켓의 추진체는 연소속도가 느린 특수한 화약이었으며 탄체 후부는 다섯 개의 분출구가 뚫린 철판으로

<영화 해설>

12 ANGRY MEN [12인의 노한(怒漢)]



미국영화 「12인의 노한(怒漢)」은 강렬한 휴머니즘에 입각하는 사회교육적인 작품으로서 제7회 베를린(伯林) 영화제 촬영우수작 수상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상을 받은 이색 작품이다. 이 영화는 미국이 배심원제도가 얼마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과 「옳다」고 생각하는 군은 신념이 끝내는 승리한다는 인간의 양심과 윤리를 스릴러 수법적인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해설> 이 작품은 수법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종(始終) 같은 실내에서 전개되는 어려운 이야기를 간결한 터치로서 묘사하고 있다. 배심원(陪審員)으로 등장하는 12명의 배우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TV 브로드웨이」의 명성격(名性格) 배우로 구성되었고 몽타주도 O·L이나 플래시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같은 앵글의 컷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영화의 제작에는 뉴욕 시내의 많은 재판소의 배심실(陪審室)이 참고되었고 미국의 배심제도가 얼마나 인권 옹호를 위한 신중한 제도인가를 하나의 교묘한 살인사건 공판을 둘러싼 긴박한 대립 속에 감동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야기> 이 얘기는 뉴욕의 한 법정에서 시작된다. 살인사건의 심리(審理)가 끝나자 12명의 배심원들은 평결하기 위해 배심실로 돌아왔다. 피고는 평소부터 불량하다고 지목되어 온 17세의 소년이며 실부(實父)를 켄 나이프로 자살(刺殺)했다는 것이다.

이 날은 금년 여름철 중에서도 살인적인 더위였다. 12명의 배심원들은 모두가 더위에 지쳐 빨리 판결을 짓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선풍기 앞에서 잠을 잤으면 하는 생각들이 얼굴에 완연히 떠오르고 있었다.

제1회의 평결은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11명이나 되어 압도적이었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8배심원 단 한 사람이다. 그는 말하기를 피고는 빈민가에서 자라나 9세 때 모친을 잃고 피살된 부친은 전과자이니가 소년이 흥포성을 가짐직도 하나 고생스러운 17년을 보내왔으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범죄 사실이 있어서도 뚜렷한 알리바이를 이 자리에 제시할 수는 없으나 유죄로 단정 지을 만한 증거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배심원은 증거를 낭독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방 바로 아래 살고 있는 독신노인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밤 12시 10분에 큰소리로

막고 이 중심부에 안전봉을 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로켓의 발사대는 동제(銅製)의 삼각대를 썼으며 발사각은 55도에서 60도각으로 최대 사정(射程)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발사대에서 중량이 큰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데서 콩그리브는 해군의 함상(艦上) 무기로서의 로켓탄의 가치를 강조하고 적은 배를 가지고도 거함(巨艦)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제2차 대전 중에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평화적 용도를 모색

콩그리브형의 로켓 병기는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제작되어 사용하였다. 예컨대 네덜란드군은 세레베스(Celebes) 섬 전투에서 로켓탄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러시아군은 1828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로켓 병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1840년대까지인데 그 후 약 100년간은 전장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유는 분말화약을 쓴 로켓으로서의 콩그리브형 이상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출발된 근대 미사일은 그 서막에 있어서는 피비린내 나는 불길한 것이었으나 그들에는 평화적인 용도도 연구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806년에는 프랑스의 클로드 르주리는 사람이 패러슈트가 달린 로켓·미사일에 적은 동물을 실어서 발사하였다. 이 의의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는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루줄 시의 의도가 인류의 로켓 비행의 가능성을 시도한 것만은 확실한 것이다.

1819년에는 덴마크의 한 선장이 슈마허 씨가 신호용 로켓을 제작하였다. 비상시에 신호용으로 소형 로켓을 사용하려는 연구 노력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후 1841년에는 영국의 고라이틀리(Golightly) 씨가 영국 최초의 로켓 추진식 항공기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많은 특허와 같이 단지 이론 이상의 것이 못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점철되는 가운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발명이 나타났다. 그것은 1847년 처음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 합성되어 종래 효율이 얇은 분말화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로켓의 성능이 이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예고(豫告)>

7·17 정신과 5·16 정신의 귀일점(歸一點)

(코메트 47호에 게재)

「죽일 테다」하고 소리치는 소년의 고함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곧이어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기에 노인이 베드에서 내려와 복도에 나가 보니 피고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슴에 나이프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체포된 피고는 그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알리바이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제10배심원은 큰길 건너편에 고가철교를 사이에 두고 살인이 벌어졌던 방과 맞보는 위치에서 살고 있던 올드미스가 때마침 통과한 빈 열차의 차창을 통해서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제6번 배심원은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부자(父子)가 그날 밤 말다툼을 했다고 증언했음을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제8배심원은 목격자는 한 사람뿐이고 피고가 달아나는 뒷모습을 본 사람도 하나뿐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착각일지 무엇으로 보장하겠느냐고 주장하였다. 배심원들은 흥기인 나이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나이프를 피고는 살인이 있던 밤에 구입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칼을 포켓의 구멍에서 떨어뜨려 잃어버렸으므로 잃어버린 뒤 법정에서 제시될 때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르자 제8번 배심원은 돌연 일어서서 지가 포켓에서 똑 같은 나이프를 꺼내 일동에게 보이면서 몇 마디 설명이 가해졌다.

두 번째의 평결이 시작되었다. 이 평결은 무기명투표로서 이루어졌다. 유죄가 10표에 대하여 무죄는 제8번 외에 한 사람이 늘었다. 동조자가 생긴 데 힘을 얻은 제8번 배심원은 피고의 부친은 난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또 살인을 목격한 여자는 고가철교 통과 시 범인을 보았다고 하지만 맹렬한 소리를 내고 열차가 통과할 때 어떻게 노인이 피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하몬·트로피를 탄 3명의 X-15 조종사

1961년도의 하몬 국제항공사상(賞)은 세계에서 가장 속력이 빠르고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조종사 3명이 타게 되었다.

로켓 추진식 X-15 연구용 비행기를 조종함에 있어서 '비상하게 우수한 개인 조종기술을 발휘'하여 이 상을 공동으로 타게 된 사람은 노스·아메리칸 항공회사의 A·스캇·크로스필드, 미 항공우주국의 조셉·A·위커, 그리고 미 공군의 로버트·A·화이트 소령이다.

전통적으로 매년 백악관에서 미국대통령에 의해서 수여되는 이 상은 과학 실험 및 세계적인 의의를 가진 연구와 관련하여 항공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올린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찰스·A·린드버그가 1927년 하몬상을 처음으로 탄 이래 이 트로피는 3명의 조종사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3명의 조종사는 세계고도 및 고도기록을 포함하여 1960년에 실시된 일련의 X-15 실험비행에서 이와 같은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 그들이 세운 기록은 같은 X-15에 의해서 갱신되었다.

1961년 5월 29일에 세운 시속 3,307마일이며 현 고도기록은 역시 위커 씨가 금년 4월초에 세운 169,000피트(약 32마일)이다.

시속보다 두 배나 빠른 비행을 처음으로 한 사람인 크로스필드는 추력(推力) 57,000파운드의 로켓·엔진을 장치한 X-15기로 첫 조종을 시작하였다.

1960년 11월 15일에 있었던 그의 첫 비행은 발동을 완전히 꺾다 꺾다 할 수 있는 로켓·엔진의 비행기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인(有人) 비행이었다.

이는 또한 추력 50,000파운드의 로켓·엔진을 사용한 최초의 유인 비행이었다.

그 후 크로스필드씨는 비행중 엔진을 정지하고 발동하는 데 성공하여 엔진의 완전한 폐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위커 씨와 화이트 소령은 X-15기의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였다. 1960년 8월 4일 위커 씨는 시속 2,196마일을 날려 당시 세계기록을 236,500피트의 높이까지 올라갔다.

지난 6월 18일 평의원들은 하몬상의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지상조종이나 기상자동조종이 아니라 인간조종사가 조종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위의 궤도나 외계를 비행한 사람들이 수상후보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두 번째 평결에서 무죄에 가담한 제9번 배심원은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제11번 배심원은 만일 소년이 범인이라면 왜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집에 돌아왔을까? 하는 새로운 의문을 제시했다.

세 번째의 평결이 시행되었다. 이번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4명으로 증가하였다. 제8번 배심원은 제4번 배심원에게 전 주일에 본 영화의 제목과 스타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제4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소년이 보았다는 영화도 제4번 배심원과 동일한 것이며 소년은 제목과 스타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음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서 알리바이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제2번 배심원이 피해자의 상처에 관해서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의 의문이란 나이프가 아래쪽을 향해 꽂혀 있었는데 소년은 5척7촌이고 부친은 6척2촌이며 잭나이프는 반드시 위쪽으로 찌르는 것이니까 키가 작은 소년이 찌러서는 이 각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네 번째의 평결은 무죄 대 유죄가 반전하여 9대3이 되었고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완고한 제3번과 냉정한 제4번 그리고 광신적인 제10번의 배심원들이었다.

그러자 제4번 배심원이 무의식중에 코의 양쪽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안경을 썼던 자국을 지우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제9번 배심원이 증인으로 나섰던 여인도 같은 동작을 하던 것이 생각에 떠올라 법정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근시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제8번 배심원이 제9번 배심원의 말을 받아 안경을 쓴 채로 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피고가 살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그 여인의 증언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증언이 거짓말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리하여 유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은 제3번 단 하나뿐으로 남았다. 제8번은 제3번에게 어쩌서 유죄라고 믿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3번은 소신을 말했으나 논지가 제3자에 통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여 무죄 측으로 전향한다.

드디어 배심원의 다섯 번째 평결은 전원 일치 무죄로 결정되고 법정을 나선 12명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여름 햇볕이 뉘웃지는 거리로 흩어져갔다. (유기영)

(코메트 47호 · 8월 10일경 발행 예정)

쿠웨이트 정세(情勢)

★사태의 발단과 진전

지난 6월 25일 이라크의 카셈 수상의 갑작스런 쿠웨이트 통합 성명은 중동 제국(諸國)은 물론, 특히 영국에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쿠웨이트는 이라크 영토의 일부다」라는 카셈 성명이 발표되자 26일 영국은 「쿠웨이트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쿠웨이트에 파병할 것이다」라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되고 수상치 않은 공기가 중동지구를 감싸게 하였다. 27일에는 미국도 쿠웨이트의 독립을 지원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통일 아랍 공화국을 비롯한 아랍 연맹의 태반이 쿠웨이트에 편들었다. 30일 카셈이 1일에는 군대를 쿠웨이트에 진격시킬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영국의 중동군이 이동을 개시하는가 하면 쿠웨이트 정부의 정식 요청에 의해서 영군이 쿠웨이트에 진주(進駐)하기에 이르렀고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군원(軍援)을 요청하여 중동에는 아닌 밤중에 별집을 쑺시는 소동이 일어났다.

쿠웨이트는 이날 유엔안보이사회의 긴급소집을 요청하여 익일에는 일요일임에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 현 사회에서는 이라크는 영국의 파병은 위기를 조성한다고 개격(改擊)한 데 대하여 영국은 이라크가 침략위협을 해소하면 즉각적으로 철병할 것이라고 반격하였다. 그러나 카셈 수상의 쿠웨이트 병합 선언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따라서 이라크가 완전 고립된 것도 사실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분쟁을 기를 삼아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 소련이 이 사태를 놓칠 리 없다. 약 1주일간을 잠자코 있던 소련이 영국이 도리어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있으니 이라크 규탄을 중지해야 한다고 안보리에서 주장하는가 하면 더욱 괴이한 것은 아랍 공화국은 처음 이라크가 아랍 연맹을 위협한다고 연달아 이라크를 공격해왔음을 깜빡 잊은 듯 태도를 표면(豹變)하여 소련에 동조하기 시작함으로써 쿠웨이트 사태는 정작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쿠웨이트의 이력서

그러면 쿠웨이트란 어떠한 나라인가? 그 이력서를 간단히 들추어 보자. 페르시아만(灣) 막바지 이라크의 남단에 있는 면적 불과 15,000여 평방km의 소토후국(小土侯國)이다. 인구 약 21만(1958년 추계)이고 절반이 쿠웨이트인이며 나머지는 인근 각국에서 들어온 이민(移民)들이다. 그런데 쿠웨이트는 중동 제1의 석유산출국이며 연산 약 8천만 톤, 채굴이권료만도 연 3억불에 달한다. 이 3억불을 왕족비, 저금을 위한 영국 공채구입비, 그리고 민정비로 3등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연 2천불로서 미국보다 높으며 그 위에 교육비, 의료비 등은 무료로 되어 있는 부유한 나라이다. 한때 쿠웨이트는 터키의 보호하에 있었다. 터키의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이었었는데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연장 등에 대항하기 위해 1899년에 무기, 재정원조와 교환조건으로 영국 이외에는 영토의 할양(割讓), 대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고 피보호국이 되었다. 그 후 1914년 쿠웨이트는 영국 보호하에서 독립국으로 승격되었고 지난 6월 19일에 영국으로부터 외교권을 획득하여 거의 완전 독립국이 되었는데 영국은 쿠웨이트로부터 그의 전 소비량의 약 40%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영국 경제는 쿠웨이트와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카셈 선언의 근거

그러면 이라크의 카셈 수상은 어떠한 근거에서 쿠웨이트가 이라크 영토의 일부이며 병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따지고 보면 그 이라크도 한때는 터키의 치하에 있었다. 그 당시 현재에 이라크의 일부가 되어 있는 바스라주(州)에 쿠웨이트가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카셈 선언의 논거인 것이다. 카셈 수상은

(37면에서)

비치면 검게 비쳐서 검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백지와도 같아서 붉은 물을 칠하면 붉게 될 것이요 푸른 물을 칠하면 푸르게 되는 것이다.

이 무구무애(無垢無埃)한 맑고 깨끗한 심경(心鏡)에다 악을 비취주면 악이 물들 것은 물론이요 선을 비취주면 선이 물들 것인 정칙(定則)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사람이 어려서 아주 그 심경에 아무것도 물들지 아니하였을 때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서 물들여주는 것이 우리네 가정에 있어서 부모 형제자매들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그날부터 도시는 물론이요 농촌에 이르기까지 부유계급으로부터 저 아래 조석(朝夕)이 간 데 없는 세궁민(細窮民)에 이르기까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소위 정치라는 데 그 총력을 기울여 열중하여 철없이 날뛰는 바람에 어느 겨를에 침착하게 가정에 앉아서 자녀들의 교훈에 머리를 쓸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그 다음 둘째로 닦쳐온 것이 그 절치부심한 6·25 동란인 것이다.

이 동란으로 말미암아 일부 모리(謀利) 정상배(政商輩)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생활고에 부딪치게 되어

쿠웨이트情勢

컷 사진은

쿠웨이트

시가(市街) 전경



1901년에 쿠웨이트의 수장이 바스라주 종주(宗主)에게 충성을 맹서(盟誓)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1899년의 영·쿠웨이트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은 터키 통치의 당시에는 이라크가 독립국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쿠웨이트는 현재 엄연한 독립국으로서 국제적 제(諸)기관에도 가입하여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아랍 연합 및 중동 제국이 쿠웨이트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어 카셈의 입장이 고립되었던 것인데 소련과 통일 아랍 공화국의 태도 돌변으로 쿠웨이트 사태를 미묘화(微妙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카셈 선언의 복선(伏線)

카셈 수상이 정작 쿠웨이트를 들어먹으려는 궁심이 아니라든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미루어보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리 쉽사리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째서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폭탄적인 선언을 하였을까? 여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국민의 관심을 대외로 돌림으로써 국내 체제의 재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혁명 이후 관료들의 태만으로 능률이 저하되고 수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입이 부진하여 국내경제는 인플레이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위에 지난 5월에는 가솔린세(稅)를 인상하여 택시 파업이 3일간 계속하는 바람에 전국의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는가 하면 군대가 출동하는 등 긴박성을 가져와서 7월 14일을 무사히 넘기기에는 이러한 제스처가 필요했다는 견해다. 소란이 일어났다. 엄중한 보도관제로 이 소식이 외부에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택시 파업은 국민의 이해적인 지지를 받았고 카셈 수상은 부득이 세금 인상령을 철회했던 것이다.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국내 사정으로 7월 14일의 혁명기념일을 앞둔 그로서는 아닌 밤중에 무엇 식으로 난데없는 쿠웨이트 통합 선언이라는 공포(空砲)로써 국민의 관심을 대외로 돌리게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둘째로는 석유에 관한 대영교섭을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보자는 궁심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다. 쿠웨이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국은 이라크에서 석유 광산 공장 등을 경영하고 있는데 만일 쿠웨이트 문제로 영국과 승강이 커지면 이라크는 국내에 있는 이러한 영국 재산을 접수할 수도 있고 석유이권료의 인상을 피하기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 석유의 국유화를 목표로 영국석유회사와 교섭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석유회사는 쿠웨이트의 요구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회담이 중지되어 있지만 오는 8월에 재개될 예정인 것이다. 그래서 금번(今般)에 쿠웨이트 문제를 들고 나온 카셈이 8월에 재개되는 교섭에서 현재까지의 이권료 50%를 60% 정도로 인상 요구하는데 유리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배짱일지도 모른다.

셋째로는 중동의 주도권을 장악해보자는 책략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다. 이라크와 아랍 통일 공화국은 건원(犬獫)의 사이로서 낯설의 기세를 꺾어보자는 생각이다. 6월 19일 쿠웨이트가 독립하자 낯설은 쿠웨이트에 축전을 보내는가 하면 영사관을 열고 싶다고 말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카셈은 목은 인연을 이유삼아 쿠웨이트에의 주권 요구를 내걸어 이라크의 의도를 세계에 선포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받자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이유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점이 있다면 카셈이 쿠웨이트에 대하여 군사 행동을 일으킬 만한 긴박한 성질의 것은 아니고 쿠웨이트의 독립을 기틀로 한 번 세계의 시선을 이라크에 집중시켜 대내·대외적 효과를 거두어 보자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카셈 수상은 미국에 대해서 쿠웨이트 통합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수단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명(言明)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날 그날의 생활을 위하여 그 비용을 조달하고 구득(求得)하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서분주하라. 일신(一身)의 안위를 위하여 전전궁궁하라.

어느 곁에 안정된 정신으로 소비할 여유와 시간이 있었는가—

이렇게쯤 되니까 자기집 여자가 밖에서 어떠한 친구와 어울리며 추측하는지 착한 짓을 하는지 악한 짓을 하는지, 그저 앉아서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이쯤 생각하고 거의 방임 또는 무관심 상태에 두어두는 것이 십상팔구(十常八九)였던 것이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육이 이쯤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듯 가정교육은 가정교육대로 퇴폐하게 되었으니 그 아이들이 선도(善導)될 리가 만무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2의 국민들을 위하여 과거 그러하였던 주위와 환경을 하루 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제2세대로 하여금 선과 악의 구분을 분명히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그들의 착념(着念)을 달리하여 악에 물들지 않도록 선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명랑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筆者)·수필가>



애정이전(愛情以前)

박영준(朴榮濬)
(그림 · 백영수(白榮洙))

내가 죽은 뒤 그분 입에서는 틀림없이
“미친년”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미친년 소릴 듣기 싫어서는 아닙니다. 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내 죽음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나는 달갑게 유서를 남길 것입니다. 유서란 마지막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유서를 남긴다고 해도 그분은 미친년이란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안 할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철저한 분입니다. 내가 그분과 결혼해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분이 남 칭찬하는 말을 한 마디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미친놈이 아니면 똥 같은 놈입니다.

남을 좋게 해석하고 남을 존경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을 헐어 내리려고만 합니다.

길을 가면서 같이 가는 사람과 유쾌하게 웃는 것을 보아도 그저 ‘미친놈’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났기에 남을 그렇게 욕만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잘나지 못한 사람이기에 남을 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합니다만…….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만말이 시집가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미쳐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려가며 하소연을 할 때 그분은 우선

“미친년, 울기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딸에게 어찌 미친년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뒤 하는 말이
“이혼을 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참고 달래야 한다니까 그분은 나에게도
“미친 소리 작작해”

하고는 그런 남자와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똥 같은 놈을 혼을 내 줘야 한다고 하며 쌍별죄로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남자인 만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뜯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에도 그 말에 불복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이혼을 하면 비록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손해 보는 것은 여자니까요. 세상이 뭐니 뭐니 해도 이혼하고 돌아오면 그 여자는 현 여자가 되고 맙니다. 동시에 불량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장에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딸애가 시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또다시

“미친년— 사내 기갈병이 들렀나?”

하여 돌아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어울린 여자를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되는 분이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 딸애가 시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만 더 쉬다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애가 아버지 몰래 시집엘 가더니 그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왔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때 딸애도 울지도 않으며 하는 말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안했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똥 같은 남자라는 말씀대로 이혼 소송이나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잘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자기가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좋아한다는 여자가 바(Bar)의 여급이랍니다. 그런 여자와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오래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런 똥 같은 놈은 혼을 내줘야 한다면서 이혼수속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딸애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버지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자와는 같이 살지를 않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지 않을 바에야 창피를 주고 돈을 갖아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위자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조그만 다방 하나를 사서 돈벌이하겠다는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섬겨야 여자지 돈벌이나 하는 것이 여자는 아니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자들 상대로 돈벌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나고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애는

“남자는 보기도 싫어졌어요. 혼자 살래요.”

하며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남자가 보기 싫어졌는데 하필이면 왜 남자 상대인 다방을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남편은 그러한 딸애에게 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뒤 그렇게 열 내어 일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매일 변호사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구하노라고 사방으로 뛰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보고도 돈을 변통해 오라고 했습니다. 변통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 학교에서 돌릴 수 있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아는지 공제조합이란 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제조합은 그런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니라고 말했더니

“똥 같은 수작은 하지두 마. 결혼하구 장례식을 해야만 빌려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 급하다면 빌려주는 것이지.” 말이 될 말입니까? 실사 빌려준다고 해도 나는 빌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분은 월급이라도 선불해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내 월급으로 생활을 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타다가 소송비용으로 쓰고 나면 한 달 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당신 월급이나 선불받으려—”

이 말을 했더니 그분은

“미친년! 남자 체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자기는 체면을 생각할 줄 아는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6촌 형의 회사에서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하기가 적만을 두고 출근은 하루도 안하면서 월급만 타고 있으니 월급을 선불해 달랄 체면도 없기는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교육자인 나더러 이혼 소송비용에 쓰게 월급을 선불해 오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탔을 때도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딴 데서 돈을 마련하다가 착수금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월급을 탔을 테니까요.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생활비에 내놓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월급까지 쓰라고 할 면목이 없겠지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얼로 생활비를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송해서 이기면 돈이 생기지 않아?”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딸의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을 자기가 쓸 계획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정말 시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송을 건 뒤 저편에서도 떨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하고 돌아간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애만 돌아가 주면 딸애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집안도 잔잔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딸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방도 적지 않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딸대로 위자료를 자기가 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릴 돈 못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나에게 손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매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맞았는지 눈 가장자리가 온통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 쪽 근무해 오는 동안 임신해서 해산할 때 이외에 결혼이라고 해 본 일이 없는 나입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학교를 결근하다니…….

학교를 쉬고 있을 때 시골 친척 집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숨어 있는 아들이 장질부사에 걸려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장에 시골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고열이 내리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자.”

그때 그 애가

“나도 올라가구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붙잡혀 가면…….”

붙잡힐 것을 걱정했습니다.

“붙잡힐 때야 군대로 보내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가야할 걸 피하구 있기만 하면 될 하나…….”

“그래두…….”

“피해 돌아다니느라구 이런 병에까지 걸린 게 아니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구 어떻게 사냐? 너두 그렇겠지만 애미의 마음두 생각을 해 봐라.”

나는 그 애가 친척집에 숨어서 태양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측은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군대를 무서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무를 다 해야만 태양을 떼땀이 보며 산다는 것을 이 애와 남편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남편은 아들에게 징집영장이 나왔을 때 아들 보고 시골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관들처럼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지는 못할망정 자기 아들을 군대에 내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관은 야당으로 있을 때도 아들을 들썩이나 미국에 보내어 징집을 회피했다고 했으며 자유당 시대는 웬만한 사람치고 자식 군대에 보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똥 같은 놈들이 다 그랬는데 나라구 자식을 군대에 보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참으로 남편은 의무라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호벌세니 가옥세니 세금이 나올 때마다 동호나 구청을 찾아가서 야단을 치는 사람입니다.

“똥 같은 자식들. 나를 사람으로 취급 안하는 모양이지?”

세금을 안내는 것이 사람인지 그럴 때마다 눈에 쌍심지를 켜는 남편이었습니다.



변소차가 안와서 변소가 조금만 차도 시청으로 전화를 걸고 전기가 잠시 끊어져도

“똥 같은 자식들 될 하는거야?”

하며 호통을 치는 양반이 해야할 의무는 왜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딸에게는 여자의 의무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아들을 군대로 내보내기만 했다면 아들은 제대한 뒤 학업을 계속하고 떼땀이 사회로 진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기피자로 만들어 이렇게 숨어 살게하고 있으니 다니던 학교는 계속할 가망이 없고 전도는 캄캄하게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나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고 서울로 가서 자원해서라도 군대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때면 몰라도 이렇게 최악한 때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며 서울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수 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 몸이 튼튼해지거든 걱정 말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신문 한 장을 사 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소송 이야기가 큼직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신문에 기사로 난 것을 보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엔 공포된 기사를 보자 나는 어쩐지 세상에서 다 돌린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당장에 학교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울역에 내리자 정말 얼굴을 숙이고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매 맞아 멍든 자리쯤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다.

사실은 멍든 얼굴을 가지고 아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아들도 눈치를 채고 멍든 얼굴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내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았지만 나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기에 병든 자리쯤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집까지 이르렀더니 남편은 기고만장해서

“똥을 싸게 똥다. 기사두 잘 내 쫓군…….”

하며 신문을 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딸애도 기사가 만족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의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체면도 없는가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사표를 내야겠어요.”

했더니 남편은

“왜? 무엇이 부끄러워 사표를 내는 거야?”

하며 소리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해야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고 내일 사표 제출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칠주는 좀 낫어?”

하고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아갑니다.”

“다행이군…….”

안심하는 남편을 보자 나는

“서울루 데려오기루 했어요.”

하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았습니다.

“데려오다니? 그대 군대엘 보내구야 말 작정이야?”

남편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숨어 살게 하겠어요?”

“미친년 봐. 누가 보낸다고 그랬어? 그 애만 밀지구 살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야? 군대 안 나간 사람 두 취직만 잘 하구 사는 세상인데…….”

“남들이 그런다고 그 애두 해를 못 보구 살게 할 게 뭐예요?”

“아가리 닥치지 못해?”

남편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세를 보아서 자기가 올라오라고 할 테니 그때까지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는 편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얼굴이 퍼렇게 멍들었으니 교장선생님은 가정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했지요. 그래서 만류를 했습니다. 나같이 늙은 선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표 제출하는 이유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왜 그만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표를 제출하고도 나는 며칠 동안 사표 제출했다는 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의 소송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위자료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현금까지는 받지 못했는데 남편과 딸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소송비용으로 2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고 딸은 50만원 이상 못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안을 했던 일이고 자기가 비용을 대서 한 일이니까 남편은 200만원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딸대로 자기의 불행을 팔아서 얻은 돈이니 그 돈 전부를 자기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어떻게 귀결 지어질지 불만한 일입니다.
나는 남편이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6촌 형이 돈을 벌기 전에 자기 집 식모와 간통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약점 삼아 그 형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남편입니다. 취직을 했으면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도 형의 약점을 붙잡고 출근도 안 합니다. 일을 하면 과장도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중역도 될 수 있을 것인데도 그분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놀고 월급 타는 것을 잘난 사람의 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딸일망정 소송에서 이긴 값을 딸에게서 받으려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나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사표 제출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나를 때렸습니다. 무얼로 살림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와 결혼한 것은 내 월급으로 살림을 하기 위해서였던가 보지요? 남편의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만이 아니겠지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사를 해서라도 돈을 벌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길가에 나가 사탕 장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빨리 사탕 장사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월급은 집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학생 상대로 장사를 할 결심을 하고 물건 사들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장질부사는 다 나왔는데 심장병이 덧생겨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모든 굴욕을 참아왔습니다만 죄 없는 자식을 죽이고 나니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개심할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할 사람이니까요. 아들을 죽게 만든 부모의 낯이 없어 죽는 나를 보고도 그분은
“미친년.”

소리만 할 것이니 나는 유서도 남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욕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남편이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털끝만큼 만이라도 보인다면 나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보니 군대의 병원에서는 나 같은 나이든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군대에 나가지 않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남편의 죄과를 대신 갚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이 오욕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군대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미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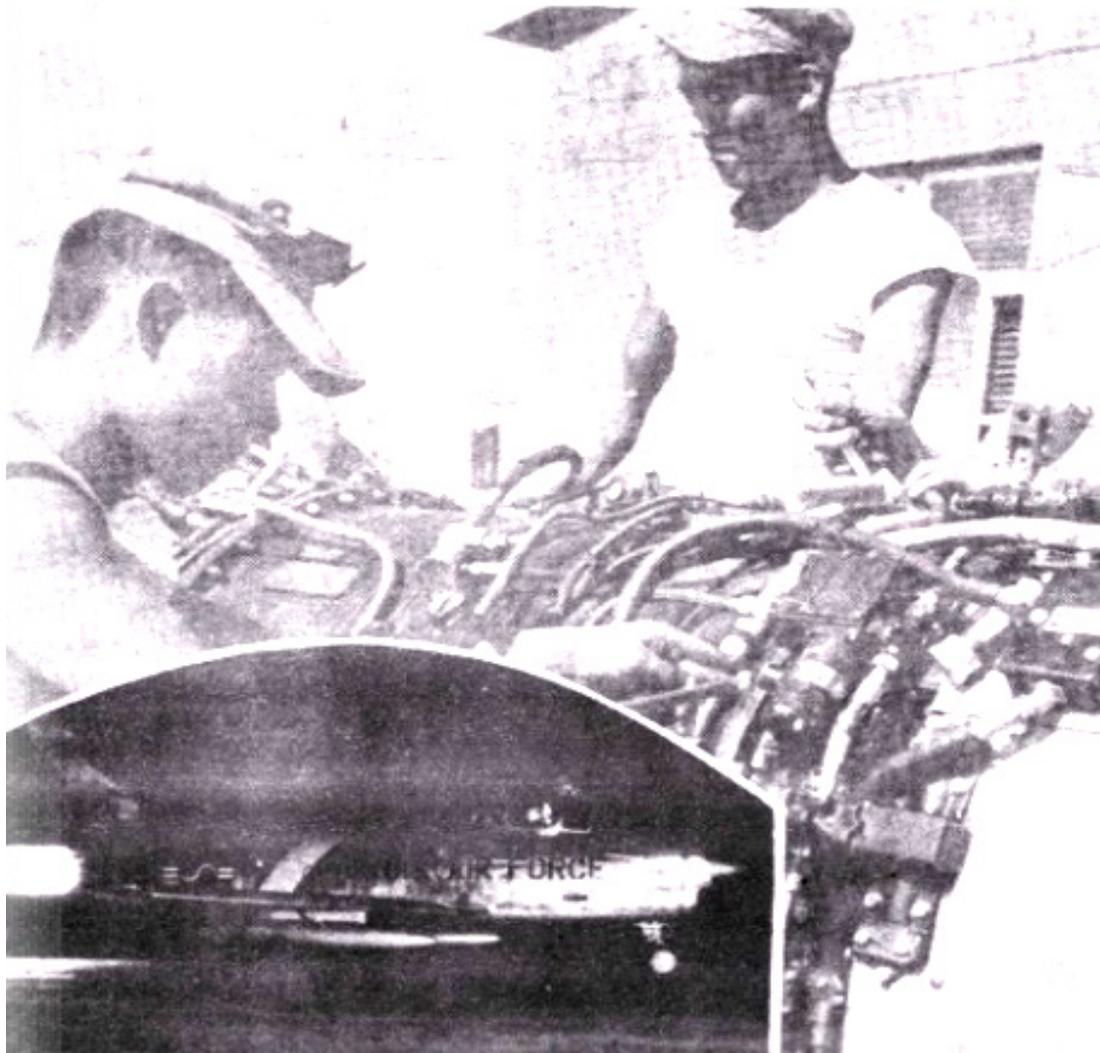
하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군대까지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분에게는 내가 죽은 것으로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

미사일
제3호
단기 4294년 6월 20일 인쇄
단기 4294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공군정훈감
주 정 호
인쇄처 공군교재창



여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의 참모습이 있다.
수마(水魔)가 휩쓸어간 남원(南原) 일대에는 우리 33구조대원 헬리콥터들이 동원되어 중환자 수송 및 식량 공급에 복(伏) 더위를 이고 있다. 우리들은 하늘에서 용맹하고 땅에서 인자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계절과 주야(晝夜)
가 가려질 수 없다.
밤하늘을 꿰뚫는 제트
폭음(爆音)(아래)과 나
사뭇을 죄는 구슬땀(아
래)으로 하여 극동(極
東)의 자유는 안식(安
息)할 수 있고 이쁜이의
꿈은 파랑이만 하다.



<명작사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남매
사이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웃사이일지
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
랑스럽고 정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에
든다. 녹음(綠陰) 사이로 그들이 앞길을 비
쳐주는 광명(光明)...

희망(希望)...

그리고 고갯길—

(사진=미국의 W. Eugene Smith의
작품, 「인간가족」에서)

미사일

월간

미사일

3 號

공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